박사학위논문

# 경기민요 명창 묵계월의 생애사 연구

2015년

한성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고전문학전공
정 경 숙

박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신경숙

# 경기민요 명창 묵계월의 생애사 연구

Study on the life history of a master singer of Gyeonggi folk song, Muk Gyewol

2014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국 어 국 문 학 과
고 전 문 학 전 공
정 경 숙

박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신경숙

# 경기민요 명창 묵계월의 생애사 연구

Study on the life history of a master singer of Gyeonggi folk song, Muk Gyewol

위 논문을 문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국 어 국 문 학 과
고 전 문 학 전 공
정 경 숙

정경숙의 문학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 국 문 초 록

## 경기민요 명창 묵계월의 생애사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고전문학전공
정 경 숙

본 논문은 경기민요 명창 묵계월의 생애사*Life history*를 통해, 경기민요의 근·현대사를 정리함으로써, 전통예술의 학론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명창의 생애사'란 명제의 특성상 가계家系는 물론, 특히 '구술심전口述心傳'에 의한 도제식徒弟式 전수傳受 교육상 사승師承 관계를 예의 주시했다.

묵계월의 가계는 당시 대부분의 가창가歌唱家가 그러했듯이 한미寒微해 11세부터 20세까지 양어머니에 의해 교육된 소리꾼으로 출발했지만, 중요무형문화재로 선발된 이후 비로소 예인藝人으로서의 신분 상승, 나아가 그 영예에 충실하고자 자신의 사명감에 솔선수범率先垂範하였음을 증명하였으며, 사승관계를 통해 경기민요에 관심 갖게 된 동기 및 그 학습과정과, 공연 및 음반활동, 특히 경기민요연구회 결성과 연구회 활동, 나아가 경기민요의 무형문화재 등재 과정을 경기민요의 발달사적 차원에서 정리하였다. 물론 이상의 정리 작업이 참고문헌을 통한 연구·정리가 아니라. 온전히 한평생(80여년) 경기민요 가창자로 살아온 묵계월과, 40여년 스승으로 모시고 함께 활동해 온 연구자와의 대담 녹취는 그 어떤 유형의 문헌적 기록 이상의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녔으며, 노령으로 인한 기억상실은 몇몇 문헌에서 보충하므로, 묵계월 개인의 전기적 가치 이상 경기민요의 발전사적 가치 및 미래 제시적

연구물이고자 하였다.

특히 목계월 · 안비취 · 이은주 3인을 주축으로 한 경기민요연구회의 세 명인은 경기민요 무형문화재로 등재된 이후, 이들 명인은 생활인으로서의 명창이 아닌, 공인, 이른바 예인藝人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사명을 다 했음을 무대공연 및 왕성한 음반활동, 그리고 민속예술의 대중화에 기여한 민속공연활동의 시례를 다양한 팜플렛 및 초대장 · 홍보게시물 등 자료 제시를 통해 예증했다.

그 중 특히 묵계월의 남다른 업적은 거의 독보적으로 이문원 소리선생으로부터 전수傳受해 완창完唱해 오던 송서율창誦書律唱의 맥을 제자 유창에게 전수傳授해 2009년 서울시 문화재 제 41호 송서율창 보유자에게 계승하므로스승의 도는 물론, 당대에서 끊어질 뻔했던 한 전통예술의 맥을 이었다는 점에서 참다운 사도師道를 다했다 할 것이다.

이 밖에도 묵계월의 문하에는 인간문화재 보유자 2명, 전수조교 4명, 전수장학생 5명, 대통령상 수상자 9명, 경기민요 이수자 36명 등 많은 후학을 양성하므로 민속예술가로서는 물론, 위대한 교육자의 역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예능 못지않게 중시한 인성교육의 면면을 점검하고 예증하였다.

따라서 묵계월 명창 한 분의 생애사 논고였지만, 이 논고를 통해 초기 한국 민요의 발달 과정은 물론, 앞으로 국악인 모두가 사명처럼 수행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므로 경기민요의 발전사 및 위대한 교육자로서의 면모를 밝혀 후학의 귀감으로 삼고자 했다.

【주요어】 묵계월, 생애사, 구술사, 경기민요, 인간문화재, 경기민요연구회, 송서율창, 삼설기, 후학양성

# 목 차


I. 서 론 ····· 1

1. 연구 목적 ····· 1
2. 연구 범위와 방법 ····· 4

II. 묵계월의 가계와 전통예술에 대한 관심 ····· 8

1. 家系와 6·25 體驗 ····· 8
2. 師承關係 ····· 18
3. 경기민요에 대한 관심 ····· 20

III. 경기민요 학습과정과 초기 음악활동 ····· 26

1. 경기민요 입문과 학습과정 ····· 26
2. 초기 음악활동 ····· 32

IV. 인간문화재로서의 활동과 후학양성 ····· 57

1. 문화재지정과 예술적 동반자 ····· 57
2. 무대공연 및 음반활동, 민속공연활동 ····· 70
3. 송서율창의 학습과 활동 ····· 103
4. 후학양성 ····· 114

V. 경기민요사와 묵계월의 예술가적 위상 ····· 123

VI. 결 론 ····· 125

참고문헌 ····· 128
참고자료 ····· 129

ABSTRACT ····· 130

# I. 서 론

## 1. 연구 목적

근년 들어 문헌자료에 의한 연구의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구술채록을 통한 전통문화와 시대상을 이해하려는 연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생애사Life history, 또는 구술사Oral history에 의한 개인의 경험이나, 기억을 통해 한 시대 민족예술의 단면을 이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문헌자료의 대부분이 특권계층에 관한 자료가 대부분이기에, 민중들의 삶과 전통예술을 이해하는데 한계를 느껴왔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법으로, 학계에서 수용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구술채록에 의한 조사·연구방법은 무형문화재 관련 연구방법론에도 도입되었으며, 국립무형유산원은 2014년에『무형문화유산 학술총서』를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무형문화재는 사람을 매개로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From generation to generation*되기에 시간의 흐름과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변화되거나, 단절되므로 기록 작업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영상이나 문자기록에도 한계가 있기에 구술채록은 무형문화재의 전승주체인 개인의 생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무형문화재의 습득과정, 다양한 전승활동과 전승환경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다.[1)]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인간문화재가 우리사회에서 '명인'이니 '명창·명장' 등의 호칭을 얻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2)] 이들이 예술가로 입문하여 국가적으로 공인된 예술가로서의 활동은 근대이후 국악사, 또는 전통예술사를 이끌어온 선구자들이다. 그러나 이들에 관한 문헌이나, 영상자료는 아주 빈약하여 예능의 형성과정이나, 예술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

1)『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채록 연구의 성과와 가능성 - 무형문화유산 학술총서1』, 국립무형유산원, 2014, 8쪽.

2) 문화재보호법에는 '보유자'란 명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인간문화재'란 명칭이 통용되고 있기에, 이 논문에서는 '인간문화재'라는 명칭을 사용코자 한다.

정악正樂이나 정재呈才는 궁중에서 행하였던 예술이기에 문헌자료가 비교적 풍부하며, 무보나 채보가 되어 있고, 국가적인 기관에서 전승이 이루어져 왔다. 한편 민중예술은 개인적으로 스승에게서 도제徒弟 형식으로 사사받아, 교재나 교본 없이 언어[口述]로 전승되었다. 따라서 창법唱法이나 가사歌詞가 전승자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지역에 따라 독특한 형식을 갖기도 한다. 예를 들어 경기민요는 과거에 어떠한 길을 걸어왔으며, 현재에는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자료만 해도 얼른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자는 40년 넘게 경기민요 가창자歌唱者로서의 길을 걸어오고 있지만, 경기민요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으며, 문화재로 지정되어 현재 정형화되었는지 그 과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얼마 안 되는 자료를 통해 조금은 짐작할 수 있었지만,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경기민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기에 생애사生涯史 연구를 통해, 경기민요를 학술적으로 정립할 필요성을 절감해 왔다.

본 연구자는 80년 넘게 경기민요에 몸담아 온 인간문화재 묵계월의 제자이다. 이번 연구에 이러한 사실을 말하는 이유는 이 연구의 진실 된 목적 때문이다. 묵계월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과거 일제 강점기를 거쳐 현재에 오기까지, 경기민요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그 때마다 경기민요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학부시절부터 절감해 왔다. 경기민요의 학문적 접근, 혹은 그 발달사를 알아보기 위한 지금의 자료들은 그 일부만 짐작할 수 있을 뿐, 아쉽고 안타까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묵계월의 생애사 연구는 묵계월의 구술채록 자료와, 연구자가 소장해 온 팸플릿 및 염창순이 소장한 초대권을 비롯해, 다양한 이미지자료들을 활용해 정리한 자료집으로, 묵계월 개인뿐만 아니라, 한국민요 발달사의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묵계월의 생애사 연구는 경기민요의 흐름을 살펴보는데, 매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묵계월은 어린 시절부터 민요에 입문하여, 여러 스승들을 거쳐 경기민요의 최고의 가창자가 되었다. 해방 이전에는 양어머니의 영향으로 민요를 배우며,

학습을 위해 공연활동을 하다가, 20대 이후에는 생계를 위한 공연활동을 하게 되었다. 당시의 공연 무대는 물론, 기회조차 거의 없었기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묵계월은 결혼을 하고도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작은 무대에 섰으며, 해방 후에도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며, 경기민요의 외길을 걸어왔다.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묵계월은 한때 경기민요를 그만두고자 하였으나, 역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시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당시 국가적으로 어려웠던 시대적 상황은 경기민요뿐만 아니라, 국악인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며, 민족 문화예술을 유지 발전시켜 왔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귀중한 증언 자료가 될 것이다.

묵계월의 생애사가 경기민요의 흐름을 살펴보는데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인간문화재이기 때문이다. 묵계월과 안비취 · 이은주는 1975년에 인간문화재가 되었다. 문화재 지정에 큰 역할을 하였던 경기민요연구회는 문화재 지정에 적극적이었던 안비취와 묵계월 · 이은주 세 분의 명창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연구회이다. 이 세 분 명창은 현재 경기민요에 있어서는 큰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며, 묵계월과 한 시대를 걸어 온 경기민요 가창자이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아도 좋을 것이다.

인간문화재로 인정되고, 묵계월의 경기민요 활동은 크게 변하였다. 잔칫집과 요릿집 공연, 부민관 공연, 움집 공연에서, 더욱 큰 무대공연과 민속공연으로 확대되었고, 음반과 방송활동 역시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후학을 양성하기 시작한 때가 이때부터였다.

특히 묵계월의 〈삼설기〉는 유일한 무형문화재로 비록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돌아가시기 전까지 활동했던 경기민요 〈12잡가〉와 함께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묵계월과 함께 활동해 온 연구자는 국악사나 공연예술사에 소중한 기회였고, 추억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묵계월의 생애사 자료는 그 동안의 경기민요의 흐름을 고찰하기에 부족했던 점들을 채워주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묵계월의 삶이 경기민요의 전체를 이해하는데 전부라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있는 자료들에서 알 수 없었던 많은 부분들을 새롭게 알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묵계월의 삶과 경험을 이야기한 구술채록 자료에서 부족한 내용들은 함께 공연활동을 펼치며, 소장해 오던 팸플릿과 염창순이 소장하고 있는 초대권 및 이미지들을 통해 보충하였으며, 경기민요와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 보완하였다. 묵계월과 함께 활동하였던 하진옥의 구술채록 자료역시 묵계월의 구술채록 자료에 대한 확인 대비로 적절히 활용할 수 있었다.[3)]

이 연구는 묵계월의 삶과 음악활동을 중심으로 조사한 구술채록 자료와, 이미지 자료들을 가지고 경기민요의 흐름을 살펴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묵계월의 구술채록은 본 연구자가 직접 조사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충실히 기록하여 자료를 얻고자 노력하였다. 구술채록을 하는데 있어서 조사자가 권위적인 태도로 조사하여 연구자의 해석・오해・편견이 있다는 비판을 충분히 고려하므로, 조사자와 피조사자 간의 상호교감 속에서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려는데 중점을 두었다. 기록 방법으로는 인간문화재와 면담을 통해 구술기록을 직접 하였고, 그의 삶과 예인으로서 특별한 경험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4)] 따라서 경기민요의 근・현대사를 정리함에 그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에서 중요한 자료는 바로 묵계월의 구술채록 자료와 본 연구자가 소장해 온 묵계월의 공연활동을 보여주는 팸플릿과 민속공연의 예매권들, 그리고 그 밖에 이미지자료들이다.

묵계월이 태어난 1921년 10월 19일부터 타계하신 2014년 5월 2일까지의 삶과, 음악활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묵계월의 생애사는 국악에 입문하여 학습하고, 경기민요를 중심으로 한 공연활동을 조사하여, 묵계월의 삶과 활동 속에서 경기민요가 정형화 되는 과정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묵계월의 구술채록 자료는 질문하고 답하는 인터뷰 형식으로 이루어 졌다.

---

3) 묵계월 구술채록 자료 – 1차조사(2012. 2. 2. 묵계월 자택)
2차조사(2012. 2. 10. 묵계월 자택)
3차조사(2012. 2. 27. 묵계월 자택)
하진옥 구술채록 자료 – 2012. 2. 15. 한성대학교 탐구관 101호에서 채록함.

4) 앞의 책, 23쪽 참조.

질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가족관계 및 집안, 출생 비화(태몽 등)및 부모님 이야기
②성장과정
③입문 동기 및 과정
④스승의 말씀
⑤학력 및 학창시절
⑥결혼
⑦환갑
⑧칠순
⑨팔순(※기념 공연 및 기억에 남는 추억 및 비화 등)
⑩자녀관계
⑪강의
⑫공연(첫 공연, 공식적인 공연, 기억에 남는 공연 등)
⑬방송활동(시작 시기)
⑭주요 수상실적(기억에 남는 상 등)
⑮경기도 민요의 특징(여타 민요와의 차별성, 발성 및 내용 등)
⑯제자 및 교육방식의 특징
⑰보유자 준비 및 지정 과정
⑱국악협회의 초창기 모습(준비과정 및 활동)
⑲인간관계(경기도민요와 국악협회 등 활동과정에서의 인간관계)
⑳경기도 민요 발전을 위한 충고 및 제언
㉑한국 민요 발전을 위해 바라는 점
㉒기타

이와 같은 순서로 묵계월의 구술채록 자료를 조사하였다. 묵계월의 구술채록 자료는 묵계월의 어린 시절부터 민요 스승들 문하에서 훈도訓導 받고, 이어 초기 공연활동의 내용, 그리고 문화재 지정에서 문화재 지정 이후 경기민요의 모든 과정을 연구하는데 사용되었다. 하진옥의 구술채록 자료는 묵계월

의 구술채록 자료를 재확인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 자료로 활용되었다.

조사 당시 묵계월은 90이 넘은 연로한 연세이셨기 때문에 경기민요의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경기민요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도록 도와줄 만한 경기민요와 관련된 문헌들을 찾아 보완하였다.

먼저, 묵계월의 팸플릿과 염창순의 민속공연의 초대권, 그리고 이미지자료들이다. 이 자료들은 본 연구자가 묵계월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경기민요 활동을 함께 하는 동안 모아 온 소중한 자료들이다. 이 자료들을 문화재 지정 이전과, 문화재 지정 이후로 정리하여 이미지자료로 만드는 한편, 그 안에 정보들을 모아 정리하였다. 팸플릿 자료들은 수많은 공연활동들을 살펴보는데 큰 도움을 주었으며, 예매권과 그 밖의 이미지 자료들은 〈삼설기〉를 비롯하여, 민속공연을 조사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계월의 음악활동은 너무나 범위가 넓고, 다양하여 다 예시하기에 부족하였으므로 다른 문헌들을 찾아 이를 보완하였다.

문헌자료들 중에서 이윤석의「묵계월 약전」·『묵계월 경기소리 연구』, 정경숙·서종원의「묵계월의 활동을 통해 본 경기민요 史 -공연활동을 중심으로-,『강원민속학』에서는 묵계월의 어린 시절과 양어머니 슬하에서 민요교육을 받던 모습을 살펴보고, 신문자료를 찾아 그 때 당시의 배경과 흐름도 파악해 보았다.

일정 부분 신문자료들과「문화재 관리국 보고서」를 통해, 공연이나 문화재 지정의 과정을 알아보고,「이창배 한국가창대전」에서도 묵계월 만의 독보적인 〈삼설기〉를 비롯해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던 경기민요연구회와 민속공연. 움집공연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국악음반박물관에서 문화재 지정 이전, 이후의 음반 활동을 알아보고, 그 밖에 무대공연이나 방송 활동도 엿볼 수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무엇보다 소장품들을 이미지화 하여 자료의 깊이를 더해주었으며, 문화재 지정 이전과 이후로 크게 구분하여, 연도 별로 정리한 음악활동들을 표와 그림을 통한 통계자료를 만들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

였다. 묵계월과 관련된 문헌자료를 좀 더 다양하게 찾으려고 노력 하였지만,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묵계월의 구술채록 자료와 본 연구자의 소장 자료들은 경기민요의 길을 80년 넘게 걸어 온 묵계월의 생애사 연구에 큰 힘이 되었다.

2014년 5월 2일, 묵계월의 안타까운 타계 소식은 본 연구자가 묵계월에게 2012년까지의 구술채록 자료를 인터뷰 형식의 조사로 마친 후 얼마 지나서의 일이다. 지금처럼 경기민요에 대한 자료들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경기민요에 오랫동안 몸담아 온 묵계월의 타계 소식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경기민요의 길을 가장 오랫동안 걸어 왔던 인간문화재 보유자 묵계월·안비취·이은주, 이 세 분 명창 중에서 안비취와 묵계월이 타계하신 것이다.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신 이은주는 경기민요 1세대의 마지막 명창이시다. 경기민요가 흔들림 없이 더 오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오래오래 버팀목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다. 본 연구자는 늦게라도 스승이셨던 묵계월의 연구를 남길 수 있게 되어, 제자로서 큰 영광이자, 뿌듯함에 못지않게 큰 두려움이 앞섬을 금치 못한다.

이번 묵계월의 생애사 연구는 비록 예술가 한 개인의 삶을 기록하였지만, 그 안에는 경기민요의 발달사와, 발전적 미래가 깊이 자리하고 있음을 강조해서 말하고 싶다. 본 연구자는 묵계월의 생애사 연구가 경기민요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귀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 Ⅱ. 묵계월의 家系와 전통예술에 대한 관심

## 1. 家系와 6·25 체험

이경옥. 예명 묵계월은 1921년 10월 19일, 서울시 중구 광희동 2가 557번지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의 고향도 서울이었으며, 아버지의 성함은 이윤기, 어머니의 성함은 조성녀였다. 묵계월은 다섯 딸 중 넷째 딸로 태어났으며, 큰언니 이름은 이순이, 둘째언니는 이작은순이, 셋째언니는 이은자, 다섯째 딸은 이숙자였다. 둘째 언니는 왕십리에서 설렁탕집을 했으며, 본 연구자가 어렸을 때 스승 묵계월을 따라 함께 들러 자주 식사하곤 했다. 다섯째 딸 이숙자는 제일 큰언니와는 11살 정도 차이가 나며, 바로 아래 동생과는 네 살 차이가 났다.

부모님은 아들을 기대했는데 막상 딸이 태어나자 너무 딸만 본다고 해서 섭섭해 하셨다 한다. 묵계월의 부친은 지금으로 말하면 매듭 장인匠人이셨다. 묵계월의 구술채록 자료에서 '문화재감'이라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 뛰어난 기능인技能人인 듯하다. 매듭은 주로 어린이 노리개 등을 만들어, 시장의 장사꾼에게 넘겨주었고, 장사꾼들은 아버지가 만들어 준 매듭을 소매했다. 물론 하나하나 수작업이었으며, 큰 시장보다는 주로 동네 장터를 대상으로 하셨으며, 돌아가시기 전까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매듭 일을 계속하였다.

> 아버님이 지금으로 치면.....매듭이라고 있잖아요. 매듭. 그거 기술자예요. 지금으로 치면 '문화재 감'이야. 고걸 잘했어
>
> [조사자] : 그럼 노리개랑 그런 거 다 직접 만드셨던 거예요?
>
> 그럼, 노리개. 뭐 그냥. 매듭인데 다양한 거.....
>
> [조사자] : 그럼 아버님은 이것을 만드셔서 쭉 파셨어요? 아.....아버님이 보증을 잘못 서서 뺏겼어요?
> 네. 그때는 그런 일이 많았어. 그러고 나서부터 셋방살이를 했지.

[조사자] : (태어나시고 여기저기 셋방살이를 많이 옮기셨구나.)[5]

아버지께서 왕래하시던 시장은 광희시장이었는데, 당시 광희시장의 규모는 매우 컸다. 묵계월이 19살 되던 해, 아버지는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해방 전 늦은 봄쯤 갑자기 운명하셨다.

묵계월의 어머니는 전업주부셨다. 살림은 풍족하지도 않았지만, 아버지께서 빚보증을 잘 못 서시는 바람에 셋방살이를 하게 되었다. 묵계월의 본적은 서울시 광희동, 지금의 신당동 계림극장 있는 곳이다. 광희동에는 시체가 빠져 나가는 시구문이 있었는데, 성 안에서 살다가, 싼 셋방을 구하기 위해 시구문 밖에서 살게 된 것이다.

묵계월의 본명은 이경옥(李瓊玉)이다. 묵계월의 부친께서 작명가에게 부탁해서 지어준 이름이란다. 묵계월의 기억으로는 어머니가 묵계월을 임신하셨을 때, 집으로 다니며 점을 보는 점쟁이가 있었는데, 어머니께 "넷째 딸하고 살·아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이상하게 '묵계월이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게 됐다고 한다. 이유는 어머니가 묵계월을 임신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음식을 먹고 체하였는데, 온갖 민간요법을 써도 쉽게 낫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묵계월의 바로 위 언니에게 조만간 아우를 보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때서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 탓이었는지, 묵계월은 어린 시절 크게 앓던 기억이 있었다 한다. 그 병은 동생이 생기는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아우발림병'이었다고 한다.

> 아우를 타가지고, 그냥 먹은 게 체해가지고, 그러니까 먹은 게 체한 걸 디비 병원에 다니고 고쳐야 하는데, 병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었으니까, 그렇게 사니까, 고쳐지질 않아서 배가 똥똥하고, 이런 데가 비비께고, 아프기를..... 한 일곱 여덟 살까지 아프다가 살아 나드래. 그랬는데..... 살살 일어나면서 살고 비를 채리더래, 내가. 그래서 이상하다고 어머니도 쟤는 죽는 아이라고 하던데, 살살 일어나면서 걸어댕기면서 그러더래. 그래서 살아났어.[6]

5) 묵계월 구술채록 자료 1차(2012. 2. 2)
6) 묵계월 구술채록 자료 1차(2012. 2. 2)

묵계월의 가족이나 친척 중에 노래하는 사람은 없었다. 다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무척 좋았다는 묵계월의 기억을 가지고, 어머니로부터 재능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술집에서 어머니가 슬픔을 잊기 위해 술 한 잔 드시며 우시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울음소리가 하도 청승스럽게..... 힘 안들이고 잘 우셔서, 묵계월은 그 울음소리가 무척 좋았다며, 그 때 '어머니를 많이 닮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 아니 그런 건 없었고, 그럴 줄 모르고 아리랑 타령, 뭐 이런 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왜 목소리가 좋으냐 면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술집에서 우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울음소리가, 목소리가 좋아.(웃음) 우시는 목소리가.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를 닮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
>
> [조사자] : 그 때 아셨나 보네요.
>
> 네, 그 때는 인제 철 좀 들었죠. 아..... 내가 어머니를 닮아서 목소리가 이렇게 괜찮은가 보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 내가 목소리가 이렇게 괜찮은 거는 어머니를 닮아서 그런 거 같애. 그러니까 왜 그래. 어머니 울음소리가 보통 울음소리가 아니야. 힘도 안들이고, 그렇게 청승스럽게 우는 모습을 보니 내가 어머니를 닮긴 닮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묵계월은 어린 시절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 언니들과 동생들도 역시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점도 있었지만, 그 당시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 않았던 것이다. 묵계월은 민요에 입문하기 전까지 집에서 살았으며, 민요를 배우기 위해 집을 나와 양어머니 집으로 간 이후로는 집안 사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였다. 다만 묵계월의 아버지는 계속해서 매듭 일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묵계월은 11살 나이에 양어머니 집에 양녀로 들어가 민요에 입문하게 된다. 양어머니 집에서 많은 스승들을 만나, 경기민요를 제대로 배우게 된 것이다. 하지만 친 가족을 만날 수 없는 슬픔과, 세월이 흐를수록 커지는 양어머니의 핍박은 견디기 힘들었다. 결국 묵계월은 20살에 양어머니 집에서 나오게 된다. 양어머니 집을 나온 뒤 묵계월은 1942년도에 김영배라는 사람과 결

혼을 했다. 남편 김영배는 1904년생으로 69살에 돌아가셨는데, 고향이 서울이었으며, 묵계월의 공연을 보고 반하여, 남편이 고백하면서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 한다.

결혼 전 당시 묵계월은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작은 키에, 예쁜 얼굴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소리가 좋다 보니 공연이 끝나면 다가와 사귀자고 하는 남자들이 종종 있어, 골치 아픈 적도 몇 번 있었다고 한다. 묵계월은 남편이 가진 것이 많지 않아, 집에서 간단하게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다 보니 주례는 물론 예단도 없고, 신혼여행도 가지 못하였다. 조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서울 돈암동에다 신혼집을 마련하였는데, 그 이유는 돈암동 집값이 저렴했기 때문이다.

당시 묵계월이 살던 신혼집은 일본식으로 지어진 허름한 집이었다. 묵계월은 바로 딸을 낳고, 이어서 아들과 딸을 더 낳았다. 일본 식민지 시대가 끝나고, 한국전쟁으로 피난을 떠나기 전에 묵계월은 세 명의 아이를 낳은 것이다. 첫째 딸은 원숭이 띠이며, 이름은 김연숙이다. 둘째 자식인 아들의 이름은 김종일(개띠)이며, 막내딸은 김연진(소띠)이다. 자식들의 이름은 모두 남편이 지어주었다.

[조사자] : 선생님 그럼 자녀가 세 분이시죠?

네. 큰 아들이고 작은 아들이고, 아들은 하나예요.

[조사자] : 아들 한 분에 따님 두 분, 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첫째가 아들? 딸?

딸 그 다음에? 그 다음이 아들이지요. 아들. 그 다음 딸

[조사자] : 딸은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아, 우리 큰 딸요?(웃음) 김---(웃음) 우리 큰 딸은 연숙이, 김연숙이예요. 그리고 큰아들은 김종일이고요.

[조사자] : 그럼 막내따님은 이름이 뭐예요?

아, 우리 막내딸은 김연진.
[조사자] : 연희요?

아니 연진이예요. 다섯 살 딸하고, 작은 딸하고 다섯 살 차이가 나요?

[조사자] : 무슨 띠예요 큰 아드님은?

아들은 개띠이고, 큰딸은 잰나비띠예요. 그리고 막내딸은 소띠예요. 지금 막내 딸이 예순네 살이예요. 아들이 예순여섯이고요.[7]

그런데 남편은 직장(일본인이 운영하던 회사)을 그만 두고, 묵계월의 공연을 따라 다녔다. 결국 집안의 생계는 자연스럽게 묵계월의 몫이 되었고, 식구가 늘어나면서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그러다 보니 무대나 방송 공연보다는 잔칫집에 가서 소리를 하면서 생활을 해야만 했다. 비록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다섯 식구가 생활하는 데에는 잔칫집공연이 무대 공연보다 더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묵계월은 양어머니 집을 나와 소리를 하지 않았던 기간이 2 -3년 있었다. 그러나 결국, 결혼과 동시에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식구들의 생계를 위해 다시 소리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다음 묵계월의 구술채록 자료에서 알 수 있었다.

그때는 내가 공연이고 뭐고 활동을 안했어요. 아예. 잔치집이고 뭐고 아무대도 댕기지를 않았어요. 놀았어요. 해서 시끄럽고, 여러 가지..... 한 2~3년 쉬었나 봐요. 그러자.....응?

[조사자] : 그때..... 인제 결혼을 하신 거네요?

예.

[조사자] : 그리고 인제 결혼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신건가요?

네. 경제적인 게 아무래도…[8]

결혼을 한 뒤로 해방을 맞이한 묵계월은 1950년에 한국전쟁을 또 다시 겪

7) 묵계월 구술채록 자료 1차(2012. 2. 2)
8) 묵계월 구술채록 자료 1차(2012. 2. 2)

어야만 했다. 당시에도 묵계월은 돈암동에서 살고 있었고, 묵계월의 가족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서울을 떠나 피난을 가야만 했다. 묵계월의 가족이 언제 부산으로 피난을 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으나, 묵계월이 '피난을 가던 날 무척 추웠다'는 기억으로 보아, 한국 전쟁이 일어난(1950) 이후 처음 맞는 겨울이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묵계월은, 그때 누구나 그랬겠지만, 미리 피난 생활을 준비했던 건 아니었다. “요릿집에서 공연을 하는데, 그곳에 오던 군인이 '촉박하니 얼른 피난을 가라.'고[9] 했다."는 내용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급하게 피난 갈 준비를 마친 묵계월은 가족들과 함께 부산행 기차가 있는 서울역으로 서둘러 갔다. 이 때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는 묵계월의 구술채록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그 분(군인)이 ‘내가 이렇게 소리를 하는 걸 들으니까, 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당신도 데리고 가려고 왔노라.’ 그러면서, 그렇게 한두 번 만난 분을 따라 용산역에 갔었어요. 서울역에서 기차가 떠나서 용산으로 가면 기차를 만난다고, 그래서 용산역에 가 보니까, 기차는 떠나고 없었어요. 그래서 인제 지금 막내딸 연진이를 업고, 그러고 그냥 그 용산역을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군인 양반이 한 사람 와서 앉았어. 가만히 보니까, 그 저녁에 내가 나가던 거기서 본 분 같애. 그래서 내가 먼저 인사를 걸었어요. 그 분은 날 몰라봐요. 하도 지저분하게 채리고 아이를 업었는데, 두루매기에 없었어. 그때는 포대기가 없었어. 두루매기에..... 나도 얼굴도 지저분하고, 그냥 그때 얼굴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차림새로 그러니까 날 몰라봐요. 그래서 내가 먼저 말을 걸었어. 거기..... 돈암동 아무개에서 뵌 거 같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아! 그래요?" 하면서 날 가만히 보드니, “그런데요? 피난을 안 나가고, 왜 여기서 왔다 갔다 하세요?” “피난을 갈려고 나왔는데 차도 다 끊어지고, 올 데 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차편이 되나 하고…” 그랬더니 “몇 식구나 되요?” 하고 묻길래 “아이 셋하고 이렇게 부부 다섯 식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가만히 계셔보라고. 우리 차가 뭐 좀 실은 차가 이제 곧 떠날 것 같으니까, 그 차를 타라고 그래요. 그래서 탔어요. 한 밤 열시쯤 돼서 그 차를 탔어요. 날씨가 추우니까, 그 때 그 차에 인민군 솜옷 같은 거를 맨들어 놨던 거를 대령이 점령을 해가지고 실고 가는 거야. 자기 식구들을 먼저 피난을 시키고, 그래서 내가 그걸 깔고, 이렇게 담벼락을 쌓고 머리에 싸고, 젊었으니까 잠이 그..... 그런 와중에도 잠이 들었나봐요. 잠이 꼬빡 들었다가 깨니까는 영등포에 와 있어요, 차가. 용산역에서 떠난 차가. 영등포 역에서 사람이 백철치듯 드는데 이 차가 와서 서니까, 개

9) 묵계월 구술채록 자료 1차(2012. 2. 2)

미떼처럼 달겨드니까 차가, 내가 잠들었던 차가, 끼어서 요렇게 앉졌드랬어요. 어트케나 사람이 많이 오는지. 그 사람들을 다 태워가지고, 대구를 지나서 삼량진인지 거기쯤 와가지고, 탁 스돕을 해서 꼼짝달싹 안해요. 응크래서… 그 군인, 그 양반이… 우리 중사 하나를 보낸다고… 그래서 이 중사를 같이 먹이고, 용돈도 좀 주고, 그러라고 부탁을 해요."[10]

우여곡절 끝에 기차를 타고, 부산의 삼량진에 도착한 묵계월의 가족은 며칠을 삼량진역 기차에서 보냈다. 용산역에서 소개받은 중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피난조차 힘들었을 것이다. 삼량진역 기차에서 묵계월의 가족들은 밥을 지어먹으며 생활하였고, 그 동안 묵계월의 남편은 가족이 살만한 곳을 찾아보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한번은 많은 비가 내린 적이 있었는데, 그날 살 곳을 찾아본다고 나간 남편이 기차를 찾지 못해 늦게 오는 바람에 무척 걱정하였던 기억이 있다고 한다.

군수품을 싣고 삼량진으로 온 기차가 모든 작업을 마치고, 떠날 때가 되었다. 묵계월의 가족들도 기차를 그만 떠나야만 했는데, 마땅히 갈 곳도 없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였다고 한다. 그때 도움을 준 중사가 기차에 싣고 온 솜뭉치 두 개를 묵계월에게 주며, 얼마 되진 않지만, 솜뭉치를 팔아 우선 있을 곳이라도 알아보라고 하였고, 묵계월은 그 중사가 시키는 대로 솜뭉치를 가지고 부두에서 내다 팔았다. 그때 당시만 해도 솜이 귀했기 때문에 좋은 가격으로 팔 수 있었다.

그래서 있는 데까지는 허마, 하고, 돈이라고 별로 가지고 나온 것도 없지만은 있는 데까지는 해보자고. 그래서 그 중사하고 같이 삼량진에서 내려서 거기 삼량진에도 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쌀을 씻어서 아이를 업고 내가 그 차 꼭대기를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밥을 해서 거기를 또 기어 올라가서, 차가 언제 떠날지를 모르니까 올라가서 앉아서 그 중사랑, 우리 식구들하고 밥을 먹고, 그러기를 거기서 한 사나흘 밤을 지냈나 봐요. 더 지낸 거 같애, 삼량진에서. 그래 가지고는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차가 떠나서 지나갔는데, 차가 무슨 제 1부두가 있고, 제 2부두가 있고 그렇더라구요. 그런데 어딘지 갔다가 차를 세워놨는지 우리 할아버지가 먹을 걸 사러 나갔는데, 우리 차를 못 찾는 거야. 내린 데가 아니고, 다른 데 들어가 있으니까.

10) 묵계월 구술채록 자료 1차(2012. 2. 2)

그래서 그냥 아침에 나가서 다 저녁때가 돼서야 돌아왔어요. 그런데 비는 오고, 거기서 아이 셋을 데리고 나 혼자 찔찔매고. 그런데, 그냥 내리라고 소리를 또 지르고, 내릴 수 없다. 아이 셋을 데리고 비는 오는데 어떻게 내리느냐? 나 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인이 뭘 사러 갔는데, 못 찾는다고, 갔는데 안온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게 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해서 겨우 붙어있는데, 다 저녁때가 돼서 오더라구요, 차에. 그렇게 고생을 하고, 인제 그 솜옷 그거를… 박 중사야. 박 중사가 다 실어 나르는 거야. 자기네 피난 있는 데로. 대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서는 움직이는 거지, 그 사람은. 근데 그 솜옷을 두 뭉치를 줘. 이런 보따리로, 박 중사가. 이걸 팔아서 방이라도 하나 얻든지,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서 그냥 두 뭉치를 줬어. 두 뭉치가, 한 뭉치도 많아요. 두 뭉치를 주면서 가져가라고……그래서 고맙게 받아가지고 왔어요.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부두 사람한테 파니까, 잘 팔리데. 뜨듯하고 그러니까[11].

중사가 준 솜뭉치를 판 돈으로, 묵계월의 가족은 며칠 동안 먹을 쌀도 사고, 조그마한 방도 구할 수 있었다. 당시 부산에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오다 보니 묵계월의 남편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리고 많지 않은 돈으로 집을 구할 수도 없어, 며칠 동안은 여기 저기 다니며 이부자리를 깔고 잠만 잘 수 있었다. 그러다 어렵게 가족들이 머무를 수 있는 집을 구했는데, 그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가축을 기르거나 물건을 놓는 헛간이었다. 비록 헛간이었지만 묵계월의 가족에게는 어렵게 구한 소중한 집이었다. 그래서 담도 만들고 방도 만들어 다다미를 깔고 삼년을 그곳에서 살았다.

그래가지고선 팔아가지고는 쌀 사먹고, 방을 못 얻었으니까, 방 얻을 동안에 통둣가를 댕기면서 점심 사먹고, 저녁 사먹고, 아이 둘 데리고 내가 아이하나 업고, 우리 할아버지는 방 얻으러 댕기느라 아침부터 댕기고. 그렇게를 며칠을 했어요. 그래 내가 할아버지가 댕기던 회사 사람들이 부산에 와서 점령하고, 벌써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우리가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문턱에 가다 집에서 짐을 또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지붕에 짐을 쌓아놓고, 사무실이 비면, 다들 비면 사무실 바닥을 다 치우고는 거기다가 이부자리를 깔고, 눈을 잠깐 붙이고, 떼고 그러기를 며칠을 지냈어요. 그렇게 해서 방을 하나 얻은 것이 주인집 헛간이야. 헛간을 하나 얻었어요. 그거를 저기… 무슨 까끌라나 그거를 하나 얻어서 그걸로 담을 하고, 방을 하나

11) 묵계월 구술채록 자료 1차(2012. 2. 2)

맨들었어요. 방을 맨들어서 다다미를 깔고, 거기서 삼년을 지냈어요. 그 집에서[12].

비록 헛간이긴 했으나, 묵계월과 가족들은 그곳에서 피난생활을 해야만 했다. 묵계월의 가족들에게는 당시 그런 집조차 구하기 어려웠던 피난민들을 생각하면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었던 것이다. 남편이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묵계월은 할 수 없어, 부산에서도 다시 소리를 해야만 했다.[13]

그런데 어렵게 구한 피난 집이었지만 헛간에서 생활하다 보니, 아이들의 건강이 좋지 못했다. 더욱이 제대로 먹은 밥이 한 달에 몇 번 밖에 되지 않으니, 아이들의 건강이 걱정되었다. 결국 세 아이 모두 홍역에 걸려 죽을 고비를 넘겨야만 했다. 먼저 첫아이부터 홍역을 시작하더니 둘째, 셋째 아이가 모두 홍역으로 고생을 했다. 병원에 갈 돈이 없어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아이들이 나을 때만 기다렸는데, 다행스럽게 아이들이 홍역을 잘 넘겨 무사할 수 있었다.

묵계월은 전쟁이 끝나면서 3년 동안의 피난생활을 접고, 가족과 함께 서울 돈암동으로 돌아와 엉망진창으로 변해버린 돈암동 신혼집을 새롭게 단장하였다. 피난생활로 비워두었던 돈암동의 신혼집은 마당에 무성한 풀들이 가득하였고,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마루의 합판을 떼어 가, 남아 있는 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마침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묵계월을 찾아왔다. 그 사람은 “환갑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소리를 할 수 있냐?”는 부탁을 하기 위해 왕십리에서 돈암동까지 묵계월을 찾아온 것이다.

하지만 묵계월은 그 사람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묵계월은 다시는 소리를 하지 않고, 돈암동 집을 개조하여 하숙을 하기로 마음먹었었기 때문이다. 묵계월이 피난을 갔다 서울로 돌아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어떻게 알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해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해 왔다[14] 결국, 묵계월

12) 묵계월 구술채록 자료 1차(2012. 2. 2)

13) 부산에서 피난생활을 하는 도중 남편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여러 직장을 알아보았으나 구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남편은 기차를 타고 서울을 오가며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부산에서 파는 일을 하였다. 남편이 취급한 물건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살림살이였던 것으로 묵 계월은 기억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남편은 장사를 한 것인데, 점포를 잡아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바닥에 서울에서 사온 살림살이를 펼쳐놓고 팔았다. 그런데 남편의 사업은 잘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 팔지 못한 물건은 직접 쓰기도 하였다.

은 본업이었던 소리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다.

> 오라고 그래요. 여기저기서..... 난 여기 와서 이걸 안하려고 그랬어. 아주 힘들고, 너무너무 이 소리생활이 이렇게 어렵고 힘이 들 수가 어디 있나. 그러고, 안 할려고 그러고, 뭐를 할려고 그랬냐면은..... 우리 집이 조금 컸어요, 돈암동에. 그러니까 하숙을 하려고 했어..... 아, 그런데, 여기저기서 자꼬 오라니까 (웃음) 가서 버는 거지..... 그래서 자꾸만 나가게 된 게 오늘날까지 이렇게.....[15]

묵계월은 힘든 피난 생활을 지내면서 생계를 위한 잔칫집 공연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만큼 당시 소리꾼의 길은 매우 힘든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위해 쉬지 않고 소리를 해야 했던 묵계월의 모습을 보면서 묵계월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소리꾼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소리의 길을 걸었는지 알 수 있었다.

묵계월의 세 명의 자식들은 힘든 한국전쟁을 겪으면서도 건강하게 장성하였다. 현재 세 명의 자녀들은 모두 묵계월의 뒤를 잇지 않았다. 그 이유는 어머니처럼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자식들이 일찍부터 알았기 때문이었는데, 묵계월은 그런 점이 조금은 섭섭했다고 한다. 하지만 자식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계속 지켜봤다고 한다. 그렇게 자란 자식 중 큰 딸은 피아노를 전공했으며, 작은딸 김연진은 한 때 동아방송 아나운서로 활약하였다[16].

---

14) 부산에서 돌아온 후의 당시 이러한 모습과 묵계월이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또 다른 이야기가「묵계월  약전」에 비교적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서울에 돌아온 후, 집도 고쳐야 하고, 애들 키워야 하고, 살림 꾸려 나가야 하는 이중 삼중의 어려운 상황이라 돈은 필요한데, 당장 수중에 돈이 없었다. 언니의 보증으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급한 일은 처리하면서, 이전보다 더 바쁘게 소리하러 다녔다. 이때의 주 활동무대는 서울 시내가 아니라, 돈암동을 중심으로 왕십리 쪽 등 동대문 밖이었다. 자연히 서울의 중심가와는 거리가 멀어졌다. (이윤석, 「묵계월 약전」, 류의호 ,『묵계월의 경기소리 연구』, 깊은샘, 2003, 32쪽).

15) 묵계월 구술채록 자료 1차(2012. 2. 2)

16) 매일 경제 1982. 8. 7.

## 2. 師承關係

묵계월이 민요 공부를 위해 스승들을 만나게 된 때는 양어머니 집에 살고 있을 때부터의 일이다. 묵계월이 20살에 양어머니 집을 나왔으니, 그 이전까지가 수학기 과정인 셈이다. 묵계월이 민요를 배우기 위해 만난 스승들은 이광식 · 주수봉 · 김윤태 · 최정식, 그리고 소리 공연 중에 만난 이문원이라는 소리선생이 있다. 묵계월이 만난 스승들 중에서 사사받은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1〉[17]

| 일시 | 스승님 | 내 용 |
|---|---|---|
| 1932년 | 이광식 선생 | 종로 관철동학원으로 가서 배움.(1년 6개월)<br>뛰어난 기량을 갖고 있는 반면, 가르치는 것은 부족했다.<br>-가곡·가사·시조·경기12잡가- |
| 1934년 | 주수봉 선생 | 조선권번 경기민요반에서 배움.<br>-경기12잡가·경기민요- |
| 1935년 | 김윤태 선생 | 독선생으로 잘못된 것을 고치며 배움.<br>-경기12잡가·경·서도민요- |
| 1935년<br>~<br>1936년 | 이문원 선생 | 2년 동안 서울식 송서를 배웠다.<br>-삼설기·짝타령- |
| 1938년 | 최정식 선생 | -경기12잡가·풍등가·금강산타령- |

묵계월의 양어머니는 소리선생을 집으로 부르거나, 찾아가 민요를 배우게 하였다. 묵계월이 양어머니 집에서 제일 처음 만난 소리선생은 이광식이다. 이광식은 이때 당시 유명한 소리꾼으로 작은 개인교습소에서 소리를 가르쳤다고 한다. 묵계월은 이곳에 나가 소리를 배웠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광식은 소리는 잘 하지만, 가르치는 실력은 많이 부족하다며 다른 곳에서 배우라고 충고하였다 한다. 양어머니는 이런 충고를 받아들여 묵계

17) 묵계월 구술 체록 자료로 정리함.

월을 더 이상 이광식에게 보내지 않았다.

양어머니는 묵계월을 조선권번에 들어가 소리를 배우게 했는데, 그 곳에서 주수봉 선생을 만났다.(1934년). 주수봉은 묵계월보다 30살 정도 많았으며, 이때 당시 잡가를 잘 가르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묵계월은 주수봉에게 경기도 창을 사사師事받았다. 당시 조선권번에는 경기소리·서도소리·춤 등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각각 따로 있어서, 이들 선생이 한 반씩 맡아서 가르쳤는데, 묵계월이 들어간 곳이 주수봉이 담당한 경기소리를 배우는 반이었다.

들어간 반에는 수십 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늦게 들어간 묵계월이 앞자리에는 앉을 수가 없고, 맨 뒤에 앉아서 배울 수밖에 없었다. 키도 작은데다, 뒤에 앉아 있으니 선생의 얼굴조차 마주칠 기회도 없어서, 궁금한 게 있더라도 따로 물어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주수봉에게 소리를 배우는 환경이, 이광식 선생에게서 배웠던 1 : 1 개인교습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결국 묵계월은 1년 정도 배우고 조선권번에서 나오게 되었다.

[조사자] : 그럼 주수봉 선생에 대한 기억이 좀 있으신가요?)

아니, 주 선생한테 많이 배우질 않아서 못해. 그 때 배우러 가니까, 이거보다도 더 컸죠. 그 큰 방에서 선생이 저 끝에 앉아 있으니, 나는 문 열고 저기 들어가서 앉았어야 해요. 앞에 들어간 사람들이 앞에 쫘악 스고선, 순서들이 있으니까 많이들 있었어요. 그 때. 지금도 키가 이렇게 작은데, 그 때는 얼마나 쪼꼬맸었겠어요. 그런데 이래 들어와 저기 문턱에 앉아서도 선생한테 모르는 걸 물어도 못보고, 날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거(거기) 가서 공부를 할 수가없었다. 문턱에 가 앉아서 무얼 배우나,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쭤보고 해야 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 우리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그럼 우리 집으로 모셔오는 선생을 구해야겠다. 그래서 모셔다가 또 뱄죠.(배웠죠.)[18]

묵계월이 권번에서 나오자, 양어머니는 김윤태 소리선생을 집으로 모셔왔다. 묵계월은 김윤태 선생에게 일 년 넘게 소리를 배우면서 잘못 된 곳을 고치고, 많은 것을 새롭게 배웠다.[19] 김윤태 선생은 시조와 가사를 잘 하는 사

18) 묵계월 구술채록 자료 1차(2012. 2. 2.)
19) 이윤석, 「묵계월 약전」, 류의호, 앞의 책, 24쪽

람이었다. 뿐만 아니라 소리를 가르치는 재주가 남달랐는데, 묵계월은 김윤태에게서 혼자만 수업을 받았다. 수업료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고급과외, 개인 레슨과 같은 모습이었던 것이다.

묵계월은 김윤태로부터 2년 정도 가사와 시조, 잡가를 배우면서 소리를 더 잘하게 되었다고 한다. 묵계월이 구술 조사에서 '김윤태 선생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소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김윤태는 묵계월을 가르치기 위해 매일 양어머니 집으로 왔다. 김윤태는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은 모습이었으며, 따로 악기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한다. 수업이 시작되면 다섯 시간정도 하였는데, 가끔은 점심도 거르고 수업을 하였다 한다.

### 3. 경기민요에 대한 관심

『위지魏志』「동이전東夷傳」에 의하면 우리민족은 유구한 역사 민족일 뿐만 아니라, 예의와 염치를 아는 동방예의지국東方禮義之國이자, 민족성民族性은 음주가무飮酒歌舞를 즐기는 낙천적樂天的 민족이라 했다. 그러므로 유·무형의 무수한 민속예술이 향유되었으련만, 이 지나친 낙천성은 자칫 정치精緻한 정리 및 기록을 결缺하기도 한다. 따라서 근·현대 예술사 정리 및 복원은 적지 않은 난제다. 전통 음악, 이른바 민요만 해도 초기 학습자들은 계통적 전수가 불가능했으며, 따라서 현재도 편의상 서도민요·남도민요·경기민요로 정리될 뿐이다.

서도민요라면 황해도·평안도지방 민요로 〈산 염불山念佛·잦은 염불·몽금포 타령·난봉가〉 등 황해도 민요와, 〈영변가·긴 아리·수심가·엮음 수심가〉 등 평안도 민요를 통칭한다. 한편 남도민요는 전라도와 경상도지방 민요로 1920년대 이후의 민요인 〈농부가·육자배기·진도 아리랑·강강술래〉 등 전라도 민요와, 〈쾌지나 칭칭나네·성주풀이·밀양 아리랑〉 등 경상도 지방 민요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해 왔으나,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의 민요는 워낙 그 특징이 다르므로 현재는 남도민요로 통칭하지 않고, 전라도 경상도 민요로 구분해 쓰고 있다.

본제의 경기민요京畿民謠 역시 경기도 지방을 중심으로 한 민요의 통칭으로 〈노랫가락·창부타령倡夫打令·방아타령·양산도·오봉산 타령·사발가·군밤타령·풍년가·한강수타령〉 등이 모두 이에 속한다. 이는 다시 창법唱法에 따라 입창立唱·좌창坐唱이 있고, 긴 노래형식의 〈잡가雜歌〉가 있다. 경기입창에는 놀량·앞산타령· 뒷산타령· 잦은산타령· 개고리타령 등이 있으며 서도입창으로 놀량·앞산타령· 뒷산타령· 경발림 등이있다.

12잡가는 좌창으로 나뉘며, 〈유산가· 적벽가· 제비가· 선유가· 소춘향가· 집장가· 형장가· 십장가· 출인가· 방물가· 달거리· 평양가〉 휘몰이잡가에는〈만학천봉· 육칠월· 생매잡아· 한잔부어라· 곰보타령·비단타령· 기생타령· 맹꽁이타령·병정타령·바위타령〉 등이 있다, 〈화초사거리·새타령·골패타령·성주풀이〉 및 〈육자배기·농부가·진도아리랑〉 등 민요까지는 남도 잡가로, 〈초한가楚漢歌·공명가孔明歌·사설 공명가·제전祭奠〉 및 〈수심가·영변가〉 등 민요까지 서도잡가로 분류하기도 한다.

묵계월은 이광식·주수봉·김윤태 선생으로부터 소리를 배운 이후, 양어머니는 묵계월을 최정식 선생에게 보내, 소리를 배우게 했다(1938년). 묵계월이 소리를 배우는 과정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소리선생 중에 한 분이 바로 최정식이다. 최정식은 〈금강산타령〉과 〈풍등가〉를 만들었으며, 소리들을 많이 알고 있었던 분이다. 최정식은 신설동에서 작은 학원을 운영하였는데, 소리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고 한다.

남자들보다는 주로 여자들이 많았으며, 그 중에는 훗날 묵계월과 인간문화재 보유자가 된 안비취도 있었다, 그리고 소리를 잘 했던 조백오 역시 최정식 소리선생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 묵계월은 최정식이 운영하던 학원에서 3~4시간 정도 배운 다음, 배운 내용을 연습해서 다음날 검사를 받는 식으로 소리 공부를 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하진옥의 구술채록 자료를 통해서도 자세히 알 수 있다. 하진옥의 구술채록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옛날엔 책도 아무 것도 안 보고, 선생님 입하고 얼굴만 봤어. 지금은 컴퓨터가 있지만, 그 때는 없어서 선생님 얼굴만 보고, 따라 부르는 거야. 따라서. 그러면 어렵잖아, 선생님 입하고 눈만 보는 거야. 적지도, 못 적었어. 그냥 선생님 입하고 음악 듣는 거고. 그러면 이거 해라. 해가지고 오래. 가면 또

완전 거 하지. 아무 것도 기억이 안 나. 하도 그냥 맨날(매일) 해. 언제 한 번 새벽에 변소를 갔어. 새벽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딱 머릿속에 소리가, '아! 이거구나.' 어머나, 이거 됐네, 딱 들어오는 거야. 그 때 딱 들어오더라고. 아, 이거구나. 갔어. "외워 왔니?" 그래. "네," "해 봐라." 했다. "그거야 임마," 그러는 거야. 된 거야, 이게 되는구나. 소리가 만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늘 하다가도 언젠가 화장실에 가만히 있으면 딱 들어와. 아, 이거구나. 그렇게 들어오는 거지. 절대 안 들어와. 지금은 뭐 컴퓨터 있다, 녹음기 있다, 좀 좋아? 그냥 선생님 말만 듣는 거야.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금방 내일 해오래. 내일 해 와. 그럼 내가 어떻게 해 가. 안 되는 거지. 어떻게 해도 내가 안 되는데. 머리가 틀렸다, 정신이 틀렸다, 만날. 그게 저 며칠 해, 며칠 해. 그 머리에 안 들어와. 하루아침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딱 들어오는 거야.

[조사자] : 예전에는 가곡을 배울 때 손동작으로 맞춰서 하더라고요?

민요는 장구채. 칠백이 따로 가야 할 때 있잖아, 손으로. 칠백이다, 사백이다. 선생님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답도 안 가르쳐주고. 내일 해 와. 그러면 내일 뭘 해가지고 와? 가서 또 혼나지 이제. 내가 종아리 몇 번 맞았다고. 종아리 피 났는데. 걷으래. 올려 걷으래. 너 정신 틀려먹었다고, 딱. 무지 아프더라고. 많이 맞았어, 종아리. 끝날 때 또 그래, 선생님이 "아펐니?" "아니요." 아프다고 말을 못 했어. "아니요," "안 아펐니?" 덕분에 외워라. 근데 맞고 나니까 정이 들어 또. 맞으니까 좀 낫더라고[20].

최정식 선생에게 소리를 배우는 중에는 함께 공연도 많이 다녔다. 그 공연은 부민관처럼 큰 공연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유행하던 대동놀이터[놀이터, 특정 지역 사람들끼리 모여 놀던 곳][21]에 초대를 받아 공연을 하였다[22].

이때 당시 경기민요 중 〈잡가〉와 〈노랫가락〉이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그

20) 하진옥 구술채록 자료(2012. 2. 15.)

21) 대동놀이라는 것은 마을주민들이 겨울철에 모여 큰 놀이판을 벌이는 것을 말한다. 해방 이전에 서울 여러 지역에 이러한 놀이가 많았다. 왕십리를 비롯해 사근동, 청파동, 뚝섬 등 여러 지역에 대동놀이가 있었는데, 주민들이 일정 넓이로 땅을 파고, 볏짚 등을 이용하여 지붕을 만들어 추운 겨울철에 그 안에서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여 각종 놀이를 하였던 것이다. 대동놀이가 열리면 마을주민들이 당시 유명한 소리꾼들을 불러 소리를 듣기도 했는데, 묵계월은 소리가 좋아 당시에 인기가 무척 많았다고 한다. 그리고 소리를 하고 있으면 모여 있는 사람들이 돈을 걷어 소리꾼에게 주었다.

22) 정경숙·서종원 :「묵계월의 활동을 통해 본 경기민요 史-공연활동을 중심으로-」,『강원민속학』26, 강원민속학회, 2012, 270쪽.

래서 잔치나 공연을 할 때면 늘 〈노랫가락〉을 불렀다. 그런데 소리꾼들이 부르던 〈노랫가락〉은 누군가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부르던 것을 따라 부르면서 스스로 배우게 되었다고 한다. 소리꾼들은 스스로 배운 노랫가락을 공연 장소에서 불렀던 것이다.

여러 경기민요 가운데 묵계월이 독보적으로 부르는 것 중 하나는 〈삼설기〉였다. 당시 이문원은 노래 소리가 좋기로 유명한 소리꾼 중에 한 분이었다. 묵계월이 바로 이 이문원으로부터 소리를 배우게 된 계기도 그의 소리를 듣고 나서였다. 『묵계월 경기소리 연구』에서 말하는 이문원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묵계월이 이문원의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목소리도 좋고 소리도 커서 참 좋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소리를 배워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문원은 〈삼설기〉나 〈짝타령〉 같은 송서가 장기이고, 시조도 불렀는데, 〈노랫가락〉이나 〈창부타령〉 또는 〈잡가〉는 절대로 부르지 않았다고 묵계월은 전한다. 이문원은 가족도 없고, 집도 없이 이 사랑에서 저 사랑으로 다니면서 소리하고, 그 집에 묵으면서 용돈을 얻어서 썼다는데, 묵계월에 의하면, 이런 '가객(歌客)'이 1930년 대에 있었다고 한다. 이문원처럼 소리를 잘 하는 사람은 사랑에서 환영을 받았다. 이문원은 〈삼설기〉나 〈짝타령〉의 가사 내용을 다 이해하고 불렀다고 하는데, 현재 남아 있는 이문원의 녹음을 들어보면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 이문원에게 〈삼설기〉를 배울 무렵에 묵계월은 이미 이름이 알려져서 바쁘게 되었다. 바쁘게 소리하러 다니면서 〈삼설기〉를 배우자니 자연 힘이 들었으나, 〈삼설기〉의 매력 때문에 열심히 배웠다고 한다. 이문원은 하루에 조금씩 가르쳐주고, 이것을 며칠 모아서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식으로 가르쳤는데, 〈삼설기〉를 다 배우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들었다.[23]

하진옥 선생의 구술채록 자료나 위의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묵계월이 양어머니 집에 살면서 소리 선생으로부터 소리를 배우던 방법은 녹음기와 책이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몇 소절을 배운 다음, 집에 가서 연습을 하고, 다음에 만날 때 잘 공부가 되었는지 확인을 받는 식으로 소리를 배웠다. 그러다 보니 당시 소리를 배우려면 소리뿐만 아니라, 기억력도 좋아야만 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소리선생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

23) 이윤석, 「묵계월 약전」, 류의호, 앞의 책, 26쪽.

경기민요를 하는 분들 중에는 〈삼설기〉의 송서誦書를 부르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점으로 보아 〈삼설기〉는 묵계월만이 부를 수 있는 독보적인 노래라 할 수 있다. 〈삼설기〉는 배우기에 지루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배우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묵계월이 기억력이 좋고 목청이 좋으며, 무엇보다 꾸준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삼설기〉를 배울 수 있었던 것이다.

이때 당시에는 소리를 배우기 위해서, 배우는 노래의 순서가 정해져 있었다. 묵계월의 기억으로는 가장 먼저 배워야 했던 곡이 시조였다고 한다. 시조창의 제목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간밤에 불던 바람 만정도화 다 지도다."와 같이 시조의 시구를 외우며 시조창을 하였다. 시조창을 가지고 연습하고 배우는 기간은 소리를 배우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 목소리가 좋고, 잘 따라 오는 사람은 오래 가지 않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습을 많이 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시조창을 먼저 하는 이유는 '좋은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서'였으며, 실제로 '시조를 오래 해야 목이 잘 풀린다.'고 해서 당시 소리 선생들은 시조창을 오래 가르쳤다. 시조창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로 소리선생이 가르쳐준 내용을 기억해서 연습하는 식이었다. 묵계월은 시조창을 세달 정도 연습했다고 한다. 연습을 하고 나면 소리선생께 시험을 보는데, 시험은 소리선생 앞에서 배운 소리를 부르면, 그 분이 듣고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하였다.

> 처음 배울 때는 시조라고 있어. 그러니까 어려서 처음 가서는, "간밤에 불던 바람 만정도화 다 지도다." 이런 것. 또 다른 시조가 뭐가 있던가. 하도 오래돼서 "소치는 아이놈은 상기 아니 일었느냐" 그런 가사들은 그 때들 안 했어. 창으로 하지. (시조창을 부른다) "간밤에 불던 바람 만정도화 다 지도록." 그것만 가지고 얼마 동안 해야 해요. 이 시조를 오래 해야 목이 잘 풀린다고 해서 오래 가르쳤어요. 시조가사라는 게 또 있어요. 가사라는 것도 가르쳐주시고, 받아 적지도 않고, 가서 입으로 그냥 배워가지고 집에 가서 연습하고 그랬죠[24].

묵계월은 시조창 연습이 끝나고 난 다음 〈수양산가〉와 〈황계사〉 등의 가사를 배웠다. 이런 가사들은 묵계월 뿐만 아니라, 경기민요를 배우려는 모든

24) 묵계월 구술채록 자료 1차(2012. 2. 2.)

사람들이 반드시 배워야할 부분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시조와 가사를 하지 않고 〈12잡가〉 중 하나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습해서 목을 잡아준다.

묵계월은 가사를 모두 배우고 나면 곧바로 잡가를 배웠는데, 여러 종류였기 때문에 배우는 순서가 정해져 있었다. 현재 〈12잡가〉로 불리는 내용 중에서 제일 먼저 〈유산가〉를 배웠으며, 이때 묵계월의 나이가 13살이었다. 〈유산가〉를 배우고 나면 〈적벽가〉를 배우고, 그 뒤로 〈제비가〉·〈소춘향가〉·〈집장가〉 순으로 배웠다.

이때 당시 유행하던 노랫가락은 자연스레 익힌 것으로 소리선생께 따로 배운 것은 아니었다. 이어서 묵계월은 경기민요인 〈청춘가·사발가·박연폭포〉 등도 익혔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널리 불리고 있는 〈신고산타령·창부타령〉은 따로 소리선생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알던 민요들이다.

그리고 이때에는 서도소리와 경기민요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종류의 서도소리를 익힐 수 있었는데, 바로 〈영변가〉·〈공명가〉·〈수심가〉 등이었다. 당시의 이러한 분위기는 소리 선생들이 가르치던 내용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소리 선생들 역시 소리를 가르칠 때 두 지역의 소리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모두 가르쳤던 것이다.[25]

예전에 민요를 가르치던 과정들은 국악예고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문화재 지정종목으로 인하여 많이 나뉘어져 있다. 이런 상황은 경기민요 전공자들에게 있어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게 한다. 이렇게 묵계월은 양어머니 집에 살면서 유명했던 소리스승들을 만나 민요를 배우면서 다양한 소리를 익히고 공연활동들을 통해 이름도 알리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아마도 묵계월이 경기민요의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이때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내용들은 그 때 당시 경기민요를 배우는 과정과, 그 배경을 짐작 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묵계월이 어린 나이에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이겨내며 열심히 민요공부를 한 것을 보면, 경기민요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25) 묵계월은 경기민요와 서도 민요의 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경기민요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어서 경쾌하고 씩씩하니까 좋아하는 거고, 서도민요는 쥐어짜는 그런 식이 많아요. 그래서 서도 민요가 배우기가 어려워요. 경기민요는 경쾌하고 그러니 기억을 잘하는데, 서도민요는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배우기가 쉽지 않아요.(묵계월 구술채록 자료 1차(2012. 2. 2.)

# Ⅲ. 경기민요 학습과정과 초기 음악활동

## 1. 경기민요 입문과 학습과정

묵계월을 중요무형문화재 경기민요예능보유자로 길러준 사람은 누가 뭐래도 수양 어머니였다. 묵계월이 11살 어린 나이로 경기민요를 배우기 위해 입양된 양어머니의 이름은 이정숙이며, 이때 나이는 50대였다. 양어머니는 묵씨 성을 가진 남편이 있었는데, 일찍 돌아가셨다 한다. 양어머니에게는 친 자식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들 묵태영과, 묵계월과 10년 차이나는 묵계홍이라는 딸이 있었다. 노래는 썩 잘하지 못했지만, 인물이 뛰어나 여기저기 불려 다녔다. 묵계월이 양어머니 집에서 살 때에는 아들 한 명과 두 딸이 있었던 것이다[26]. 그리고 묵계월은 양어머니 집에 살 때부터 본명 대신 묵계월이라는 예명을 갖게 되었다.

양어머니는 물론 소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묵계월을 좋은 소리선생들에게 소리를 배울 수 있도록 힘껏 도왔다. 하지만 양어머니는 소리를 배우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대주는 대신, 공연 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은 모두 가져갔고, 10년 가까이 양어머니 집에 살면서 추석이나 설 등의 명절에도 친부모를 못 만나게 하였다. 양어머니 집에 올 때부터 어머니와 약속한 부분이었지만, 친 가족을 만날 수 없다는 슬픔은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부분이었다. 묵계월은 양어머니 집으로 간 뒤, 일 년에 한 번 생일날 찾아오는 친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는데, 만나고 나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것만 못했다고 했다. 그래서 친어머니에게 '차라리 만나지 말자'고 했을 정도라니, 그 아픔이 얼마나 컸었는지 알 수 있다.

이 당시에는 묵계월의 양어머니처럼 어린애를 데려다 키우면서 소리공부를

26)「묵계월 약전」에는 이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양어머니는 자식을 데리고 혼자 사는데, 일찍 돌아간 남편의 성이 묵씨였다고 한다. 양어머니는 아마도 후취부이었던 것 같고, 그 사이에서 난 딸은 묵계월보다 열 살쯤 위였다. 후에 이 양언니와 함께 소리를 했는데, 양언니는 소리는 썩 잘하지 못했으나, 매우 미인이었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많았다.(이윤석, 「묵계월 약전」, 류의호, 앞의 책, 23쪽).

시키고, 좀 큰 다음에 소리를 시켜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특별한 자료는 없으니,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묵계월에 의하면 '어렸을 때 알던 여자 소리꾼 가운데 같은 상황의 사람이 여럿이 있었다.'고 하니, 아마도 오래 된 관습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27]

묵계월은 20살이 되던 해에 양어머니 집을 도망쳐 나오게 되었다. 양어머니 집에 살면서 소리를 배우는 데는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나이를 먹고 나서까지도 공연으로 벌어 온 수입은 모두 양어머니가 가져갔으며, 괴팍한 성격의 양어머니는 횡포와 속박으로 묵계월을 점점 힘들게 했던 것이다. 더 이상 인간적으로 많은 한계에 부딪히게 된 묵계월은, 당시 최정식 선생에게 함께 소리를 배우던 조백오라는 친구와 함께 몰래 도망쳐 나오게 된 것이다.

> [조사자] : 양어머니 곁을 떠나셨을 때가 스무 살 때셨던 거 같은데.... 그 계기는....
>
> 계기요? 어머니가 하도 날 들들볶으니까, 아니 공연하러 댕기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유, 괴팍을 떠나서 괴괴팍했죠. 아휴..... 괴를 하나 더 붙여야 해요. 괴괴괴 (웃음) 괴괴팍한 분이에요. 뭐라고요? 아이고, 때리기도 하죠. 아니, 회초리로는 안 때리고..... 이런 치고 힘들었죠. 어려서는 그냥 몰랐는데, 점점 커갈수록, 그러니까 정나미가 정말 떨어져요. 그래서 나왔어요. 조백오하고 도망을 갔어요.[28]

묵계월이 양어머니 집을 나온 이후, 화가 난 양어머니는 묵계월이 다시는 공연을 하지 못하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였다. 그래서 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실제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보낸 날들도 있었다고 한다.

> 기차를 타고 갔죠. 대동강에서 배도 타고, 나는 돈도 못 챙겼지만, 조백오가 챙겨가지고 가서 이틀 밤을 잤나? 서울로 왔는데 발각 뒤집혀졌어. 나 찾느라고. 그래서 인제 우선은 조그만한 요릿집에 들어갔어. 큰 요릿집 말고. 조그만데 있어. 그 집에 들어가자. 들어가서 저녁이나 먹고, 어디 가서 수세를 하자. 그랬더니 거길 찾아왔어, 양어머니가. 찾아와서 거기 보이들이 있으니

27) 이윤석, 앞의 글, 30쪽.
28) 묵계월 구술채록 자료 1차(2012. 2. 2.)

까 어머니 떴다하면 나를 어떻게든 도망가게 하라고, 약속을 다 해놨지. 그래서 숨어서 피해서 인제 가셨어. 그 바람에 마냥 우리 집으로 내뺐지.[29]

묵계월은 1941년 20살이 된 이후, 더 이상 양어머니와의 인연을 이어가지 않았다. 묵계월에게 양어머니는 경기민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음은 틀림이 없었다. 묵계월을 경기민요에 입문하도록 도와준 장본인이이며, 경기민요의 스승들을 만나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모두 양어머니의 뒷받침이 아니었다면, 가능하지 못했던 일들인 것이다.

비록, 횡포와 핍박으로 양어머니와의 인연을 길게 맺지는 못했지만, 그 때 배운 소리는 묵계월이 오랜 세월 경기민요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부분인 것이다. 묵계월의 민요 입문과 양어머니의 관계도는 다음 표와 같다.

**〈그림과 표2〉**[30]

| | |
|---|---|
| | 1933년, 묵계월의 12살 때의 모습 |
| | 1936년, 묵계월의 15살 때의 모습 |

29) 묵계월 구술채록 자료 1차(2012. 2. 2.)
30) 제11회 방일영국악상 팸플릿 17쪽.

1940년, 묵계월의 19살 때의 모습

묵계월이 어려서부터 노래에 남다른 재주가 있었으나, 민요에 처음 관심을 갖기 시작한 때는 11살 때였다. 동네 어느 학원에서 민요를 공부하는 분의 연습하는 소리를 듣고,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 계기가 인제 그 동네에 어느 학원에 가서 배워 자기고 와서 공부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장구도 치고, 연습을 하는 거죠. 연습을 하면 늘 가서 듣고, 이런 이렇게 넙죽하게 앉아서 연습을 하면, 나는 저 끝에 가서 앉아서 감히 그 앞에 가지도 못하고, 저 뜰아래 가서 이러고 앉아서, 그거를 흉내도 내보고, 노래한 거 다 귀로 익혀서 듣고, 그러고 하니까 쪼금 되는 거 같아요, 노래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내가 혼자서 중얼중얼하고--- 그러면은 아니, 얘가 배우는 저 사람보다 얘가 더 목소리가 좋을 꺼 같다고. 그래 그 때 인제 그 건달 비슷한 아저씨가 한 분이 계셨어요. 종로인지 들락날락 하고 그러는데, 있었는데 얘를 남의 집에다가 보내자고, 우리 어머니 더러. 이렇게 있다가는 공부도 못시키고, 우리 아버지가 소리하고 그러는 걸 딱 질색하고 기를 쓰니까, 이렇게 있다가는 공부도 못하고, 소용없는 아로 맨들지 말고, 종로 어디에 가면 집이 있으니 보내자. 우리 어머니를 쥐 쫄라서 우리 어머니가 그냥 귀가 솔깃해가지고, 나를 데리고 종로로 갔어요. 가서 '너 여기서 소리배우며 저거 허고 살아라.' 하는데, 하늘이 탁 무너지는 거 같은 거예요. '거기서는 못 살 것이요, 우리 어머니 떨어져서는 못 살것어.' 그래서 울며 따라나섰어요. 그러니까 봄쯤 되나 봐여. 나를 수세를 하고,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시키고, 이래가지고 나를 학원에 데리고 가요. 열한 살에 가서 발을 디뎌놨어[31]

묵계월의 구술채록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시기에는 묵계월의 아버지는 소리하는 것을 반대하셨고, 묵계월은 민요에 대한 관심이 컸던 것을 알

31) 묵계월 구술채록 자료 2차(2012. 2. 10.)

수 있다. 아버지께서 소리를 반대하셨던 이유는 넉넉하지 못한 집안 살림과, 소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좋지 못한 인식 때문이었다. 하지만 묵계월은 소리를 배우기 전부터 노래를 잘 불러 주변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묵계월의 어머니에게 본격적으로 소리를 가르쳐 보라며 말한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는『묵계월 경기소리 연구』(류의호 엮음, 깊은샘)자료를 보면서 더욱 자세하게 알 수 있었다.

> 어렸을 때, 동네에 소리를 배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시내에 가서 소리를 배우고 와서 연습을 하면, 묵계월은 이 사람이 연습하는 것을 넋을 빼고 듣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들은 노래를 집에 와서 그대로 옮겨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주위의 사람들이 묵계월의 어머니에게 '소리 공부를 시키라고 권했다'고 하는데, 특히 이런 일을 자기 일처럼 나서서 하는 사람이 있었다. 묵계월에 의하면 이 사람은 '건달 비슷한 아저씨'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소리공부를 시킬 수 있게 어느 집에 양녀로 보내라고 묵계월의 어머니에게 적극적으로 권한 것 같다. 이때가 1931년인데, 식민지 시절 서울 변두리의 가난한 지역에서 문안의 번화한 곳으로 딸을 소리 공부시키라고 권하는 데 솔깃하지 않을 어머니는 별로 없었을 것이다. '소리를 잘 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는 이 때 이미 널리 퍼져 있었으므로, 좀 고생이 되더라도 딸의 성공을 위해서 어머니는 딸과의 생이별을 감수했을 것이리라. 그리고 묵계월 자신은 '광희동에 있어서는 소리를 배우기도 어렵고, 더욱 소리로 성공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내 어떤 집으로 양녀로 들어가서 소리를 배우는 것이 싫지 않았다고 한다.[32]

위 내용에서 '건달 비슷한 아저씨'가 누구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해방 전 식민지 시절에는 민요를 배우기 위해서 누군가의 소개를 받고 양녀로 들어가 민요를 배운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묵계월의 어머니는 아버지와는 반대로 '묵계월을 양녀로라도 보내 민요를 가르치겠다.'고 그 사람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 그 동네에 아저씨라고 부르는 분이 하나 있어. 그런 분이 와서 내 목소리를 듣고 얘를 이렇게 해서 두면 병신 만든다. 그러니까 얘를 좋은 데로 보내자.

32) 이윤석, 앞의 글, 21-22쪽.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자꾸 지그렁지그렁 하고 다녔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양어머니 댁으로 가보자, 그래서 (이제) 가봤지. 갔다가 이제 어머니가 가니까 못 있겠어. 그래서 울면서 일어나면서 나도 어머니 따라 간다고, 그러니까 따라간다는데 어떻게. 붙잡을 수도 없고. 그냥 따라 갔지. 따라갔는데 그래 동네 수다스런 아주머니들이 많이 있잖아. "얘야, 거기서 소리를 잘하고 잘 있으면 네 어머니 만날 수 있어. 니가 자라서 잘되면 너 어머니 만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왜 따라왔느냐고. 자꾸 동네 아주머니가 그러지. 나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집에 있어봤자 공부, 소리도 안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내가 그쪽으로 가야겠다. 그러고 갔다 온 지 한 두서너 달 만에 다시 갔어. 그 집에 데려다 달라고 그러니깐 우리 어머니가 데리고 갔어. "너 이번엔 거기 가서 잘 있겠니?" 그러니까 "잘 있겠다."고. 그래서 울지도 않고, 따라오지도 않고 그랬죠. 그래서 그 집에 있게 됐죠. 그래가지고 맨 처음 학원 선생님 목소리가 안 좋고 그저 그러세요. 그런데 교육은 잘 가르치거든요. 길에서도 애들이 툭탁툭탁 하는 걸 보면 큰 일 나. 그런 교육이 대단하세요. 내가 그 때 어리니까 그런 걸 봤는지 "소리를 배우면 소리를 한 만큼 그 태도도 가져야지, 애들 막 거지같이 부르고 소리만 잘하면 뭐하니," 그렇게 얘길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안 그러지. 선생님 무서워서 못 그러지.[33]

어머니는 묵계월을 데리고 종로에 있는 양어머니 집에 맡기고 돌아왔다. 그런데 묵계월은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게 두렵고 무서워서, 처음에는 어머니를 따라 간다며 울면서 양어머니 집을 나와 광희동 집으로 갔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거기서 노래나 잘 배우지 왜 왔냐."는 말을 하였고, 묵계월은 고민 끝에 다시 양어머니 집으로 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민요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다. 묵계월이 11살의 나이에 민요를 배우기 위해 집을 떠나 양어머니의 집에서 살았다는 것은, 그 만큼 이 시대에 민요를 배우는 길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3) 묵계월 구술채록 자료 2차(2012. 2. 10.)

## 2. 초기 음악활동

### 1) 공연 및 음반활동

묵계월의 문화재 지정 이전의 공연들은 문화재 지정 이후와 비교했을 때 활발한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11살 때부터 민요를 시작하였던 묵계월의 초기 공연들은 문화재 지정 이전까지 꽤 긴 시간이었던 만큼, 매우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묵계월의 문화재 지정 이전까지의 음악활동들을 시기별로 분류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

| 때 | 해외공연 | 자료 |
|---|---|---|
| 1962. | 일본 순회공연(묵계월, 이은주, 안비취, 김옥심외 다수) | 팸플릿자료 |
| 1966. | 중요무형문화재종목발표회 한국일보후원(묵계월, 이진홍, 김옥심.) | 팸플릿자료 |

〈표4〉

| 때 | 공연활동 | 자료 |
|---|---|---|
| 1930. | 조선성악연구회 | 팸플릿자료 |
| 1940. 6.19 | 부민관무대공연(제1회조선음악전) | 동아일보 |
| 1945년 이전 | 잔칫집과 요릿집(신흥사)공연 및 움집공연 | 묵계월 구술채록자료 |
| 1950. 2.25 | 서울중앙방송국 국악방송 착공기념공연 | 방인숙[34] |
| 1963. 7.13 | 명인명창 총출연(국립극장) | 경향신문 |

| | | |
|---|---|---|
| 1965. 2.3 | 국립극장 | 팸플릿자료 |
| 1967. 4.20 | 봄맞이공연(무대공연) | 동아일보 |
| 1967. 6.5 | 명인명창대회 시민회관에서 | 동아일보 |
| 1970. 8.10 | 광복절 기념 대국악제(무대공연) | 동아일보 |

위 표에 정리된 묵계월의 공연활동과 수상경력, 활동 내역들은 본 연구자가 소장하고 있는 팸플릿과 신문자료들, 그리고 묵계월의 구술채록 자료 및 문헌자료를 통계 기록한 것이다. 위 공연활동 자료들은 문화재 지정 이전까지 묵계월의 공연활동들을 한 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정리되었다. 혹시, 이 외에도 활동한 공연들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찾아내어 빈틈없는 자료가 되도록 노력하였고, 이런 점에서 1975년 이전까지 경기민요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표 정리로만 그친다면 더 깊은 내용을 살펴보기에 매우 부족하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묵계월의 공연활동 중에서 시기 별로 중요한 활동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았다.

묵계월의 공연 활동들은 양어머니 집에서 민요를 배우기 위해 활동했던 공연들을 시작으로 해방 전 양어머니 집을 나와서의 공연활동, 그리고 결혼 후 생계를 위한 공연활동, 해방 이후 한국전쟁으로 피난생활을 하며 다시 생계를 위해 펼쳤던 공연활동들로 정리된다. 묵계월의 문화재 지정 이전까지 모든 초기공연을 살펴보면서 과거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을 겪으며 지나온 경기민요의 흐름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이다.

해방이전 정확하게 1945년 이전인 이시기에는 생일잔치나 환갑잔치가 열릴 때는 반드시 소리꾼을 불렀다. 생일잔치의 경우는 주로 노인들의 생일잔치가 많았는데,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노래를 불러야 해서 이

34) 방인숙, 앞의 석사논문, 96-97쪽.

름이 알려져 있는 소리꾼들은 잘 가지 않았다. 묵계월은 어린 시절 이러한 잔칫집에 가서 아무런 불평도 없이 하루 종일 소리를 하였다고 한다.[35]

묵계월이 양어머니 집에 살면서 잔칫집 공연을 한 이유는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였으며, 요릿집 공연 또한 마찬가지의 이유였다. 그러나 양어머니 집을 나온 이 후 부터는 돈을 벌기 위해 잔칫집 공연을 다녔다.

> 공연보다는 환갑잔치에 많이 갔다고 봐야죠, 네. 대부분 돈이 있으니까 나 같은 사람도 부르고, 칠십 잔치 하는 곳도 갔었고. 그렇죠. 그런 적도 있을 거에요.
>
> [조사자] : 환갑잔치를 인간문화재 보유자가 되기 전까지 다니신 거죠?
>
> 네. 그렇죠. 환갑잔치를 가면 수입이 괜찮아요. 돈을 주죠. 아니 그냥 쟁반이나, 그릇 같은 데에 내놓죠. 네, 돈 내가 다 갖고 오는 건 아니죠. 나눠서. 비율이야 물론 갖춰야 하지만, 그 사람들이 신흥사에 주로 나가는 사람이 돼서 권리가 대단해요. 권리. 거기 다닌다는 권리.
>
> [조사자] : 아, 그러니까 '신흥사를 다니면 최고의 가수다.' 라는 거죠, 민요하는 분들이?
>
> 그렇지. 거기는 소리를 못 하면 갈수가 없지.[36]

위 묵계월의 구술채록 자료는 신흥사에서의 환갑잔치를 벌였던 모습을 기억한 것이다. 당시 신흥사는 최고 소리꾼들만이 다닐 수 있는 곳으로 80년 중반까지 유명했던 곳이다. 신흥사에서의 잔칫집 공연은 경제력이 좋은 집안의 잔치로, 이곳에서 초대를 받았던 묵계월은 실력을 인정받은 명창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해방 이전의 환갑잔치는 집안 경제력에 따라 잔치 크기가 달랐으며, 주로 동네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었던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한다.

묵계월은 환갑잔치뿐만 아니라, 소리를 잘 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부잣집 사랑과 요정에서도 노래를 불렀다. 이곳에서 혼자서, 또는 여럿이 소리를 하

35) 류의호 엮음, 『묵계월 경기소리 연구』, 깊은샘, 2003, 27쪽.
36) 묵계월 구술채록 자료 2차(2012. 2. 10.)

였다고 한다. 묵계월은 피난생활을 하였던 부산에서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 요릿집에서 공연활동을 하였다. 어수선한 전쟁 중에도 부산에는 소리를 할 수 있는 요릿집이 아주 많았다고 한다. 이곳 부산의 요릿집은 묵계월 뿐만 아니라, 다른 소리꾼들도 이곳에서 소리를 하며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만 요릿집에서 소리를 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었다. 요릿집에서 소리를 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 있는 탓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요릿집에서 테스트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묵계월도 부산에서의 첫 요릿집에서 테스트를 받고, 소리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다행히 마음이 맞는 요릿집을 만났는데, 세금문제로 인해 얼마 지나 문을 닫았다고 한다. 이 요릿집에서 묵계월은 경기민요를 불렀는데 반응이 무척 좋아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37]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던 시절이라 경쾌한 경기민요 소리를 손님들은 좋아하였다. 요릿집 지배인이 첫날 묵계월의 소리를 듣고 실력이 대단하여 깜짝 놀라했으며, '어디서 데려왔냐'고 물어보기도 했다고 한다.

> 내일 모래부터 나와 보시오. 이틀 있다가 됐어요.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날따라 손님이 많이 들어와. 누구누구 뽑아서 어느 방에 들어가라고 너, 너 해서 어느 방으로 들어가라고, 그러고 그래. 그러니 소리를 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
>
> [조사자] : 선생님 노래에----
>
> 아유, 그야 아주 껌뻑.... 지배인이 껌뻑 죽고 (웃음) 사장.. 노인네에요. 그냥 깜빡 죽어서 아이구, '이런 사람이 어디서 왔냐.'고 그러고 깜짝 놀래고 그랬어.[38]

잔칫집과 요릿집 공연 외에 해방 전까지 묵계월의 공연 중에는 서울 근교 움집을 찾아다니며 활동 했던 움집공연이 있었다. 움집이라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 겨울철에 땅을 깊게 파서 놀이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움집들의 크

37) 경기 민요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경쾌하고 씩씩하니까 좋아하고. 서도 민요는 쥐어짜는 그런 식이 많이 있거든요. 서도 사람하고 같이 (공연) 한 적은 별로 없어요.(2012. 2. 10. 묵계월 명창 구술))

38) 묵계월 구술채록 자료 1차(2012. 2. 2.)

기는 여러 사람이 서서 놀 수 있도록 크게 만들었다. 땅을 파놓은 곳에, 추위를 막기 위해 위에 천막을 치고 조그마한 구멍을 내어 출입구를 만들었다. 움집 안은 화려하게 꾸며졌으며, 마을 사람들이 움집 안에다 고가구 등을 놓기도 하고, 놀면서 필요한 악기와 의상을 걸어두었다. 특히 고가구 중에서 화려한 장이 많이 놓여 있었으며, 움집을 만든 마을 주민들은 농한기인 겨울철에 주로 이 움집에 모여 음식도 해서 같이 나눠먹고, 신나게 놀기도 한 것이다[39].

묵계월의 움집 공연은 대동놀이로 최정식 선생과 함께 공연하였다. 묵계월이 최정식에게 소리를 배울 때였는데, 당시 인기가 많았던 〈잡가〉와 민요를 불렀다. 움집공연은 부민관처럼 큰 공연장에서 하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유행하던 대동놀이[놀이터, 특정 지역 사람들끼리 모여 놀던 곳][40]터에 초대를 받아 공연을 하였다.[41]

대동놀이는 움집이 있는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모여 전도 부치고, 각종 음식을 장만하여, 저녁이 되면 초청된 소리꾼들과 모인 사람들이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노는 것이다. 이때 모인 사람들에 따라 부르는 노래가 달랐는데, 나이든 사람들을 위해서는 〈잡가〉를, 젊은 사람들에게는 주로 〈경기민요〉나 〈노랫가락〉을 불렀다. 이러한 대동놀이는 특히 정월대보름날 주로 행해졌다.

묵계월은 이러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자주 초청되어 소리를 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카세트가 없었기 때문에 놀이에서 소리는 매우 중요하였다. 분위기를 띄우는 데 있어 소리만한 게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움집에서 공연을 할 때면 쉬지 않고 노래를 불러야 했고, 그러다 보니 힘이 많이 들었다.

하지만 힘든 만큼 움집공연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다. 행사장 분위기가 고조되면, 마을 주민들은 자기 기분대로 돈을 내놓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

39) 하진옥 구술채록 자료(2012. 2. 15.)

40) 대동놀이라는 것은 마을주민들이 겨울철에 모여 큰 놀이판을 벌이는 것을 말한다. 해방 이전에 서울 여러 지역에 이러한 놀이가 많았다. 왕십리를 비롯해 사근동, 청파동, 뚝섬 등 여러 지역에 대동놀이가 있었는데, 주민들이 일정 넓이로 땅을 파고, 볏짚 등을 이용하여 지붕을 만들어 추운 겨울철에 그 안에서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여 각종 놀이를 하였던 것이다. 대동놀이가 열리면 마을 주민들이 당시 유명한 소리꾼들을 불러 소리를 듣기도 했는데, 묵계월은 소리가 좋아 당시에 인기가 무척 많았다고 한다. 그리고 소리를 하고 있으면 모여 있는 사람들이 돈을 걷어 소리꾼에게 주었다.

41) 정경숙,서종원,「묵계월명창의 활동을 통해 본 경기민요 史-공연활동을 중심으로-」강원민속학』26, 강원민속학회, 2012, 270쪽.

냐에 따라 벌어들이는 돈이 차이가 있었다. 공연장이 크거나, 잘 사는 동네에 가면 장바구니에 돈을 담아 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움집은 해방이 된 이후에도 서울 여러 곳에 있었으나, 한국전쟁 이후부터 자취를 감췄다. 묵계월은 겨울철이면 움집에 가서 공연을 많이 한 소리꾼 중에 한 사람이었다.

묵계월의 무대공연 중에는 일제강점기시대 부민관에서의 무대공연이 있다. 사실 묵계월의 부민관 공연은 양어머니 집에 있던 시절, 14살 때 처음 섰다. 이때는 소리를 하는 어른들을 따라 부민관에 가서 함께 공연을 하였고, 16살 때부터는 혼자서 무대에 올랐다. 1940년 6월 19일 묵계월이 부민관에서 공연했다는 기록은 동아일보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조선음악의 정수〉**

조선예흥사주최로 명유월십구일부터 이틀 동안 부민관에서 열리는 제1회 조선음악전은 조선음악의 정수를 정악·향곡·민요 3부로 나눠, 다음과 같이 각부에다 그 방면의 권위자를 출연케 하는 만치, 미리부터 상당히 호평이어서 성황이 예기되는바, 개연은 오후 7시 반부터이지마는, 장내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입장을 일즉부터 하기를 바란다며, 입장료는 일원 균일이라 한다.

제 삼부 민요

二 민요 묵계월 - 양산도, 방아타령[42]

묵계월은 1960년대에 무대공연 뿐만 아니라, 해외공연활동도 하였다. 1945년 해방 이후부터 문화재 지정 이전까지 묵계월은 경 · 서도민요 가창자들과 함께 일본 여러 도시를 수 십일에 걸쳐 순회공연을 하였던 것이다. 일본 전국순회공연에 대한 사진자료와, 구술채록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2) 〈동아일보〉 1940. 6. 19

〈표와 그림5〉[43]

1962년 일본 전국순회공연 갈 때 단체사진

나이가 41살 때 갔나. 문화재 되고 나서… 41살이니까, 문화재되기 전인가?

[조사자] : 되기 전이죠. 인간문화재 보유자가 되신 건 75년이니까, 그 때 선생님 연세가 55인가. 55살이니까. 아무튼 그 때 일본을 가셨다는

거죠? 누구랑 같이 가신 거에요?

안비취·이은주·김옥심·유선녀·심명화. 그렇게만 갔다 왔어요. 어딜 갔다기보다는 두 달 동안 있으니까, 순회공연을 했어요. 오사카·동경, 나고야는 갔는지. 저기 먼 데 있죠. 북해도. 아니요. 일본에서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안비취 씨하고 친한 사람. 그래서 공연을 그렇게 한 번 하겠느냐고. 네. 돈은 많이 안 생긴다고. 그렇지. 사물놀이 가고, 무용하는 사람도 가고. 무용이 두 명. 일본 가서 경기민요는 물론이고, 서도민요도 조금 하고. 난봉가, 산염불가(?). 관객이 대부분 교포들이에요. 좋아해요. 춤도 나와서 추고,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 비행기. 김포 비행기. 그렇죠. 버스로 이동하고 기차도 타고. 그렇죠. 어리둥절했죠.[44]

1962년 일본 전국순회공연은 일본에서 살고 있던 교포들에게 특히, 큰 호응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묵계월의 구술채록 자료에서 흥에 겨워 함께 춤을 추는 장면이나,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

다음은 1965년 국립극장 공연의 사진자료이다. 묵계월의 공연활동을 말해

43) 제 11회 방일영국악상 팸플릿 18쪽
44) 묵계월 구술채록 자료 2차(2012. 2. 10.)

주는 자료도 매우 적지만, 이런 이미지사진자료들은 더욱 찾아보기 힘들다. 더욱이 공연 모습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찍은 사진들은 더욱 찾기 힘들었던 만큼, 그 당시 배경을 엿볼 수 있기에 이번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표와 그림6〉**[45]

1965년 2월 3일 국립극장에서

이때 당시 무대공연 중에는 봄을 맞이하여 국악인들이 모여 펼쳤던 〈봄맞이 공연〉이 있었다. 이 공연에는 1967년 4월 20일에 동아일보 주최로 국악인들이 모두 모인 무대공연 이었는데, 묵계월도 출연하였다

**〈봄맞이 공연 국악인 총망라〉**

국립극장에서는 국악인들을 총망라하여 22일부터 26일까지 낮 3시 30분 밤 7시30분 팔도민요 봄맞이 공연을 갖는다. 이 공연에는 무용가 한영숙씨를 비롯하여묵계월씨와 국악의 명인 명창들이 출연한다.[46]

그리고 무대 공연으로 〈명인명창대회〉도 있었다. 이 대회는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이 대회의 특징은 당시 활동하던 대표적인 명인명창을 초청하여 무대공연을 했다는 것이다. 이 대회는 여러 차례 있었는데, 1967년 6월 5일에 열린 명인명창대회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45) 제11회 방일영국악상 21쪽.
46) 〈동아일보〉 1967.4.20.

**〈명인명창대회 6월5일 시민회관서〉**

기보한 바와 같이 본사는 6월 5일 낮 3시에 제6회 명인명창대회를 시민회관에서 갖기로 하였습니다. 문화유산의 보전과, 계승을 위한 뜻 깊은 이 대회에 출연할 명창명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창 : 판소리 김연수 박논주 김여난 박초월 김소희, 서울서도소리 이진홍 장학선 묵계월, 가곡 홍원기 ▷명인 : 현금 신쾌동, 가야금 성금연, 대령 김성진, 양금 김영윤, 단소 봉해용, 탈춤 김천흥, 승무 한영숙, 악사 이정업 외 5인 ▷6월 5일 낮 3시 ▷시민회관 ▷회원권 백원 ▷예매처 본사 사업부[47]

이 시기에 많이 했던 무대 공연은 인간문화재 보유자들이 함께 했던 공연들이다.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고, 문화재로 지정받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분야의 인간문화재 보유자들이 함께 공연하는 기회가 많이 생겨난 것이다. 이때 당시 이러한 공연이 많아진 이유는 무형문화재를 활성화시키려고 했던 정부의 정책과 관련이 있다. 앞으로 살펴 볼 문화재 지정 이후의 활발해진 음악활동을 보면 이러한 점을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광복절과 같은 기념일에 맞추어 공연한 것으로, 1970년 8월 10일에 열린 '광복절 기념 대국악제'를 살펴볼 수 있었다.

– 광복절 기념 대국악제 국악협회주관 14·15양일, 사상처음 각 단체서 육백명 참가, 민족의 향연 신작연주 민속놀이. –
광복 25주년을 기념하는 8·15 경축국악제가 한국국악협회주관으로 14·15일 양일간 시민회관 및 남산야외음악당에서 열린다. 문공부가 지난 5월 국악협회의 단합중흥을 계기로 예총산하 10 개협회 중 국악협회에만 8·15 축제 행사 일체를 맡게 되어, 한국 음악사상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 이 대규모 국악제는 2부로 나누어, 1부는 재래 기존 곡들 및 무용으로, 2부는 창작국악곡들로 국악의 제전을 이루게 된다. 국악원과 서울대 음대 국악과 및 시립국악관현단과 국악예술학교 등 국악협회 산하 모든 한국음악단체들이 총 참가하게 되는, 이번 국악제에는 제 1부 민족의 향연이 관현악으로 된 화려한 서곡으로부터 시작해서, 무궁화 동산도 탑돌이 선소리 산타령, 시조, 뱃노래, 부채춤, 경기민요, 강강수월래, 화관무, 가면무 등 전통음악 전통무용 등 14종의 장막연속물을 이루다, 농악으로 피날레를 맺을 예정이다. 등장되는 출

47) 〈동아일보〉, 1967.6.1.

연자는 총 600명, 구성에는 국악협회 산하 작품선정위가 맡았고, 연출은 김석민, 박해일, 동화춘씨 등이다. 부문별로는 음악에 지병희, 한갑득, 박귀희, 성금연, 안무에, 김천흥, 전황, 구자운, 창 지휘에 박초월, 정득만 묵계월씨가 맡았으며, 미술 홍종인, 조명 차기봉씨 등.
한편 14일 민족의 향연에 이어 15일 밤을 장식하게 될 데이부 신작국악연주회에서는 김기섭 작곡의 송광복 및 이해식 작곡 흙담(가야금독주 이재숙 조재선) 곡 젓대를 위한 시나위(젓대 박종대) 이성천곡 관악 강성희 예불 이강덕곡 가야고협주곡 (가야고박미령) 김용진곡 가시리(합창) 등이 신예국악인들에 의해 연주된다. 이에 앞서 14일 낮에는 남산 야외음악당에서 줄타기, 팔도민요 민속놀이 등이 경연되어 청사초롱을 든 제등 행렬이 있을 예정이다.[48]

이 공연에서 묵계월은 공연도 했지만, 총지휘를 맡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공연에 600명의 전통예술인이 모였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광복절을 기념하는 다양한 국악공연이 있었는데, 묵계월은 이러한 공연이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출연하였다.

지금까지 살펴 본 묵계월의 문화재 지정 이전 공연활동은 1930년에서 1945년 해방이전까지 주로 부민관과 잔칫집 및 요릿집, 그리고 신흥사에서의 활동이 많았다. 양어머니시절에는 경험위주의 공연이었지만, 20살 이후 즉, 1941년 이후로는 결혼생활과 피난생활, 그리고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생계위주의 공연활동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1960년부터 특히 1962년 경기민요연구회활동을 하면서 활동한 공연들은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시대적 배경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무형문화재가 지정되면서 공연의 규모와 영역은 커졌다는 것이다. 경기민요 가창자들이 중요무형문화재 가치를 알게 되면서, 더 활발한 모습으로 공연활동을 하였다는 것도 엿볼 수 있었다.

묵계월은 공연활동뿐만 아니라, LP음반활동도 활발하게 하였다. 하지만 11살 때 민요에 입문하고, 일찍 시작한 공연활동에 비하면 늦게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묵계월의 문화재지정 이전까지의 LP음반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48) 〈동아일보〉, 1970. 8. 10.

〈표7〉

| 날짜 | 음반 | 연주자 및 내용 | 제작사 | 인용 |
|---|---|---|---|---|
| 1959년 녹음, 제작 | 한국민요특집4집 | 김옥심,이은주,묵계월,성우향,한농선. | 킹스타레코드 | 국악음반박물관 소장관리번호MI10LP-0018,0065,0098(초판,재판,삼판) |
| 1960년초반 녹음, 제작 1960년중반~1980년재 발매됨 | 한국민요집 1집 | 김옥심,이은주,묵계월. 외 | 신세기축음기주식회사(新世紀蓄音機株式會社) | 국악음반박물관 소장관리번호MI10LP-0019,0020~0021,0135(초판,재판,동일반3장) |
| 1960년초반 녹음, 제작 1960년중반~1980년재 발매됨. | 한국민요집 2집 | 김옥심,이은주,묵계월. 외 | 신세기축음기주식회사(新世紀蓄音機株式會社) | 국악음반박물관소장관리번호MI10LP-0022(초판),0023~0025,0131,0134(채판동일반5장) |
| 1960년초반 녹음, 제작 1960년중반~1980년재 발매됨. | 한국민요집 3집 | 김옥심,이은주,묵계월,이은관. | 신세기축음기주식회사(新世紀蓄音機株式會社) | 국악음반박물관소장관리번호MI10LP-0026(초판),MI10LP-0083(재판) |
| 1960년초반 녹음, 제작 | 한국민요집 제5집 | 서도편(공명가와 적벽가) 김옥심,묵계월 | 신세기레코드주식회사(新世紀레코-드株式會社) | 국악음반박물관소장관리번호MI10LP-0038,0068(동일반2장) |
| 1960년초반 녹음, 제작 | 民謠와漫談(민요와만담) | 김정연〈범벅타령〉,김옥심,묵계월〈국문뒤풀이〉 | 신세기레코드주식회사 | 국악음반박물관소장관리번호MI10LP-0041 |
| 1960년 | 한국 민요 | 김옥심·이은주· | 시대레코드사 | 국악음반박물관 |

| | | | | |
|---|---|---|---|---|
| 녹음, 제작 | 특선집 | 지연화·이소향·묵계월 | | 소장 관리번호 MI12LP-0827 |
| 1960년 녹음, 제작 | 한국민요특선집 제4집 | 흥겨운가락경기창:이은주·묵계월 | 시대레코드사 | 국악음반박물관 소장관리번호 MI12LP-0884 |
| 1960년대 녹음, 제작 | 한국민요걸작집 제1집 | 김옥심·이은주·묵계월 외 | 엘케엘레코오드社 | 국악음반박물관소장관리번호MI12LP-0830(초판),0831(재판). |
| 1960년대 녹음 제작 | 한국민요걸작집 제2집 | 김옥심·이은주·묵계월 | 엘케엘레코오드社 | 국악음반박물관소장관리번호MI12LP-0832~0833,MI12LP-1609(동일반3장) |
| 1960년대 녹음 제작 | 한국민요걸작집 제3집 | 김옥심 · 이은주 · 묵계월 | 엘케엘레코오드社 |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관리번호 MI12LP-0834 |
| 1960년대 녹음, 제작 | 한국민요선집 제1집 | 김옥심·이은주·묵계월·지연화·이소향 | 시대레코-드사/유니버어살레코-드사 | 국악음반박물관소장관리번호MI12LP-0877(초판),MI12LP-0878(재판),MI12LP-0879(삼판) |
| 1960년대 녹음, 제작 | 한국민요선집 제2집 | 김옥심·이은주·묵계월 | 시대레코-드사/유니버어살레코-드사 | 국악음반박물관소장관리번호MI12LP-0880(초판),MI12LP-0881(재판) |
| 1960년대 녹음, 제작 | 한국민요선집 제3집 | 이은주·묵계월·이은관 | 시대레코-드사/유니버어살레코-드사 | 국악음반박물관소장관리번호MI12LP-0882(초판),MI12LP-0883(재판) |
| 1960년대 | 한국민요선 | 흥겨운 가락 | 시대레코-드 | 국악음반박물관 |

| | | | | |
|---|---|---|---|---|
| 녹음, 제작 | 집 제5집 | 경기창<br>이은주·묵계월 | 사/유니버어<br>살레코-드사 | 소장 관리번호<br>MI12LP-0885(재판),MI12LP-0886(초판) |
| 1960년대<br>녹음, 제작 | 한국민요선<br>집 제8집 | 흥겨운 가락<br>경기창<br>이은주·묵계월 | 시대레코-드<br>사/유니버어<br>살레코-드사 | 국악음반박물관<br>소장 관리번호<br>MI12LP-0888 |
| 1960년대<br>녹음, 제작 | 한국민요선<br>집 제9집 | 흥겨운 가락<br>경기창<br>이은주·묵계월 | 시대레코-드<br>사/유니버어<br>살레코-드사 | 국악음반박물관<br>소장 관리번호<br>MI12LP-0887 |
| 1960년대<br>녹음, 제작 | 대감놀이 | 이은주·묵계월·<br>심명화 | 시대레코-드<br>사/유니버어<br>살레코-드사 | 국악음반박물관<br>소장 관리번호<br>MI12LP-0889 |
| 1960년대<br>녹음, 제작 | 고전민요<br>3집 | 한국의노래(해외 교포를 위한 노래집)<br>이은주·묵계월 | 사단법인<br>한국음반협회 | 국악음반박물관<br>소장 관리번호<br>MI12LP-0900 |
| 1968년<br>녹음<br>1968년9월<br>10일 제작 | 한국민속악<br>전민요<br>삼천리 | 성경린,이창배,<br>김기수,김옥심,<br>묵계월,성창순,<br>남해성,오정숙,<br>성우향,한농선 | 성음사(省音社) | 소장<br>음반이미지자료. |
| 1968년녹음<br>1968년5월<br>4일 제작 | 장한몽과<br>서울의<br>속가집 | 이은관·김옥심·<br>묵계월·이창배·<br>정득만 | 신세기레코드<br>주식회사 | 국악음반박물관<br>소장 관리번호<br>MI12LP-1652 |
| 1960년대<br>후반녹음,<br>1968년10<br>월30일제작 | 가락 찾아<br>삼천리<br>VOL.2 | 이은주·묵계월·<br>김옥심·묵계월·<br>이은관·이진홍·<br>백운선 | 아세아레코드<br>사 | 국악음반박물관<br>소장관리번호MI12<br>LP-1899~1908 |
| 1960년대<br>후반 녹음, | 경기 서도<br>잡가 제3집 | 묵계월 | 힛트레코드사 | 국악음반박물관소<br>장관리번호MI12LP |

| | | | | |
|---|---|---|---|---|
| 1971년9월 1일 제작. | | | | -0932,MI12LP-1497(동일반 2장) |
| 1970년스테레오녹음,1971년1월 1일 제작. | 한국민요편 창부타령전집 | 이은주·고백화·묵계월·이은관 | 프린스음반제작소 |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관리번호 MI12LP-0901 |
| 1971년스테레오 녹음, 1971년11월27일제작 | 축하음악, 흥겨운민요 | 묵계월·고백화·안숙정·지화자 | 성음제작소 |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관리번호 MI12LP-0933 |
| 1972년 녹음 | 한국음악선집 제1집 | 유산가(묵계월),앞산타령(이창배·유개동·김순태·정득만) | 국립국악원 기획,(주)성음제작·발매 | 국악음반박물관 |
| 1973년 녹음, 제작 | 한국음악선집 제2집 | 김정연〈초한가〉,이창배·묵계월·안비취〈경발림〉 | 지구레코드 |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관리번호 MI12LP-0354~0356 |
| 1973년 제작[49] | 한국민요특선집 제1집 | 이은주·김옥심·묵계월·이은관 | 힛트레코드사 |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관리번호 MI12LP-0851~0852(동일반 2장) |
| 1973년 제작[50] | 한국민요특선집 제2집 | 이은주·김옥심·묵계월·이은관 | 힛트레코드사 |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관리번호 MI12LP-0851~0852(동일반 2장) |
| 1973년 제작[51] | 한국민요특선집 제3집 | 이은주·김옥심·묵계월·이은관 | 힛트레코드사 |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관리번호 MI12LP-0853 |
| 1973년STEREO녹음, | 한국민요집 제1집 | 김옥심·이은주·묵계월 | 신세계레코드사/힛트레코 | 국악음반박물관 소장(관리번호미기 |

| | | | | |
|---|---|---|---|---|
| 1974년1월 10일 초판 제작. | | | 드사 | 재) |
| 1973년STEREO 녹음, 1974년1월 10일 제작. | 한국민요집 제2집 | 김옥심·이은주·차은희·묵계월 | 신세계레코드사/힛트레코드사 |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관리번호 MI12LP-0863 |
| 1973년STEREO 녹음, 1973년8월 10일 초판, | 한국민요특선집 제1집 | 이은주·묵계월 | 신세계레코드사 | 국악음반박물관 소장관리번호MI12LP-0911(초판) |
| 1973년STEREO 녹음 | 한국민요특선집 제2집 | 이은주·묵계월 | 신세계레코드사 | 국악음반박물관 |
| 1973년STEREO 녹음 | 한국민요특선집 제3집 | 이은주·묵계월 | 신세계레코드사 | 국악음반박물관 |
| 1973년 녹음 제작. | 한국의 음악 | 이은주·묵계월·김소희·이정열·김춘홍·박초선 | 국제홍보사 기획제작,지구레코드공사 | 국악음반박물관 소장관리번호MI12LP-1839~1840 |
| 1973년 녹음 | 한국음악선집 제2집 | 초한가(김정연),경발림(이창배·묵계월·안비취 | 국립국악원기획, (주)성음 제작·발매 | 국악음반박물관 |
| 1974년STEREO 녹음 | 한국민요 제2집 | 이은주·묵계월·김세레나 | 아세아레코드사 | 국악음반박물관 |
| 1974년 녹음 | 한국음악선집 제3집 | 제비가(묵계월),제전(김정연) | 국립국악원기획, (주)성음 제작·발매 | 국악음반박물관 |

위 정리 된 묵계월의 음악활동은 본 연구자의 소장음반도 있지만, 국악음반박물관의 자료가 크게 적용되었다. 국악음반박물관은 2001년 7월 7일 경기도

49) 한겨레음악대사전(한국민요특선집1973년신세계레코드사가 제작한 LP음반 3매.
50) 한겨레음악대사전(한국민요특선집1973년신세계레코드사가 제작한 LP음반 3매.
51) 한겨레음악대사전(한국민요특선집1973년신세계레코드사가 제작한 LP음반 3매.

양평군 서종면에 개관하였다. 국악애호가인 노재명 관장이 28년간 자료 수집, 23년에 걸쳐 구축한 국악자료들이다. 문헌 · 영상자료 · 악기 등 총 3만 5000여 점의 국악 관련 유물을 전시한다. 부지 1000㎡, 연건평 400㎡ 규모의 2층 건물로 전시공간은 약 200㎡ 규모이다.[52]

실제 국악음반은 총 3,300건이 넘었고, 본 연구자는 이 자료들을 모두 검토하여 묵계월이 출연한 음반을 모두 찾아내었다. 그리고 문화재 지정 이전과 이후로 분리하였다. 묵계월의 음반활동은 1959년 한국민요특집 4집 킹스타레코드와 시작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한국민요특집이 4집인 만큼, 그 이전의 음반이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사실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와 1950년대 후반에 작업한 사실로 보아 1950년 중 · 후반 무렵부터 음반활동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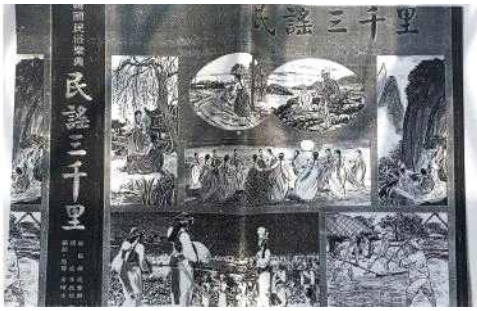
문화재 지정 이전의 음반활동은 1960년대 초반과, 후반으로 뚜렷이 나뉜다. 1960년대에는 신세기축음기주식회사와 한국민요집을 제1 · 2 · 3 · 5집을 만들었다. 그리고 시대레코드사와 한국민요특선집, 한국민요특선집 제 4집을 만들었다. 또, 엘케엘레코오드사와 한국민요걸작집을 제 1집부터 3집까지 만들었으며, 시대레코드사, 유니버어살레코드사에서 한국민요선집을 1집에서 9집까지 4 · 6 · 7집을 뺀 총 6개의 음반을 만들었다. 이렇게 같은 이름으로 여러 집을 펴낸 음반이 있는 반면, 1968년 한국민속악전민요삼천리처럼 단독음반도 여러 음반 작업이 실시되었다. 1968년 한국민속악전 민요삼천리 음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민속악전 민요삼천리](韓國民俗樂典 民謠三千里)1968년 녹음, 1968년 9월 10일 제작.[53] 30cm LP 10枚(매), 全曲解說書부(전곡해설서부), 省音社(성음사)제작

연주자 : 성경린 · 이창배 · 김기수 · 김옥심 · 묵계월 · 성창순 · 남해성 · 오정숙 · 성우향 · 한농선

52) 국악음반박물관 http://www.hearkorea.com/
53) 국악음반박물관(http://www.hearkorea.com/) 소장 관리번호 MI12LP-0162~0171

〈표와 그림8〉[54]



| | | | | | |
|---|---|---|---|---|---|
| 1 －A면 | 1.아리랑 | 2. 긴아리랑 | 3.사설난봉가 | 4. 는실타령 | 5. 방아타령 |
| 1 － B면 | 1.노랫가락 | 2.도라지타령 | 3.자진방아타령 | 4.사설방아타령 | 5.건드렁타령 |
| 2 － A면 | 1.경복궁타령 | 2.창부타령 | 3.청춘가 | 4.버들노래 | 5.오봉산타령 |
| 2 － B면 | 1.사발가 | 2.한강수타령 | 3.태평가 | 4.오들독 | 5.박연폭포 |
| 3 － A면 | 1.이별가 | 2. 베틀가 | 3.닐리리아 | 4.금강산타령 | 5.양산도 |
| 3 － B면 | 1.풍년가 | 2.노들강변 | 3.군밤타령 | 4.장기타령 | 5.매화타령 |
| 4 － A면 | 1.수심가 | 2.엮음수심가 | 3.산념불 | 4.자진염불 | 5.몽금포나령 |
| 4 － B면 | 1.병신난봉가 | 2.긴난봉가 | 3.자진난봉가 | 4긴아리 | 5자진아리 |
| | | | | | 6.해주아리랑 |
| 5 － A면 | 1.어랑타령 | 2.궁초댕기 | 3.애원성 | 4.한오백년 | 등타령 |
| 5 － B면 | 1.정선아리랑 | 2.천안삼거리 | 3.총각타령 | 4.강원도아리랑 | 5.청산별곡 |
| 6 － A면 | 1.밀양아리랑 | 2.보리타작 | 3.쾌지나칭칭나네 | 4.성주풀이 | 5.담바귀타령 |

54) 정경숙 소장음반

| | | | | | |
|---|---|---|---|---|---|
| 6 - B면 | 1.육자배기 | 2.자진육자배기 | 3.삼산은반락 | 4.울산아가씨 | 5.뱃놀이 |
| 7 - A면 | 1.뱃노래 | 2.흥타령 | 3.까투리타령 | 4.개고리타령 | 5.방아노래 |
| 7 - B면 | 1.강강술래 | 2.새타령 | 3.화초타령 | 4.둥가타령 | 5.진도아리랑 |
| 8 - A면 | 1.농부가 | 2.화초사거리 | 3.둥술레당실 | 4.이야홍타령 | |
| 8 - B면 | 1.보렴 | 2.꽃타령 | 3.들국화 | 4.남포타령 | 5.통영개타령 |
| 9 - A면 | 1.탑돌이 | 2.널뛰기 | 3.봄노래 | 4.가야금타령 | 5.사철노래 |
| 9 - B면 | 1.뽕따러가세 | 2.함양양잠가 | 3.금상산노래 | 4.기우제 | 5.동백타령 |
| | | | | | 6.자진동백타령 |
| 10-A면 | 1.물레타령 | 2.휘여능청 | 3.메아리 | 4.둥둥게타령 | 5.추석놀이 |
| | | | | | 6.달맞이 |
| 10-B면 | 1.귀호곡 | 2.서경별곡 | 3.사모곡 | 4.상저가 | |

위에서 살펴 본 1968년 한국민속악전 민요삼천리의 연주자 중에는 이은주가 없었다. 같은 년도에 제작된 장한몽과 서울의 속가집에도 없었다. 묵계월의 음반에서 이은주를 살펴 본 이유는 1959년 시작된 음반에서부터 이은주와 줄곧 함께 했었기 때문이다.

1962년 경기민요연구회를 결성하고, 인간문화 제57호 보유자가 된 핵심 3인 가운데 안비취를 제외한 이은주의 음반활동이 두드러져 보이기 때문이다. 이은주와 함께 만든 음반은 1970년대는 문화재 지정 이전인 1974년까지도 계속되었으며, 안비취는 1973년 한국음악선집 제 2집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1970년 초반에는 한국음악선집을 1·2집 내고, 한국민요특선집 제 1집을 힛트레코드사에서 작업하고, 한국민요특선집 2·3집은 녹음만 하였다. 1973

년에는 제작은 하지 않고, 녹음만 한 음반이 한국민요특집 2, 3집과, 한국음악선집2, 3집, 그리고 1974년 한국민요 2집이다. 이렇게 녹음작업만 한 음반은 문화재 지정이후 제작되었다.

물론, 이밖에도 음반작업이 더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전통문화가 그렇듯이 특히, 경기민요 부분에서는 오늘날 문헌자료들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에 있어서 매우 어려움도 따르지만, 그 만큼 이러한 자료들이 큰 힘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2) 경기민요연구회에서의 활동

경기민요연구회는 묵계월이 인간문화재 보유자가 되기 이전에 활동했던 모임이다. 이 연구회는 오늘날 한국민요연구회, 혹은 경기소리연구회로 알려져 있다. 이 모임은 묵계월 · 안비취 · 이은주. 세 명의 명창을 중심으로 경기민요 가창자들이 모인 연구회였다. 이 모임은 경기민요 가창자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단체였으며, 연구회라는 타이틀로 주목을 받았던 모임이다. 그런데 경기민요연구회를 알아보기 위해 자료를 찾던 중 설립 시기 1962년과 1971년으로 다르게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1962년으로 보는 근거〉**

1962년 6월 한국민요연구회(韓國民謠硏究會)가 생기면서 묵계월·이은주·안비취·이소향(李少香)·김옥심(金玉心)·장국심(張菊心) 등이 참가하여 경기민요를 비롯하여 잡가 등을 불렀다.[55]

**〈1971년으로 보는 근거〉**

정부에서 중요 무형문화재 제도를 만들어 지정하기 시작하면서, 1964년 판소리가 중요 무형문화재 5호로 지정되고, 1968년에 선소리산타령이 19호로 지정되었다. 1971년에 묵계월·이은주·안비취 등이 경기소리연구회를 만든 것

55) 김혜리, 김영운의 『경기민요』,민속원, 2008. 115쪽.

은, 이러한 주위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56]

하지만 본 연구자는 이소향을 고교시절 경서도 전공 선생님으로 인연을 맺으면서, 민요연구회가 1962년에 설립되었고, 초대 회장은 이소향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57] 그리고 마침, 이창배께서 쓴『한국가창대전』에서 경기민요연구회가 1962년에 설립되어 1971년에 많은 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활동과 활약했던 민요연구회 인원들까지 파악 할 수 있었다.

> 1962년 6월에 여류들만으로 조직된 단체가 생겼으니, 이것이 바로 한국민요 연구회이다. 여기서는 안비취·이소향·묵계월·이은주·심명화가 주동이 되었고, 인적구성에는 그밖에 김옥심·장국심·노은화·백운선·주학선·이진홍 등이 참여하였다. 1963년에 민요연구회 이름으로 처음 제일교포위문공연으로 안비취 회장을 비롯하여 묵계월·이은주·심명화·김옥심·유선녀 등 경서도 명창들로 구성되고, 반주진도 명인들로만 구성되었다.
> 이충선·김은산·서공철·박정숙, 그리고 농악으로 전사종과 그의 딸 전금자, 무용으로 정재희, 총무에 허호영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것을 비롯하여 국내 무대 활동은 물론, 해외파견도 상당수에 이른다. (중략) 1971년부터 매년 전국민요경창대회를 국악협회주최, 민요분과 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하여, 신인 발굴에 노력하여 1975년까지 제 4회에 이른다. 연례행사로 되었기에 틀림없이 개최될 줄 안다.
> 그리고 각종행사, 즉 국악의 날의 출연, 경축제전 및 외빈 초대연의 국악감상, 또는 각 라디오나 텔레비전 및 외빈 초대연의 국악감상, 또는 각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출연 등의 다채로운 연주에 출연하고 있다.[58]

경기민요연구회를 결성하게 된 배경에는 안비취와의 만남이 먼저였다. 한국전쟁 이후 묵계월이 돈암동에서 살 때 안비취가 경기민요연구회를 만들기 위해 찾아왔다고 한다.

> (안비취를) 만났어, 그러니깐..... 내가 한 사십 좀 못 돼서 만났어. 내가 와

56) 류의호의 『묵계월 경기소리연구』, 2003,「묵계월 약전」中.
57) 이소향은 현재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민요 연구회의 창설 당시의 회장이었으며,(이창배, 한국가창대계. 홍인문화사, 1976, 183쪽)
58) 이창배, 앞의 책, 179- 180쪽.

서 돈암동에 살자니깐은 만나자고, 그러더라구요. 그 전에는 말만 들었죠. 팀도 하고, 무대도 그래서 인제 연구회라는 것도 만들고. 마흔 쫌 넘어서. 회원들이 다죠, 민요 연구회는. 그니까, 민요하는 사람은 다죠. 다라고 봐야죠. 그냥 소리하는 사람들 다 모여서 회비도 내고, 노래도 와서 연구하고. 노래를 다 잘한다고 볼 수는 없죠. 연구라는 건 와서 모자란 걸 더 배우고, 가사도 틀리면 잡아주고. 우리들이, 셋이.(묵계월·안비취·이은주.) 그래도 많이 와야 할 텐데, 안 오잖아요. 바쁘다고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안온다고. 그래서 민요 연구회를 걷어챘죠.[59]

안비취는 이때 당시 경기민요로 유명하였던 명창들과 함께 경기민요연구회를 만들고 싶어 했다. 그래서 묵계월을 찾아와 경기민요연구회를 만들자고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경기민요연구회는 묵계월·안비취·이은주를 중심으로 설립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묵계월의 소리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소리를 매우 잘하는 명창으로 유명했던 것으로 짐작 할 수 있겠다.

그 때 많았어요. (회원이) 곧 많았다고, 이홍구라고, 춤추는 이홍구, 또 김청문 선생이 돌아가셨잖아. 아니, 김청원 씨, 춤추는 친구, 김청원 씨, 노인네. 그 때 그 분이 처음 가르쳐주고, 그 안비취 씨 시아버지 아냐, 김청원 씨가.[60]

또한, 위의 하진옥 선생의 구술채록 자료를 보면 경기민요연구회에는 경기민요를 하는 사람은 물론, 무용하는 분도 여러 명이 함께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묵계월은 이들과 함께 경기민요연구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쳤던 것이다.

이때 당시 묵계월을 비롯한 경기민요 가창자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임을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경기민요연구회를 이어받아 2000년 중반에 다시 결성된 한국민요연구회 홈페이지 〈연구회소개〉란에서 당시 경기민요연구회를 설립하게 된 배경과 목적을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

59) 묵계월 구술채록 자료 1차(2012. 2. 2.)

60) 하진옥 구술채록 자료(2012. 2. 15.)
한편,경기민요연구회는 안비취, 묵계월, 이은주 선생을 비롯하여 이소향, 김옥심, 장국심 선생 등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혜리, 김영운, 민속원,『경기민요』, 2008, 115쪽)

경기민요 연구회 보다 앞서 1969년경 원충희 선생과 일중 선생이 주도한 동명의 단체를 출범했을 때, 묵계월은 이사로 참여했다가 단체 이름을 그대로 물려 받아 세 분 선생이 중심이 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 것이다.
우리민요는 당시까지 만해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하고, 독립된 예술적 항목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예능을 전수받아 지키고 있는 예능인들도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을 때였다. 판소리나 정가 시조 등이 일찍부터 우리의 공연예술의 주요 항목으로 주목을 받고, 그 예능인들도 존중되었고 무형문화재 지정에서도 일찍부터 그 자리를 차지했던 것과는 달리, 전국의 민요는 같은 성악 계통이고, 전문 전승인이 있음에도 그 민속예술적인 측면이 강조되면서 그 예능인이나, 그 작품성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경기민요의 여류명창 3인이 중심이 되어 출범했던 한국민요 연구회 발족과 동시에, 경기민요는 물론 각 지역의 민요와 그 민요의 예능인들을 모아 민요를 알리고, 그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알리는 공연무대를 만들기 시작했다.[61]

위의 내용에서 묵계월·안비취·이은주 등이 당시 경기민요연구회를 결성하게 된 이유에는 경기민요가 예술항목으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전승시키고 있는 예능인들에 대한 대우도 좋지 않았던 당시의 환경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실에서 경기민요가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 등을 다양한 공연을 통해 알리기 위해 이 단체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62]

다음은 묵계월이 경기민요연구회를 안비취·이은주와 함께 결성한 뒤 문화재 지정 이전까지 활동한 내용과 수상경력이다.

**〈표9〉**

| 일시 | 수상내역 | 인용 |
|---|---|---|
| 1968. 4. | 제1회 세종상 국악대상 수상 | 팸플릿자료 |

61) (사) 한국민요연구회 홈페이지(http://www.koreaminyo.or.kr)
62) 이은주의 경기민요를 연구한 방인숙은 당시 경기민요연구회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962년 이은주, 안비취, 이송향이 주도하여 설립한 한국민요연구회는 경기민요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전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된다. 경기민요인들이 단합하여 한목소리를 냄으로써 그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양되기 시작한 것이다(방인숙, 「명창 이은주의 경기민요 연구」, 2011.2 남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쪽).

〈표10〉

| 일시 | 활동내역 | 인용 |
|---|---|---|
| 1962. | 경기민요연구회 결성(안비취, 묵계월, 이은주 외) | 묵계월 구술채록 자료 |
| 1965. 1. | 한국국악협회 민요분과 위원장 | 팸플릿자료 |
| 1971. | 한국민요연구회 설립 부회장 | 팸플릿자료 |

묵계월의 활동표를 보면 경기민요연구회 결성 이후 그 전에 없었던 활발한 활동모습이 엿 보인다. 예전에는 개인의 활동이 많았다면, 1962년 경기민요회 결성이후에는 단체의 일원으로서 중책을 맡거나, 제1회 세종상 국악대상과 같은 수상경력도 쌓았다는 것이다.

한편, 경기민요연구회는 1971년 2월 연구회관을 개관해 민요강습회를 실시했으며, 토착민요 발굴, 건전한 가사, 창작민요 등을 바탕으로 한 민요개창운동을 벌이는 등 조직적으로 사업을 펼치면서 〈12잡가〉 보존에 힘썼다. 민요강습회 강사로는 묵계월·이은주·이창배·정득만 등이 참여했다. 이후 〈12잡가〉 연구보존회가 만들어져 〈12잡가〉 보급을 위해 많은 공연과 학습활동을 실시하였다.[63] 그리고 경기민요의 대중화와 이미지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으며, 회원들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정하고, 불우한 이웃과 노인들을 찾아가 무료로 공연을 해주었다.

> 그거는 인제.... 그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회의를 할 때, (경기 민요 연구회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우리 연구회가 결성을 해가지고, 좋은 일을 하자. 노인네들도 도와주고, 위원회 돈대고 남는 거랑 노인네들한테 기부도 하자. 너희도 협조해라.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인제 지방 공연을 한다, 소리를 하러간다. 그러면 서로 알아서 교대로 하러가자.[64]

경기민요연구회의 활동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연섭외들을 조절하여, 그 공연에 맞는 소리꾼이나 예능인을 보내주기도 하였다. 특히 이 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절에는 공연문의가

63) 방인숙, 위의 논문, 17쪽
64) 하진옥 구술채록 자료(2012. 2. 15.)

많았는데, 묵계월은 이런 공연들을 조절하여 골고루 무대에 설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묵계월의 구술채록 자료에서 보여주었듯이 서로가 노래를 부르면 틀린 부분을 고쳐주기도 하며, 부족한 노래실력을 갈고 닦으며 전통민요의 수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자 했다.

연구회 모임이 활발했던 초기 경기민요연구회의 작은 사무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매년 민요무대를 만들었으며, 1975년에는 장충단에서 답교놀이로 첫 번째 대규모 공연을 마련했었다. 이 공연은 민요를 전문적으로 전승하여, 그 예능을 고루 갖추었던 전문 성악인들이 대거 참여 하여 만든 대규모 무대였다. 전래의 답교놀이를 재현하면서, 민요도 함께 발표하여 놀이와 공연무대를 합한 멋진 무대였다.[65]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1962년 이후의 공연활동들을 보면, 이 경기민요연구회의 활동이 다양한 공연활동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기민요연구회는 1979년에 해체되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서로 간에 마찰이 심하였던 점이 가장 큰 이유였다. 워낙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롭게 공연활동을 해오던 사람들을 모아 공동의 이념과 목표를 지향하다보니, 공연이나 방송출연 섭외가 들어오면 서로 나가고 싶어 하였다. 처음에는 잘 조율해서 별 문제가 없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보이지 않는 불평에 따른 이해 및 갈등이 생겼던 것이다. 무용하는 사람과 소리하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특히 많았다.

한편, 경기민요연구회가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70년대 말에 해체된 또 다른 이유는 서로 간의 민요에 대한 차이점 때문이었다. 민요를 어디서 누구로부터 배웠느냐에 따라 서로 방식의 차이가 많았었는데, 이런 문제는 함께 모여 연습을 하거나, 혹은 공연을 준비할 때 자연스럽게 발생되었던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이다. 그래서 처음 목표하고 활동했던 대로 무대공연이나 방송에 출연하는 일이 쉽지 않다보니, 이러한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잘 해결했어야 했는데, 쉽지 않았다고 한다.

그게 뭐냐 하면 그 악기 분야에다가 악기 따로 있고, 무용 따로 있고, 소리

65) (사)한국민요연구회 사이트 : http://www.koreaminyo.or.kr/

따로 있고, 그러니까 배울라 하는 건데..... 아이구, 그것도 말이 많았다고. 서로 내가 허랴, 니가 허랴. 내가 할 텐데 니가 낫냐 뭐가 어쩌다. 이러고 말이 많았어. 연습은 해. 연습은 하지만 안 가르쳤어. 각자가 따로 다 학원, 다 있잖아.(생략)[66]

..... 그래도 많이 와야 할 텐데, 안 오잖아요. 바쁘다고,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안온다고. 그래서 민요 연구회를 걷어치웠죠.[67]

묵계월과 하진옥의 구술채록 자료를 통해 결국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해, 경기민요연구회가 해체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경기민요연구회는 이번 연구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문화재 지정에 있어서 큰 역할이 되었던 모임이었던 만큼, 좀 더 자세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었다. 경기민요연구회의 활동이 비록 10년을 채우지 못했지만, 경기민요의 긴 역사에서 꼭 필요한 연구단체였음은 틀림없는 기구였던 것이다

66) 하진옥 구술채록 자료(2012. 2. 15.)
67) 묵계월 구술채록 자료 1차(2012. 2. 2.)

# Ⅳ. 인간문화재로서의 활동과 후학양성

## 1. 문화재 지정과 예술적 동반자

1975년 7월 12일, 묵계월·안비취·이은주가 중요무형문화재 제 57호로 인간문화재 보유자가 되었다. 경기민요가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로 지정되고, 묵계월·이은주·안비취 세 명창이 보유자로 결정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

먼저, 문화재 지정과정에서의 예술적 동반자이자, 핵심 3인의 첫 만남을 묵계월의 구술채록 자료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표와 그림11〉**[68]

이은주・안비취・묵계월

조사자] : 안비취 선생을 만난 게 언제에요, 그러면? 아, 여기서 이런 결정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구나. 안비취 선생하고 선생님은 연배가 어떻게 차이가 나죠?

다섯 살. 그러니깐..... 내가 한 사십 좀 못 되어서 만났어.

[조사자] : 네, 그래서 인제, 하자고 만나게 된 게.....

글쎄, 내가 와서 돈암동에 살자니깐 만나자고, 그러더라구요.

68) 정경숙 소장.

[조사자] : 예. 그럼. 안비취 선생도 고향이 서울이신가요?

서울이죠. 그 전에는 말만 들었죠. 예. 그렇죠. 이은주 씨. (이은주 선생이 있구나. 음... 아무튼 이 분을 만났어요, 처음). 예. 좋죠, 뭐. 감회는 무슨. 그냥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은 했어요. 네. 팀도 하고, 무대도 만들자고. 응, 그래서 인제 연구회라는 것도 만들고. 70... 그게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안 나. 나이가... 마흔 쫌 넘어서. 회원들이 다죠, 민요 연구회는, 그니까, 민요 하는 사람은 다죠. 다라고 봐야죠. 모이게 장소를 만들었죠. 이은주.

[조사자] : 이은주. 이 세분이?

네.

[조사자] : 아, 여기서 인제 경기도민요 연구회 역사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네요.

네.[69]

묵계월은 돈암동 집에서 안비취를 맞이하면서 첫 만남을 가졌다. 그리고 경기민요연구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은주를 처음 만나게 된 것이다. 1965년 이 때에는 기・예능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경기민요 가창자들 역시 무형문화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 경기민요와 비슷한 선소리타령이 경기민요보다 먼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는데, 이 일은 당시 경기민요 가창자들에게 커다란 자극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70]

문화재보호법 제정에 앞서 해방이후부터 1961년까지는 전통문화의 재생내지 부흥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볼 수 있다. 1951년 국립국악원이 개원되었으며, 1958년부터는 민속예술의 복원과 보존에 크게 기여한 바 있는 전국민속예술대회가 창설되었다. 그리고 1961년에 문화재보호법 재정을 전담할 문화재관리국(현 문화재청)이 개국되었다.

---

69) 묵계월 구술채록 자료 1차(2012. 2. 2.)

70) 경기소리하는 국악인들(특히 여성 국악인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1960년대 후반이었던 것 같다. 정부에서 중요 무형문화재 제도를 만들어 지정하기 시작하면서 1964년 판소리가 중요 무형문화재 5호로 지정되고, 1968년에 선소리산타령이 19호로 지정되었다.(이윤석, 앞의 글, 33쪽)

문화재보호법에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는 1982년부터 의무적으로 전수생들에게 전수교육을 실시하도록 제도적으로 실시되었다. 전수교육은 전통예술이 대부분 스승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사사하여, 기·예능을 습득하는 도제식(구전심수) 교육 방법이기에, 이를 제도화 한 것이다.[71]

보유자와 전승자들은 원형의 기준을 스승으로부터 지도받은 일체라고 생각한다. 전통예술교육방식인 도제식(구전심수)교육방법은 교육내용을 빠른 시일에 쉽게 익히고,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스승과 함께 하면서 예술적인 기교는 물론, 선생의 생활 방식과 예술철학까지 교육받는다.

그렇기에 스승에게 전수받은 교육내용은 쉽사리 잊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통예술인들은 전수받은 내용을 신뢰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널리 알려진 것과 공적(문화재청)인 기록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무형문화재 제도가 막 시행될 무렵, 문화재위원회에서 설정한 무형문화재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72]

① 민족생활의 변천과 발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② 발생 연대가 비교적 오래되고, 그 시대의 특색을 지닌 것.
③ 형식과 기법이 전통적인 것.
④ 예술상 가치가 특출한 것.
⑤ 학술 연구상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⑥ 향토적으로나 그 밖의 특색이 현저한 것.
⑦ 인멸될 우려가 많아서 문화적 가치가 상실되기 쉬운 것.[73]

경기민요 가창자들은 무형문화재 지정 기준을 보고, 경기민요 역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196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었다.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71) 중앙대학교 한국문화유산연구원(책임연구원 임장혁), 『중요무형문화재 관리개선 및 확대방안』, 문화재청, 2008, 10쪽.
72)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중요무형문화재 원형보전과 재창조 가이드라인』. 문화재청. 2006.
73) 임돈희·임장혁,「중요무형문화재 보존 전승의 과제」,『문화재』30, 1997, 97쪽.

한 단체는 바로 묵계월・안비취・이은주가 중심이 되어 역할을 했던 「경기민요연구회」이다.

묵계월은・안비취・이은주와 함께 〈경기12잡가〉를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을 계획을 세웠다.

> 〈경기12잡가〉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데까지 여러 가지 과정에서 실무적인 일은 안비취가 다 맡았다. 어느 날 안비취가 묵계월에게 '경기소리도 어떻게 문화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그러나 무형문화재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그냥 소리만 잘 해서 되는 일은 아니고, 지정 받을 수 있는 길을 알아야 한다. 가만히 있는데 지정되는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지정 받을 사람이 나서서 일을 해야 한다. 안비취는 묵계월·이은주와 함께 세 사람이 〈경기12잡가〉로 지정 받을 계획을 세웠다[74].

당시 인간문화재 보유자로 추천받은 명창 중에서는 묵계월・안비취・이은주 외에 김옥심이 있었다. 김옥심은 이창배로부터 사사를 받았으며, 소리 실력을 인정받아 추천되었던 명창이다. 하지만 묵계월・안비취・이은주 만이 인간문화재 보유자가 되었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묵계월의 기억으로 그 당시 김옥심이 이 세 명의 명창들과 다른 무대에 선다고 갈라졌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 명창만 인간문화재 보유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된 것이 아닐까 추정한다.

그런데 이때, 묵계월은 안비취・이은주와 함께 인간문화재 보유자가 되는 과정에서 인간문화재 보유자로 지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묵계월이 실력은 좋지만, 과거에 환갑잔치에서 공연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인간문화재 보유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75]

묵계월은 이런 일이 생기자,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죄냐'하며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곳에서 소리를 한 것이 무슨 잘못인지, 그게 죄가 된다면 안하

---

74) 이윤석, 「묵계월 약전」, 류의호 앞의 책, 33-34쪽.

75) 안비취가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기 위해 이런저런 것을 알아보고 나서, 무형문화재 지정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위원 한 사람이 묵계월은 환갑집에 다녔기 때문에 지정해 주기 어렵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주었다. 여러 차례 알아보았으나, 번번이 이것이 문제가 되자, 묵계월은 그 위원을 찾아가서 따져보겠다고 하니 안비취가 말렸다고 한다. 묵계월은, 먹고살기 위해 환갑집을 다닌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어서 문화재 지정을 받을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으니, 안비취하고 이은주 두 사람이나 신청해보라고 했다.(이윤석, 앞의 글, 34쪽).

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문화재 지정에 있어서 적극적이었던 안비취는 문화재전문위원을 만나, 이 문제에 대해 따지며, ‘문화재지정 이후에는 환갑집을 가지 않겠다.’는 다짐을 약속하며,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고 한다.

이 후 묵계월은 안비취・이은주와 함께, 인간문화재 보유자가 되었으며, 묵계월은 인간문화재 보유자가 된 이후, 환갑집에서 와달라는 요청이 와도 절대로 가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이러한 분위기는 묵계월이 구술한 자료에 상세하게 실려 있다.

> 안비취 씨가 그 무형문화재가 될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나름대로. 그 유명한 분들 찾아다니면서. 노력을 했는데 몇 사람이 돼야 하느냐? 그러니까 세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누구 세 사람이냐? 하니까, 나·이은주·안비취 세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때 김옥심이라고도 있었어. 김옥심. 그 사람은 이창배 씨가 또 추천을 해서 나오게 되고, 우리하고 갈라졌습니다. 이창배 씨가 있으니까 그걸 믿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우리하고 같이 무대에 안서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떨어져 나갔죠. (안비취 선생이) 나를 좋아해서 ‘이 이가 꼭 있어야 한다. 문화재에 이 이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략) 고생을 했다는기 보담도 듣기 싫은 소리를 많이 했죠. 날 더러 환갑집을 많이 댕겨서 (예능보유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그럼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몸에다 발 살 수 없고,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어떻하느냐.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죄냐. 그러고 나는 버티고 나가고, 거기서는 냅다 못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하도 와서 안비취 씨가 그 일을 성사시킬려고 애를 많이 썼죠. 쓰니까 내가 그랬어. 혼자 환갑집도 다니지 말고, 문화재 사람 되라고, 나는 환갑집을 그렇게 댕겨서 그게 그렇게 죄가 된다면 안하겠다. 안비취 씨가. 이때까지 내가 댕기면서 일을 꾸며놨는데 언니가 가서 파토를 치면은 되겠느냐고. 내가 그래서 하도 내가 거기 댕겼다고 하도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한번 만나고, 문화재 안 해도 나 일없단 말이야. 문화재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단 말이야. 나 소리만 해서도 먹고 산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문화재 되면은 환갑집에 안 갈 수가 있느냐, 하면서 모를 수가 있느냐 갖은 소리를 다해요. 환갑집에 안 가면야... 살 수야... 곤란하겠지. 문화재 월급이라고 단 몇 푼이나. 그래도 안 댕긴다고 그랬어요, 환갑집에. 문화재 되면. 네. 절대로 안 댕긴다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와달라고 해도 안 갔죠.[76]

묵계월은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여러 경

76) 묵계월 구술채록 자료 1차(2012. 2. 2.)

기 소리 중에서 〈12잡가〉 종목이 지정되었다. 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던 부분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나, 판소리 열두 마당 등과 격을 맞추기 위해서 경기잡가도 〈12잡가〉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77]

당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12잡가〉는 정확하게 〈좌창경기긴잡가(12잡가〉라는 이름으로 명시되었다. 그리고 〈좌창경기긴잡가〉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조사보고서에는 이 종목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경기좌창긴잡가〉에 대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에 따른 자료를 조사한 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신청하는 바이다.
> 1. 〈좌창경기긴잡가〉는 서울을 중심으로, 그 일원에서 발생하여 다른 지방에서 볼 수 없는 경기특유의 풍토미가 흐르는 좌창으로서, 민속악의 가치가 있다.
> 2. 민요와 시조류창이나, 다른 창에서 볼 수 없는 〈경기좌창긴잡가〉만의 독특한 창조가 있다.
> 3. 전날에 이 좌창잡가는 직업적인 입창인立唱人에 비견하여, 평민들 사이에 순단치 못한 위치에서 줄기를 이어왔는데, 만근輓近 고악古樂을 소외疎外하는 시류 時流로 인하여, 이것이 인멸될 우려가 있다.
> 4. 〈좌창경기긴잡가〉는 이 지방의 고유한 민속음악의 하나이므로,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 본론을 참고하여 평의評議하여 주기를 바랍니다.[78]

1969년도에 작성된 위의 보고서를 토대로 문화재관리국에서는 1975년에 이 종목을 무형문화재로 인정하면서, 보유자로 묵계월・안비취・이은주 세 명창을 지정하였다. 그런데 무형문화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총 12개나 되는 잡가 중에서 '누가 어떤 잡가를 담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겼다. 한 사람이 4개의 잡가만을 선택해야만 했던 것이다. 여기서 먼저 안비취가 선택을 하였고, 묵계월과 이은주는 안비취가 선택하지 않은 잡가 중에서 다시 선택하여 나눠 가졌다. 묵계월과 이은주는 안비취의 결정에 그냥 따르는 분위기였다고

77) 이윤석, 앞의 글, 34쪽.
78) 문화재관리국 편, 좌창경기긴잡가(12잡가)」,『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57호, 1969년 10월, 357쪽.

한다. 그래서 먼저 선택한 안비취는 〈유산가 · 제비가 · 소춘향가 · 십장가〉를 담당하였고, 묵계월은 〈적벽가 · 선유가 · 출인가 · 방물가〉를, 이은주는 〈평양가 · 집장가 · 달거리 · 형장가〉를 맡았다.

이렇게 〈12잡가〉를 나눠 갖긴 했으나, 평소 본인들이 즐겨 부르지 않았던 곡들도 있어, 묵계월과 이은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약간의 불만은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묵계월은 본인이 맡았던 〈방물가〉를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연습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안비취가 가져간 잡가 중에서는 묵계월이나 이은주가 더 잘 부르던 곡도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러한 불만을 표현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다.

> 나누어 가질때? 불만을 해봤대자지. 자기가 뭐뭐 갖겠다고 그러고, 그 날 나누어 주는 거를 어떡하것어요? 섭섭한 점도 없지 않아 있죠. 있지만 그건 또 잠깐이고, 또 풀어져서 저거하고, 그러니까 그래, 노래를 그렇게 마음대로 자기가 뽑아서 갖고, 남은 거를 노나서 우리를 준다는 것이 조금 섭섭했죠.[79]

이 구술채록 자료를 통해 묵계월은 당시 〈12잡가〉를 나누어 가진 방법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인간문화재 보유자가 되고, 결정된 내용들은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묵계월을 비롯한 안비취, 그리고 현재 활동 중인 이은주는 공식적인 무대에서 각자 맡은 잡가 이외에 다른 사람의 잡가는 부르지 않았다. 이러한 모습은 후학을 양성할 때도 지켜지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모두

인간문화재 보유자가 되는 과정에서 서로가 약속을 한 부분이었다고 한다.

79) 묵계월 구술채록 자료 1차(2012. 2. 10.)

〈표와 그림12〉

| | |
|---|---|
| <br>제216호<br>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서<br>1975. 7. 12.<br>문화공보부 장관 이 원 경 | [제216호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서]<br>성명 : 이경옥(예명 : 묵계월)<br>위 사람을 중요무형문화재 제 57호<br>경기민요의 보유자로 인정함. |
| <br>제215호<br>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서<br>1975. 7. 12.<br>문화공보부 장관 이 원 경 | [제215호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서]<br>성명 : 안복식(예명 : 안비취)<br>위 사람을 중요무형문화재 제 57호<br>경기민요의 보유자로 인정함. |
| <br>제217호<br>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서<br>1975. 7. 12.<br>문화공보부 장관 이 원 경 | [제217호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서]<br>성명 : 이윤란(예명 : 이은주)<br>위 사람을 중요무형문화재 제 57호<br>경기민요의 보유자로 인정함. |

지금은 〈12잡가〉 모두 다 잘 해야 하기 때문에 구분 없이 다 배우고 있지만, 대회나 입시 때 보면 어느 집 제자인지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지정받은 곡을 가지고 나온다. 이것은 후학들을 지도할 때 우리 것부터 가르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인간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된 묵계월의 생활과 음악활동은 이전에 비해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 그 중에서 팸플릿과 이미지 사진을 통해 수상내역과 활동상황을 살펴보았다.

〈표13〉

| 일시 | 수상내역 | 인용 |
|---|---|---|
| 1975. 7. 12. |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 | 인정서 사진 |
| 1992. 11. 11. | 국악대상 수상 | 팸플릿 |
| 1995. 12. 27 | KBS국악대상 특별공로상 수상 | 팸플릿 |
| 1997. 10. 14 | 대한민국 보관문화훈장 | 팸플릿,사진 |
| 2000. 9. 1. | 제5회 소민연극상 수상 | 팸플릿 |
| 2004. 11. 19. | 제11회 방일영국악상 수상 | 팸플릿,사진 |

〈표14〉

| 일시 | 활동내역 | 인용 |
|---|---|---|
| 1975 | 경기12잡가 묵계월전수소 개설 | 팸플릿 |
| 1975 | 동아일보 주최 국악경연대회 심사위원 | 팸플릿 |
| 1979. 1 | 한국국악협회 고문 | 팸플릿 |
| 2003. 2. 28 | 경·서도 학회 고문 | 팸플릿 |

묵계월은 문화재 지정 이후 큰 상을 여러 번 받았다. 그중 1997년 10월 14일 문화의 날에 수상한 대한민국 보관문화훈장을 들고 가족들에게 축하를 받으며 찍은 사진이 제 11회 방일영국악상 수상 팸플릿에 실렸다.

〈표와 그림15〉[80]

1997년 문화의 날 보관훈장 수여식에서
가족과 함께

2004년 11월 19일 오후 4시. 조선일보사 정동 별관 7층 대강당에서 제11회 방일영국악상시상식이 열렸다. 이를 기념한 팸플릿에는 담월 묵계월이라는 이름으로 묵계월의 소리하는 모습이 표지에 담겨있다. 그리고 방일영문화재단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심사평과 축사, 묵계월의 수상소감, 수상

자 연보, 작품, 화보, 묵계월의 음악 세계, 경기소리 명창 묵계월, 나의 스승 묵계월, 역대 수상자, 심사위원으로 차례가 꾸려져 있었다.

묵계월의 수상소감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리 인생의 추억과 약속, 내일의 큰 울림을 위하여'

80여년의 세월을 따라온 소릿길 인생에서 오늘 뜻 깊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방일영문화재단이 지난 1994년 '국악의 해'를 기념하여 제정한 방일영국악상의 올해 수상자로 저를 선정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역대 수상자의 면면이 말해주듯 원로 국악 명인명창의 최고 명예상인 이번 국악상을 부족한 저에게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더욱 더 우리의 전통 문화 창달에 기여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소릿길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함께 하면서 생각나는 분은 무엇보다도 스승입니다. 잡가를 지도해주신 이광식 선생님, 주수봉 선생님, 김윤태 선생님, 〈풍등가〉나 〈금강산타령〉 같은 민요를 새로 만들어 유행 시킨 당대 민요의 대가 최정식 선생님, 희소성으로 인해 전통의 보존이 특히 요구되는 〈삼설기〉 〈짝타령〉 등을 지도해주신 이문원 선생님 등이 생각납니다. 내년이면 1975년 7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받은 지 만 30년이 됩니다. 지난 소리인생을 돌이켜보며, 앞으로 내가 어떠한 일에 기여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간 많은 제자

80) 제 11회 방일영국악상 팸플릿 25쪽

> 들을 양성하며, 경기소리의 전승과 보급에 힘쓰며, 보람과 의미를 많이 느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 둘 늘어나며 우리의 무형자산인 경기소리를 터득해 나갈 때마다, 수많은 무대에서 국악의 선·후배와 제자들과 함께 한 추억의 노랫가락은 즐거운 타령으로 곰삭았습니다.(중략)

묵계월의 수상자 소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묵계월은 스승에 대한 고마움이 절실했다. 실제로 묵계월의 스승에 대한 감사와, 존경하는 마음은 곁을 지키며, 많은 활동을 함께 해온 제자로서도 늘 느꼈던 부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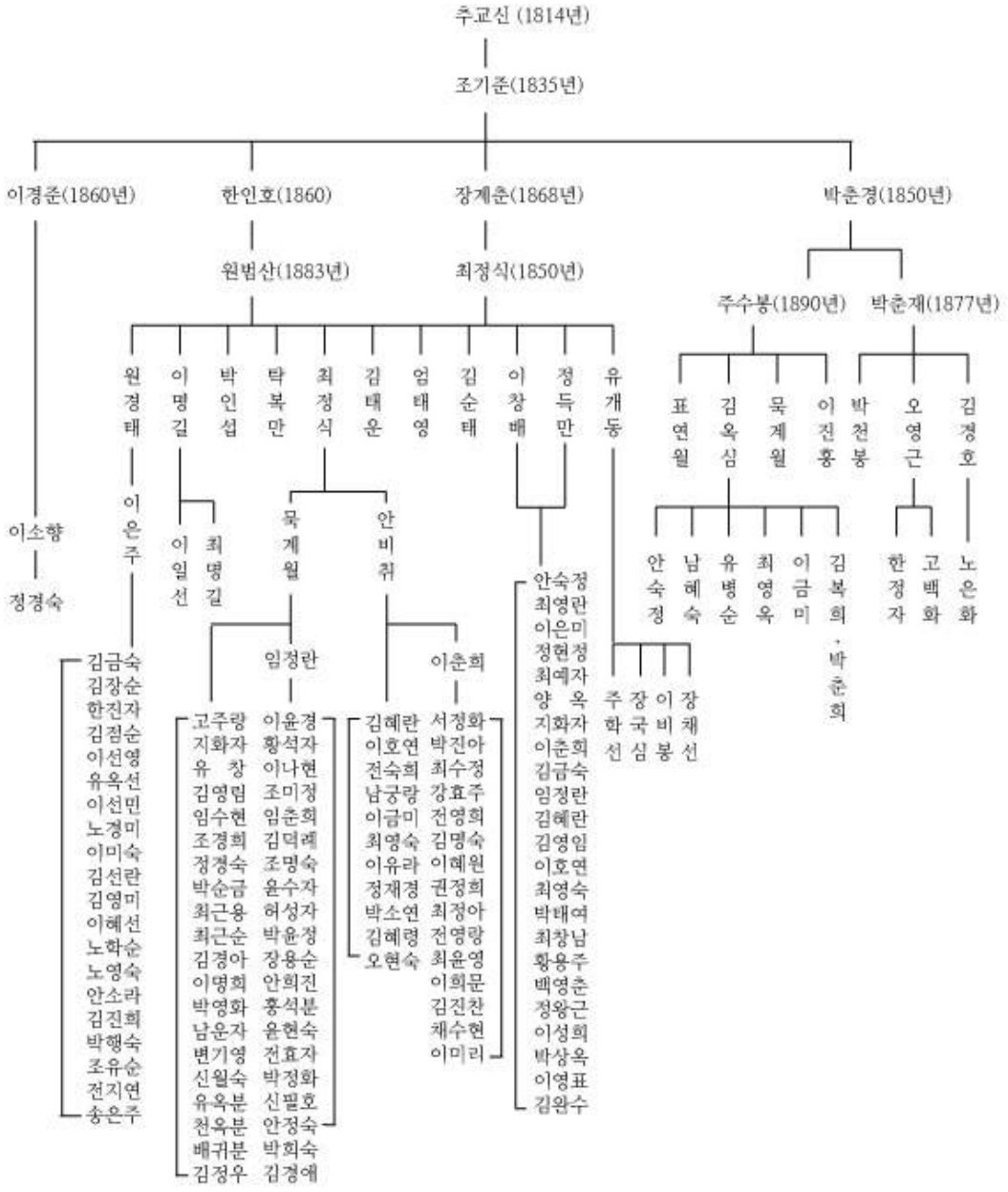
묵계월은 또한 제자들에 대한 배려도 대단하였다. 이 부분은 뒤에 후학양성에서 더 살펴보겠지만, 수상자 소감에서 뿐만 아니라, 연로한 나이에도 평소 후학들의 공연에는 늘 자리를 빛내 주시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런 묵계월 스승의 마음을 알고 있는 제자들 역시 묵계월의 공연에는 꼭 참석하였으며, 제 11회 방일영국악상 수상 팸플릿에도 '나의 스승 묵계월'이란 이름으로 축하의 마음도 전했다. 아래 표는 팸플릿에 실린 사진[p.74] 자료 중 몇 개만 소개하였다.

묵계월이 문화재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만난 예술적 동반자 핵심 3인은 지정 이후 오늘날까지도 경기민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명인들이다. 그리고 과거 경기민요에서도 마찬가지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묵계월의 문화재 지정이후 활동들은 좀 더 자세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경기민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고자, 경기민요와 관련된 사승 및 인적 계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와 그림16〉

왼쪽부터-박예진,이상은정경숙,묵계월,유창,장세은,김도희

〈표 17〉[81]




81) 반재식,『재담천년사』, 백중당, 2000. 258쪽.
경기도국악당 편,『경기잡가』, 경기도국악당, 2006. 472쪽.
권오성,「박춘재·이창배 선생이 경기도 소리에 끼친 업적」,『1회 경기민요학술대회 박춘재와 그의 시대』 학술대회집, 9쪽.

## 2. 무대공연 및 음반활동과 민속공연활동

### 1) 무대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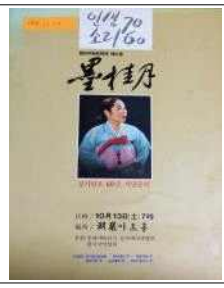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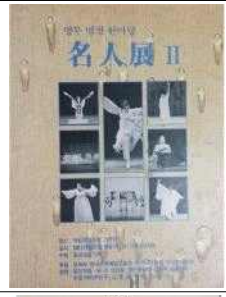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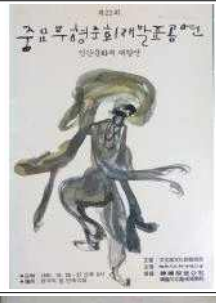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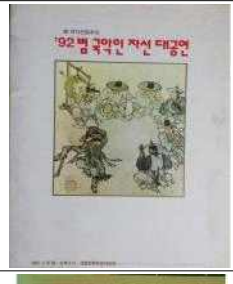
1975년 중요무형문화재 57호 보유자가 된 묵계월의 무대공연은, 그 이전에 비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무엇보다 환갑집이나, 잔칫집 공연을 하지 않았으며, 주로 무대공연 및 음반활동과 민속공연활동을 많이 펼쳤던 것이다. 물론 그밖에 음악활동들도 활발해졌으며, 특히, 무대공연들은 많은 후원과 무대시설들이 늘어나면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문화재 지정 이후 묵계월의 무대공연을 알아보기 위해, 공연 당시 제작했었던 팸플릿을 정리하여, 이미지사진, 혹은 정보를 찾아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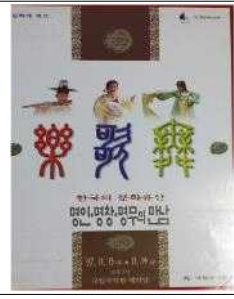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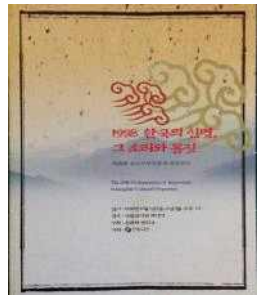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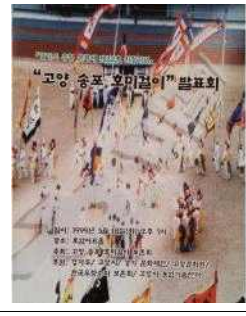
**〈표와 그림 18〉**

| 일시 | 공연활동 | 인용 |
|---|---|---|
| 1975. | 민속촌 묵계월, 고백화, 안비취 | |
| 1975. | 문화재 지정 후 첫 발표회 | |
| 1978. | 장충체육관 | |
| 1981. 8.23. | 제1회 대한민국 국악제 | 팸플릿 |

| | | |
|---|---|---|
| 1981. 10.26. | 중요무형문화재 발표 공연 | 팸플릿 |
| 1985. 4.22. | 한국민속운학회연<br>-일·한친선문화교류 | |
| 1985. 4.22.~26. | 제5회 대한민국 국악제 | |
| 1987. 4.17.~23. | 제18회 중요무형문화재발표공연<br>인간문화재대전 무대종목 | |
| 1987. | 조선일보 주최 명인명창대회<br>출연 | 팸플릿 |
| 1987. 11. 25. | 제4회 전수생 발표회 | 팸플릿 |
| 1988.9.15~10.5. | 올림픽 시민축제 민속마당놀이 | |
| 1990. 9.8.~13. | 제10회 대한민국 국악제 | |

| | | |
|---|---|---|
| 1990. 10.13. | 묵계월 인생 칠십 소리 육십 발표회 |  |
| 1990. | 국립 국악관현악단과 십이잡가 협연 | 팸플릿 |
| 1991. 6. 27,28. | 명무 명창 한마당 명인전 2 |  |
| 1991. 10. 26,27. | 제22회 중요무형문화재 발표 공연 |  |
| 1992. 3. 8. | 고 국악선열추모 '92범국악인자선대공연' |  |
| 1992. 5. 27. | 이동안(운학)의 춤세계 중요무형문화재 제79 발탈발표회 | |

| | | |
|---|---|---|
| 1993. 9. 24. | 가을맞이- 국악한마당 | |
| 1993. 12. 27,28. | 제24회 중요무형문화재 발표공연 | |
| 1994. | 경기국악축제 | 팸플릿 |
| 1994. 11. 13. | 지화자의 우리 멋 우리 가락 | |
| 1995. 9. 16. | 묵계월 끝없는 소리의 길 발표회 | |
| 1995. 9.21.~24. | 광복 50주년 기념 민속종합예술제 | |
| 1996. 10. | 제27회 중요문화재 발표공연 | 팸플릿 |

| | | |
|---|---|---|
| 1997. 6. 27. | 인간문화재 페스티벌 | 팸플릿 |
| 1997. 11. 13,14. | ‘한국의 문화유산-명인명창 명무의 만남’ 공연 |  |
| 1998. 4. 21. | 제18회 대한민국 국악제 | 팸플릿 |
| 1998. 10. 14,15. | 중요무형문화재 무대종목 대제전 | |
| 1998. 11. 1,2. | ‘한국의 신명, 그 소리의 몸짓’ 공연 |  |
| 1995. 5. 18. | ‘고양 송포 호미걸이’ 발표회 |  |

| | | |
|---|---|---|
| 1999. 9. 19. | 삼설기의 밤 | |
| 1999. 11. 27. | 묵계월 경기소리 및 삼설기 발표회 | |
| 2001. 12. 21. | 전통국악예술대공연 | |
| 2003. 6. 3. | 유창 경기소리 발표회 | 팸플릿 |
| 2003. 6. 9. | 십이잡가 발표회 | 팸플릿 |
| 2003. 10. 29. | '명인의 후예 대를 잇는다' | 팸플릿 |
| 2003. 10. 26. | 강규화의 가을밤 국악의 대향연 | 팸플릿 |
| 2004. 7. 18. | 소리극(춘향전,맹인굿) 발표회 | |
| 2004. 10.30. | 한국국악협회홍천군지부 제6회 정기공연 | 팸플릿 |
| 2005. 11.20 . | 유창의 경기예음 한강수야 | 팸플릿 |

| | | |
|---|---|---|
| 2006. 7. 12. | 경기민요 국창3형제분 묵계월. 이은주. 안비취 | |
| 2007. 11.17. | 유창의 경기소리극 한강수야 | 팸플릿 |
| 2009. 4. 26. | 경기명창 고주랑의 소리발표회 | 팸플릿 |
| 2014. 3.12~14. | 동상건립추진 기념공연 '設立者들' | |

〈표19〉

| 일시 | 해외공연 | 인용 |
|---|---|---|
| 1985. 4. 22. | 한국민속예능 일본 공연 | |
| 1986.11. 15. | 재미국악협회 제2회 정기공연 안비취,묵계월 초청 공연 | |

위 표는 묵계월의 1975년부터 2014년 5월 2일 타계하기 전까지의 무대공연들을 모두 담고 있다. 묵계월의 가장 최근까지의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매우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묵계월의 무대공연 중에는 1975년에 열린 인간문화재 지정 이후 첫 발표회를 시작으로 문화재 지정 이후에만 볼 수 있는 공연들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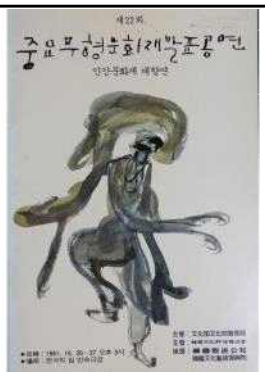
그중 제 1회 대한민국 국악제를 들 수 있는데, 이 공연은 매년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위 정리 된 표에는 제 1회, 5회, 10회, 18회만 소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표에 정리된 공연들보다 더 많은 공연활동들이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 확실하게 자료화 할 수 있는 정보는 바로 위의 내용들이다. 본 연구자가 묵계월 스승님을 모시면서 함께 활동해 온 여러 공연들과 이를 기억해주는 팸플릿이 그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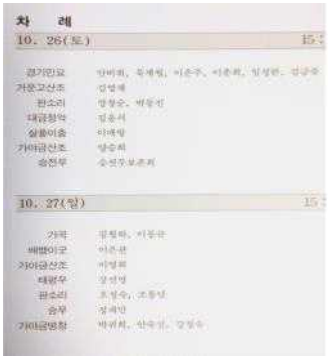
묵계월이 문화재 지정 이후에만 보여주는 무대공연 중에는 1981년 10월 26일 중요무형문화재 발표공연이 있다. 이 무대공연 역시 문화재 지정 이후 가장 큰 변화를 알려주는 공연으로, 1987년 18회, 1991년 제 22회, 1993년 제 24회, 1996년 제 27회를 살펴 볼 수 있다. 그 중 1991년 10월 26∽27일에 있었던 제 22회 중요무형문화재 발표공연을 살펴보았다.

1997년 10월 26일∽27일 이틀 동안 오후 3시 한국의 집 민속극장에서 제 22회 중요무형문화재 발표공연이 개최되었다. 이 공연의 팸플릿에는 한국문화재보호협회 이사장 박호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틀간의 공연 일정이 차례에 정리되어 있다. 묵계월은 여기서 10월 26일 토요일 첫날 3시에 공연을 하였다. 이 공연에서는 안비취 · 묵계월 · 이은주 · 이춘희 · 임정란 · 김금숙 총 3명의 보유자와 3명의 보유자후보가 경기민요를 공연하였다.

공연의 구성은 〈경기민요 · 거문고 산조 · 판소리 · 대금정악 · 살풀이춤 · 가야금산조 · 승전무〉였으며, 27일 일요일 3시 공연은 〈가곡 · 배뱅이굿 · 가야금산조 · 태평무 · 판소리 · 승무 · 가야금병창〉을 공연하였다. 좀더 살펴 본 팸플릿 이미지 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와 그림20〉



〈위 사진〉 보 유 자 : · 이은주 · 안비취.
보유자후보 : 임정란 · 이춘희 · 김금숙.
반 주 : 최창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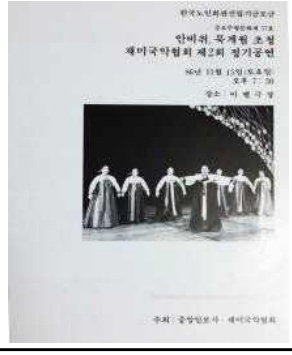
또한, 이 발표 공연은 인사말씀을 통해 그 성격을 엿 볼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그 동안 〈인간문화재대전〉이라는 이름으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대종목의 원형보존 상태를 점검하고, 전수상태를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었던 것과 다르게, 공연위주로 전환한 〈인간문화재대향연〉으로 바꾸어, 전통문화예술의 활성화와 보급측면에 주력하였다.
>
> - 한국문화재 보호협회 이사장 박호준 인사말씀 -

다음으로 묵계월의 문화재 지정이후 무대공연으로 1985년 4월 22일 오후 3시 일관불민회관에서 동해신보사가 주최하는 한국민속운학회연 - 일·한 친

선문화교류공연이 있다. 이 공연의 주된 목적은 한국과 일본이 친선문화교류를 하는데 있었으며, 이렇게 일본과의 친선문화를 위해 공연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국악을 비롯해, 경기민요가 문화재지정 이후 국제적으로도 많이 알려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예로 바로 다음 해에 열린 안비취·묵계월 초청 재미국악협회 제2회 정기공연을 볼 수 있다.

〈표와 그림21〉



위 표와 그림은 1986년 11월 15일 오후 7시 30분, 미국 LA이벨극장에서 열린 해외공연이다. 중앙일보사와 재미국악협회가 주최한 공연으로 한국 노인회관 건립기금 모금을 위한 무형문화재 57호 안비취·묵계월 초청 재미국악협회 제2회 정기공연이다. 이 공연은 1부·2부로 나누어 공연하였으며, 경기민요를 〈산염불〉과 〈노랫가락〉 외 – 안비취·묵계월·이춘희·임정란·남궁랑이 불렀다.

이 공연은 교포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한국 노인 회관 건립문제가 한인사회의 이슈로 등장하면서, 그 건립기금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모금운동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중요무형문화재 57호 안비취·묵계월을 초청하여, LA에서 국악대향연을 펼친 것에 대해 대단히 보기 드문 공연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본 행사의 전액을 노인회관건립기금으로 희사한다.'라고 팸플릿 자료에 기록되어 있다.

묵계월이 문화재 지정 이전에 자주 섰던 명인 명창대회 성격으로 문화재

지정 이후에도 이어져 갔다. 바로 1987년 조선일보 주최로 열린 명인명창대회를 비롯해, 1991년 6월 27일~28일 열린 명무 명창 한마당, 명인전 2, 그리고 1997년 11월 13~14일에 열린 한국의 문화유산 명인명창 명무의 만남 공연이다.

예전과 달리 명무라는 호칭이 붙으면서, 역시 공연의 프로그램이나 출연진들의 규모도 확실히 커졌다. 물론 이 때 당시의 모든 공연들이 문화재 지정이후 후학양성, 곧 전수자와 이수자가 많아지면서 다양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이게 된 점도 간과看過할 수 없는 발전적 모습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문화재 지정 이전과 이후로 변화된 공연들은 출연진들을 포함하여 모두 발전된 모습을 보였고, 다양한 목적으로 공연활동을 펼쳤던 것이다. 여기서 1993년 가을맞이 국악한마당 같은 공연은 문화재 지정 이전 1967년 4월 20일 봄맞이 공연과 비슷한 목적을 가졌을 것이다. 이러한 공연과 앞에서 살펴본 해외공연에서 어떠한 기금을 모금할 목적으로 한 공연들은 민속공연과 많은 유사점을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살펴 볼 민속공연에서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묵계월의 문화재 지정이후 공연 중에는 묵계월의 독보적인 공연활동을 눈여겨 볼 수 있었다. 이런 점을 잘 보여주는 1990년 10월13일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중요무형문화재 제 57호 묵계월「인생 70, 소리60, 경기민요60년 기념공연」이 있다.

이 공연은 1990년 10월 13일 오후 7시 서울 호암아트홀에서 문화재관리국, 문화재보호협회, 한국국악협회의 후원으로 [인생70 소리60 묵계월 경기민요60년 기념공연]이 개최되었다. 출연진은 묵계월을 비롯하여 그의 제자들이 총출연하였다. 함께 출연한 제자들은 임정란·고주랑·임수현·조경희·정경숙 외 특별출연으로 안비취·이은주·지연화·지화자, 그리고 찬조출연으로 무용 임이조·진유림이 출연하였다.

이 공연은 '유한의 여생을 정진하려 합니다.' 라는 인사말을 시작으로 여러 제자들과 경기민요의 벗과 같은 인간문화재 보유자 이은주·안비취들과 함께 큰 무대를 만들었다.

〈표와 그림22〉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진 묵계월의 공연으로 ‘묵계월, 끝없는 소리의 길’ 발표회가 있었다. 이 공연은 [묵계월 1995, 끝없는 소리의 길]로 1995년 9월 16일 오후 7시 호암아트홀에서 열렸다.

묵계월은 제자인 임정란과 〈지화자〉와 〈노랫가락〉 〈창부타령〉을 부르고, 제자 정경숙 · 조경희 · 강정애가 〈궁초댕기〉를 부르며 공연을 펼쳤다. 이 공연 역시 묵계월의 인사말에서 이 공연의 의미를 알 수 있었다.

> 한평생을 변함없이 저를 아끼고, 제 소리를 들어주시는 여러분을 한자리에 모시고 ‘소리잔치’를 벌여, 그 고마움에 보답하려는 소박한 마음에서입니다. 첫째로 부족함에 대한 반성이요, 두 번째로 당대 〈12잡가〉의 일인자인 주수봉·최정식 선생과, 송서의 대가인 이문원 선생께 소리를 전수받아, 외길 인

생으로 소리생활을 해온 것을 계승 보전하고 싶은 욕심이요. 세 번 째는 여러분에 대한 고마움입니다.

- 묵계월 인사말씀-

〈표와 그림23

이 뿐만 아니라, 팸플릿에는 묵계월의 약력에 수상경력과 활동상황을 실어 묵계월의 그동안의 활동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평전과 축사를 통해 묵계월이 얼마나 대단한 소리꾼으로 인정받고 있는가를 절실히 알 수 있었다.

그 밖에 묵계월의 무대공연에는 당시 독보적이었던 〈삼설기〉를 발표하는 1999년 11월 27일 [묵계월 경기소리 및 삼설기 발표회]와, 그 이전인 1999년 9월 19일 [삼설기의 밤], 그리고 이후 〈삼설기〉를 전수받은 유창의 2005년 [유창의 경기예음 한강수야]와, 2007년 [유창의 경기소리극 한강수야]에 출연해 〈삼설기〉 전승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묵계월이 타계하기 전, 마지막 공연으로 2014년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 국립극장 해오름에서 열린 [박춘재・이창배・안비취 동상건립추진 기념공연] '설립자들'이 있다.

〈표와 그림24〉

이 공연은 박춘재·이창배·안비취 동상건립추진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사)한국전통민요협회가 주관하였으며, 문화재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사)한국국악협회에서 후원하였다. 이 공연에서는 연로한 묵계월을 대신해 그의 제자들 정경숙·최은호·최근순·임춘희·이명희·박윤정·남은혜·박영실·박매자·신월숙·강명자·천옥분·배귀분·김정희 등이 총 출동하여 화려한 공연을 펼쳤다. 이 공연의 특징은 고 박춘재·이창배·안비취의 동상건립추진을 기념하기 위한 공연으로 묵계월·안비취·이은주 인간문화재 보유자의 제자들이 대거 출연하여, 스승님들에게 사사받은 기량들을 마음껏 발휘하였다는 점이다.

이렇게 묵계월의 문화재 지정 이후의 무대공연은 경기민요가 문화재 지정이 된 이후 변화된 모습과 같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은 묵계월의 무대

공연이 곧 그때 당시의 경기민요의 공연들이며, 중요무형문화재 57호 인간문화재 보유자인 묵계월의 소리 인생이 경기민요의 길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할 것이다.

### 2) 음반활동

묵계월이 인간문화재 보유자가 되면서, 경기민요의 모든 음악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런 점은 음반활동에서도 잘 나타나있다. 특히, 이전에는 SP나 LP가 주로 음반활동이었다면, 1975년 이 후에는 음반제작의 발전에 따라 CD음반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아래의 표는 묵계월의 음반활동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다.

〈표25〉

| 날짜 | 음반 | 연주자 및 내용 | 제작사 | 인용 |
|---|---|---|---|---|
| 1975년11월20일재판제작1975월12월20일삼판제작 | 한국민요집 제1집 | 김옥심·이은주·묵계월 | 신세계레코드사/힛트레코드사 |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관리번호 MI12LP-0861(삼판),MI12LP-0862(재판) |
| 1976년3월2일 제작. | 한국민요 제2집 | 이은주·묵계월·김세레나 | 아세아레코드사 | 국악음반박물관소장관리번호MI12LP-0921 |
| 1976년 STEREO 녹음 제작. | 한국민요편창부타령 전집 | 이은관·묵계월·고백화·이은주·지화자 | 힛트레코드사 | 국악음반박물관 소장관리번호 MI12LP-0902 |
| 1976년STEREO 녹음, 1976년10월30일초판제작 | 흥겨운 가락 우리 민요 제2집 | 이은주·지화자·묵계월·고백화 | 힛트레코드사 | 국악음반박물관소장관리번호MI12LP-0904(초판),MI12LP-0905(재판) |
| 1976년STE | 흥겨운 | 이은주·지화자· | 힛트레코드사 | 국악음반박물관 |

| | | | | |
|---|---|---|---|---|
| REO 녹음, 1976년10월 30일 초판 제작, | 가락 우리 민요제3집 | 묵계월·고백화 | | 소장 관리번호 MI12LP-0906 |
| 1976년초판 제작,197년 9월재판제작, 1978년 8월23일삼판 제작. | 한국민요특선집 제2집 | 이은주·묵계월 | 신세계레코드사 | 국악음반박물관 소장관리번호MI12LP-0912(재판), MI12LP-0913~0914(삼판) |
| 1976년8월 23일 초판 제작,1977년 9월재판제작,1979년 3월22일 삼판 제작. | 한국민요특선집제3집 | 이은주·묵계월 | 신세계레코드사 | 국악음반박물관소장관리번호MI12LP-0915(삼판),0917~0918(초판),0919(재판) |
| 1977년8월 재판 제작. | 한국민요특선집제1집 | 이은주·묵계월 | 신세계레코드사 | 국악음반박물관소장관리번호MI12LP-0910(재판 |
| 1970년대 초반스테레오녹음,1978년 10월 20일 제작. | 회심곡, 대감놀이 | 묵계월·이은주 | 대한음반제작소 |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관리번호 MI12LP-0903 |
| 1976년녹음 1988년제작 | 국악의향연 | 경기잡가(안비취,묵계월이은주),남도들노래(설재천 조공례 외) | (주)서울음반 |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관리번호 MI12LP-0302~0303 |
| 1976년녹음 | 한국전통음 | 안비취 | 한국문화재보 | 국악음반박물관 |

| | | | | |
|---|---|---|---|---|
| 1980년10월20일제작 1981년1월 초판 발매 | 악대전집 | 묵계월이은주 경기잡가 | 호협회 / 지구레코드사 | 소장 관리번호 MI12LP-1729, MI12LP-1739(동일반 2장) |
| 1977년STEREO 녹음, 1977년7월 25일 제작. | 묵계월민요 특선집 | 묵계월 | 오아시스레코드사 |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관리번호 MI12LP-1860 |
| 1978년STEREO 녹음, 1978년9월 1일 제작. | 창부타령 | 묵계월·지화자 | 유니버살레코드사 |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관리번호 MI12LP-0934 |
| 1979년 녹음 | 명창묵계월 경기12잡가완창전집 | 묵계월(장고:이소향) | 대도레코드사 | 국악음반박물관 |
| 1979년STEREO 녹음, 1979년1월 26일 제작 | 창부타령, 노래가락 | 안비취·묵계월·이은주 | 오아시스레코드사 |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관리번호 MI12LP-1852 |
| 1979년STEREO 녹음, 1979년3월 22일 제작. | 흥겨운창부타령 전집 | 이은주·묵계월 | 신세계레코드사 |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관리번호 MI12LP-0920 |
| 1979년STEREO 녹음, 1979년9월 15일 제작 | 한국민요 제1집(우리가락우리민요) | 이은주·김옥심·지연화·묵계월 | 힛트레코드사 |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관리번호 MI12LP-0864 |
| 1979년STEREO 녹음, 1979년9월 15일 제작 | 한국민요 제2집(우리가락 우리민요) | 이은관·묵계월·지연화·이은주·이은미·김옥심 | 힛트레코드사 |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관리번호 MI12LP-0865 |

| | | | | |
|---|---|---|---|---|
| 1979년STEREO 녹음, 1979년9월 15일 제작 | 대감놀이 | 지연화·묵계월·이은주·김옥심·이은관·이은미 | 힛트레코드사 |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관리번호 MI12LP-0867 |
| 1979년STEREO 녹음, 1979년7월 20일 초판 제작,1982년 9월20일 재판 제작. | 한국고전민요 제1집 | 안비취·묵계월·이은주 | 한국음반(주) |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관리번호 MI12LP-0926(재판),0927(초판) |
| 1979년STEREO녹음, 1982년9월 20일 제작. | 한국고전민요 제2집 | 안비취·묵계월·이은주 | 한국음반(주) |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관리번호 MI12LP-0928 |
| 1979년STEREO 녹음, 1982년9월 20일 | 한국고전민요 제3집 | 안비취·묵계월·이은주 | 한국음반(주) |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관리번호 MI12LP-0929 |
| 1979년STEREO 녹음, 1982년9월 20일 제작. | 창부타령 전집 | 안비취·묵계월·이은주 | 한국음반(주) |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관리번호 MI12LP-0930 |
| 1980년제작 | 한국전통악 | 정득만 이창배 이은주 묵계월 김정연 성우향 | 미국 뉴욕 한국문화원 제작 전집 | 국악음반박물관소장관리번호MI12LP-0187~0201(15LP |
| 녹음시기 미상, 1981년 2월2일제작 | 한국민요 제1집 | 이은주·묵계월·이은관 | 아세아레코드 |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관리번호 MIMC-0435 |
| 녹음시기 | 국악대전집 | 잡가-이은주· | 아세아레코드 | 국악음반박물관 |

| | | | | |
|---|---|---|---|---|
| 미상,1985년5월15일 제작 | (5) | 심명화·안비취·이은관·김옥심·묵계월 | | 소장 관리번호 MIMC-0461 |
| 1985년 5월 15일 제작. | 국악대전집 (6) | 잡가-김옥심·묵계월 | 아세아레코드 |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관리번호 MIMC-0462 |
| 1985년 10월 5일 제작 | 한국음악선집 제 1집 | 유산가(묵계월),앞산타령(이창배·유개동·김순태·정득만) | 국립국악원 기획,(주)성음 제작·발매 |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관리번호 MIMC-0811~0813 |
| 1985년 10월 5일 제작 | 한국음악선집 제 2집 | 초한가(김정연) 경발림(이창배·묵계월·안비취) | 국립국악원 기획,(주)성음 제작·발매 | 국악음반박물관소장관리번호MIMC-0814~0816 |
| 1985년 10월 26일 제작 | 한국음악선집 제 3집 | 제비가(묵계월), 제전(김정연) | 국립국악원 기획,(주)성음 제작·발매 | 국악음반박물관 소장관리번호MIMC-0817~0819 |
| 1985년 제작 녹음시기 미상. | 한국의 전통음악 (18) | 백운선·주학선·지연화·심명화·묵계월·김옥심·이은주·이진홍·장국심 외 - 경기민요 | 기획·녹음제공:국악보급진흥회,제조:대도레코드사 공급:세화음악사, |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관리번호 MIMC-0899 |
| 1985년 제작. 녹음시기 미상. | 한국의 전통음악 (22) | 윤일지홍 묵계월 유개동 안비취 이은주 이창배 - 경기좌창 | 기획·녹음제공:국악보급진흥회,제조:대도레코드사 공급:세화음악사, |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관리번호 MIMC-0903 |
| 1985년 제작. 녹음시기 | 한국의 전통음악 (23) | 유개동 안비취 묵계월 윤일지홍 | 기획·녹음제공:국악보급진흥회,제조: |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관리번호 MIMC-0904 |

| | | | | |
|---|---|---|---|---|
| 미상. | | 이창배 오복녀 김정연 김수영 - 민요 | 대도레코드사 공급:세화음악사, | |
| 1985년 제작. 녹음시기 미상. | 한국의 전통음악 (24) | 이정열,이반도화,묵계월,주학선,최경명,김순태,윤종필,이창배, 이은관 - 서도 좌창 | 기획·녹음제공:국악보급진흥회,제조:대도레코드사 공급:세화음악사, |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관리번호 MIMC-0905 |
| 1987년녹음 1988년제작 | 경기민요 12창 | 안비취,묵계월,이은주 | 지구레코드 | 국악음반박물관소장관리번호MI12LP-0172~0174 |
| 1989년STEREO 녹음, 1989년8월 30일 제작 | 한국음악선집 제18집 | 이은주 묵계월 안비취 김금숙 임정란 이춘희 -경기 12잡가 | 지구레코드 | 소장 이미지자료. |
| 1990년 녹음 제작 | 명창묵계월 경기민요집 | 묵계월 | 대도레코드사 |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관리번호 MIMC-0501 |
| 1990년 10월 13일 제작. | 명창묵계월 경기12잡 가완창전집 | 묵계월(장고:이소향) | 대도레코드사 | 국악음반박물관소장관리번호MIMC-0499~0500 |
| 1993년녹음 1994년2월 15일 제작. | 한국전통음악시리즈 제1집 한국민요 | 묵계월 | 지구레코드 |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관리번호 MI12LP-0935 |

〈표26〉

| 날짜 | CD음반 | 제작사 | 인용 |
|---|---|---|---|
| 1979년 | 인간문화제 명창 묵계월 경기12잡가 | 대도 레코드사 | |
| 2006.3.4 | 한국전래민요(경기.서도민요) | 사)한국음반산업협회 | 팸플릿 |
| 2007.5.1 | 송서<br>추풍감별곡/송서삼설기 | 사)한국음반산업협회 | |
| 2007.4.24 | 서도잡가-묵계월.김옥심.이은관.김순태외 | 사)한국음반산업협회 | 팸플릿 |
| 2007.4.24 | 묵계월노랫가락전집 | 사)한국음반산업협회 | 팸플릿 |
| 2007.4.24 | 명창민요집 | 사)한국음반산업협회 | 팸플릿 |
| 2007.5.1 | 경기민요향연 | 사)한국음반산업협회 | |

묵계월의 문화재 지정 이후 음반활동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문화재 지정 이전에 제작하였던 음반을 다시 재판하거나, 조금 다르게 하여 제작한 것을 볼 수 있었다. [한국민요집 제1집]과 [한국민요집 제2집]을 보면 1960년대 초

반에 녹음, 제작한 음반을 제판한 것으로 다만, 제작사가 신세기축음기주식회사에서 신세계레코드사/힛트레코드사, 그리고 아세아레코드사로 바뀌었다.

[한국민요집제1집]은 가창자가 이전과 같으나, [한국민요집 제2집]은 묵계월 · 이은주는 같으나, 김옥심 대신 김세레나가 함께 했다. 그리고 1981년 2월 2일 [한국민요 제1집]이라는 조금 다른 제목으로, 같은 아세아레코드사에서 제작하였다. 이때의 출연진에는 이전에 김옥심을 제외하고, 대신 이은관이 참여하였다.

1976년 녹음, 제작한 [한국민요편 창부타령전집] 또한, 1970년에 녹음하여 1971년 제작한 음반으로, 제작사가 프린스음반제작소였던 이전과 달리 힛트레코드사로 바뀌고, 가창자가 지화자 명창이 추가되었다.

[한국민요특선집 제1집]과 [한국민요특선집 제2집], [한국민요특선집 제3집]또한 1973년에 제작하였던 음반들이다. [한국민요특선집 제1집]은 1977년에 다시 제작되고, [한국민요특선집 제2집]은 1976년, 1978년, 1979년 다시 3판 제작되었고, [한국민요특선집 제3집]은 1976년, 1977년, 1979년에 3판 제작되었다. 가창자들은 대부분 같았으나, 몇몇 가창자들이 빠졌다.

[한국음악선집 제1집]과 [한국음악선집 제2집], [한국음악선집 제3집]도 마찬가지의 경우이다. [한국음악선집 제1집]은 1972년 녹음만 한 음반을 1985년에 제작한 것으로, 제작사와 가창자가 모두 같고, [한국음악선집 제2집]은 1973년 지구레코드에서 녹음, 제작하였던 것을 같은 시기에 국립국악원과 (주)성음에서 녹음만 하였다가 1985년에 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창자도 몇몇 추가되거나 바뀌었다. 그리고 [한국음악선집 제3집]은 1974년 녹음만 하였던 것을 1985년 제작하였다. 기획사와 가창자는 모두 같았다.

이렇게 묵계월의 음반활동은 문화재 지정 이후 다시 재판되거나, 녹음만 되었던 음반들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그 만큼 문화재 지정 이후 묵계월의 활동이 커졌으며, 이전에 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경기민요의 명창으로 그 위상이 높아짐을 짐작해 볼 수 있겠다.

물론, 이렇게 재판한 음반활동만은 아니었다. 새롭게 탄생하여 묵계월 음악활동을 알려주는 음반들도 많았다. 그중에서 본 연구자가 소장하고 있는 음반을 이미지 사진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해 보았다.

첫 번째는, 1977년 오아시스레코오드사에서 제작한 인간문화재 보유자 제57호 墨桂月 [창부타령, 노랫가락] 이다.

〈표와 그림27〉

| SIDE 1 | SIDE 2 |
|---|---|
| 1. 창부타령 | 1. 노랫가락 |
| 2. 양산도 | 2. 청춘가 |
| 3. 박연폭포 | 3. 밀양아리랑 |
| 4. 군밤타령 | 4. 한오백년 |
| 5. 닐니리야 | 5. 강원도아리랑 |
| 6. 한강수타령 | 6. 잦은방아타령 |
| 7. 뱃노래 | 7. 신고산타령, 궁초댕기 |
| 8. 잦은뱃노래 | 8. 둥그레당실 |

두 번째는 1979년 녹음하고, 1982년 9월 20일 제작된 [韓國古典民謠第二集(한국고전민요 제2집)]이다. 이 음반은 [HKR]한국음반(주)가 제작하였고, 가창자는 인간문화재 보유자 안비취·묵계월·이은주이다.

〈표와 그림28〉

| SIDE 1 | SIDE 2 |
|---|---|
| 1. 창부타령 | 1. 방아타령 |
| 2. 사발가 | 2. 사설방아타령 |
| 3. 자진뱃노래 | 3. 담바귀타령 |
| 4. 양산도 | 4. 몽금포타령 |
| 5. 난봉가 | 5. 오돌또기 |
| 6. 자진난봉가 | 6. 강원도아리랑 |
| 7. 신고산타령 | 7. 수심가 |

세 번째는 지구레코드에서 1976년 녹음, 1981년 3월 20일에 제작한 [韓國傳統音樂大全集(한국전통음악대전집 17집)이다. 이 음반의 가창자는 안비취/묵계월/이은주이다.

〈표와 그림29〉

| | | |
|---|---|---|
| SIDE 1 | 京畿雜歌(1) | 1.遊山歌 2.제비가 3.小春香歌 |
| SIDE 2 | 京畿雜歌(2) | 1.執杖歌 2.刑杖歌 3.船遊歌 4.平壤歌 5.出引歌 |

네 번째는 지구레코드에서 1989년 녹음하고 제작한 [韓國音樂選集(한국음악선집) 第18集] 이다. 이 음반은 國立國樂院發行(국립국악원 발행),과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에서 기획하였다. 연주자들은 묵계월, 안비취, 이은주, 이춘희, 임정란, 김금숙이다.

〈표와 그림30〉

다섯 번째는 힛트레코드사가 제작한 풍류風流따라 삼천리三千里 [흥겨운 우리民謠 제2집]이다. 이 음반은 녹음, 제작시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었다.

〈표와 그림31〉

| | |
|---|---|
| A面 | 〈창부타령〉 이은주, 고백화, 묵계월, 이은관, |
| B面 | 〈경복궁타령〉, 〈닐늬리야〉, 〈몽금포타령〉 |

여섯 번째는 신향레코드가 제작한 묵계월의 楚漢歌(초한가)이다. 이 음반역시 녹음, 제작시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었다.

〈표와 그림32〉

1. 초한가 2. 제비가 3. 제전 4. 유산가 5.선유가

일곱 번째는 [HKR]한국음반(주)가 제작한 [唱夫打令全集(창부타령전집)]이다. 이 음반은 1979년에 녹음하여, 1982년 9월 20일에 제작하였다.

〈표와 그림33〉

가창자는 인간문화재 보유자 안비취, 묵계월, 이은주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음반들에서 알 수 있듯이 묵계월의 음반에서는 그때 당시 인간문화재 보유자였던 이은주 · 안비취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은주는 묵계월의 모든 음반에 함께 했다고 보아도 될 만큼 왕성한음반활동을 하였으며, 이은주를 제외하고 안비취만 함께 참여한 음반은 [한국음악선집 제 2집]과 [한국의 전통음악 23집]이었다. 그리고 인간문화재 보유자 묵계월 · 안비취 · 이은주 세명의 명창이 함께한 음반들은 [한국전통음악대전집], [창부타령, 노랫가락], [한국고전민요 제1집], [한국고전민요 제2집], [한국고전민요 제3집], [창부타령전집], [국악대전집 5], [한국의 전통음악 22], [경기민요12창]이 있었다.

이렇게 가창자들을 살펴보면서 당시 인간문화재 보유자인 묵계월 · 이은주 · 안비취를 찾아보는 이유는 이 세분의 명창이 경기민요의 큰 스승이자 커다란 거목이며, 함께 경기민요연구회를 결성하여 문화재 지정이 되고 오늘날의 경기민요를 전승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 3) 민속공연 활동

지금까지는 묵계월의 경기민요 활동에 대해서 주로 큰 공연무대와 음반활동들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그런데 묵계월의 구술채록 자료 와 염창순[82]의

민속공연 초대권을 통해서 명창들 활동의 중심이 전국적인 민속공연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와 그림34〉**

| 일시 | 내용 | 장소 | 주최 |
|---|---|---|---|
| 1983. 6.23. | 쇼와국악대결 | 화성군오산읍군민회관(체육관) | 대한노인회 화성군지부 |
| 1984. 4.18. | 창립 제4주년기념 민속대공연 | 구리읍사무소 앞 광장 | 대한노인회 남양주군지부 |
| 1984. 6.29. | 동두천시 노인복지기금마련 민속대공연 민속대잔치 | 동두천 동광극장 | 대한노인회 동두천시지부 |
| 1984. 9.5. | 부모생각 나라사랑 효도하고 애국하자. | 광교풀장(유원지) | 대한노인회 수원시지부 |
| 1984. 8.22. | 양주군노인복지기금마련 민속대공연 | 양주군 민회관 | 대한노인회 양주군지부 |
| 1984. 6.29. | 동두천시노인복지기금마련 민속대공연 | 동두천 동광극장 | 대한노인회동두천시지부 |
| 1985. 9.17. | 부천시 노인회 가을맞이 민속 대공연 | 대한노인회인 |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부천시지부 |
| 1985. 11.8. | 불우장애인돕기기금마련 자선국악대공연 | 청주문화예술회관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북도지부 |
| 1985. 12.2. | 풍년의 대축제 의정부시 노인회 국악인 초청 민속예술대공연 | 의정부시 시민회관, 의정부공업고등학교 강당 |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부 |
| 1986. 4.17. | 양주군노인복지기금마련민속대공연, 민속대잔치 | 양주군민회관 | 대한노인회 양주군지부 |
| 1986. 5.10. | 용문면 노인복지기금마련 민속대공연 | 용문주유소 광장〈특설무대〉 | 대한노인회용문분회대한노인회 |
| 1986. 9.11. | 경주시 노인복지회관 | 미확인 | 대한노인회 경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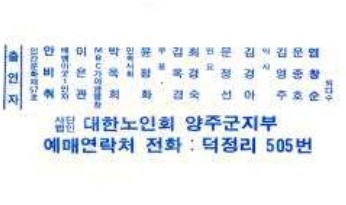
82) 염창순 : 선소리산타령 19호 전수조교, 1980년대부터 민속공연 단장으로 활동함.

| | | | |
|---|---|---|---|
| | 건립기금조성 가요 및 민속 공연 | | 지시부 |
| 1986. 9.24. | 국악인 초청, 민속대 공연 | 화성군 노인복지 회관 뒤 공원 | 대한노인회화성 군비주, 화성효심 회 |
| 1992. 7.2. | 장애인 불우이웃돕기 자선대공연 | 음성군 복지회관 | 한국신체장애인 복지회, 충북지 부, 음성군지회 |
| 1994.10.11. | 〈제 26회 세종문화 큰잔치〉국악초청공연 | 세종국악당 | 미확인 |
| 1994.10.13. | 제2회 구리국악제 공 연에 초대합니다! | 구리시립도서관 공연장 | 사단법인 구리예 총지부 |
| 1994. 10.26, 28. | 서울 정도 600년 '94 국악의 해 기념 | 종로 3가 종묘 앞 시민공원특설무 대 | 국악로 추진위원 회 |
| 1997.10.13. | 제12회 구리시민의날 시민화합큰잔치 | 구리농수산물 도 매시장 | 한국예술문화단 체 총연합회 구 리시지부 |
| 2000. 9.16 | 새천년한가위 국악대공연 | 구리시청 대강당 | 염창순민속국악 단 |

민속공연의 목적은 흥행도 있었지만, 1980년대 충효, 곧 부모님께 효도하자는 것과 노인복지기금을 마련하는 등, 사람들의 효나 공경을 강조하거나, 모금활동과 불우한 이웃돕기 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이 매우 중요했다. 이러한 내용은 아래

표에 정리된 초대권들을 보면 알 수 있다.

〈표와 그림35〉



민속공연은 경기도 · 강원도 · 경상남북도 · 전라남 · 북도 등 각 지방을 다니며 초파일 · 운동회 · 어린이날 · 명절 · 공휴일에 많이 하였으며, 주로 각 지방을 돌며 사람이 많은 장날 날짜에 맞춰 진행하였다.

민속공연 종목에는 무용 · 민요 · 판소리 · 줄타기 등 다양한 장르가 포함돼 있고, 이러한 공연들을 함께 묶어서 무대에 올렸던 공연이 바로 민속공연이다. 민속공연을 포장공연이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민속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공연자와 관객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런 사람들을 민속공연 단장이라고 불렀다. 단장들은 볼만한 공연들을 결성해서, 지방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고, 한편으로는 공연물 결성을 위해 공연자들을 불러 모으는, 중계자 역할을 했다.

장소는 주로 동네 주변에 있는 공터, 학교운동장, 체육관 · 복지회관 · 시민회관 · 터미널 옆 공터가 주 무대였다. 그곳에 세워지는 가설무대는 네 기둥을 새끼줄로 고정시킨 다음, 그 위에 천막을 둘렀다. 무대는 객석보다 조금 높았으며, 크고 둥근 깡통을 여러 개 연결시켜 나무로 덮고 광목이나 부직포 같은 천을 깔았다. 객석에는 짚으로 엮어진 것으로 깔거나, 개인이 가져와서 바닥에 앉아서 구경했다. 그때는 볼거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줄

을 섰으며, 서로 앞에 앉아 구경하려고 싸우다가 다치는 일이 종종 있었다.

김봉업의 가설무대에 자주 섰던 명인 명창들의 명단을 살펴보면, 당시 가설무대는 곧 경·서도 소리의 주요 무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경기잡가를 주로 불렀던 명창들로는 박춘재·이진홍·묵계월·김옥심·이은주·심명화·노은화·장국심·고백화 등이었으며, 선소리 산타령을 불렀던 명창으로는 이명길·탁복만·엄태영·정득만·김수현·유괘동·김순태, 그리고 벽파 이창배 선생이었고, 서도소리에는 김종숙·장학선·이은관이 있었다. 가야금병창에는 심상건·이일선, 거문고에는 신쾌동·서달종, 가야금에는 박상근·성금연이 출연 했으며, 승무에는 최일송·이경자가 있었다. 악사로는 해금에 김봉업·지영희, 대금에는 이충선·김광채, 북에는 이정업·김채선이 있었다. 또한 김봉업과 이정업은 직접 출타기에 출연했으며, 박춘재와 박천복은 발탈에 출연했다.[83]

문화재 지정 이전에도 민속공연과 비슷한 공연이 있었지만, 그 전에는 줄타기와 땅재주, 창극·재담·만담·발탈·대중가요 등, 때로는 서로 다른  여러 공연 들이 함께 무대에 올려 졌었다. 그런데 문화재 지정 이후에는 주로 국악만 무대에 올렸다. 그래서 이름도 민속공연이라고 붙여지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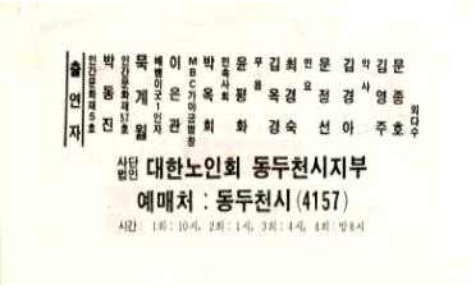
민속공연 단장들은 당시 '얼마나 유명한 명인 명창인 인간문화재 보유자를 모시고 오느냐'에 따라 흥행을 성공하느냐가 달려있었으며, 흥행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팸플릿 역시 인간문화재 보유자라고 소개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1984년 6월 29일 〈忠 존경받는 노인 되고, 사랑받는 후손되자! 孝〉**

동두천시 노인복지기금 마련 민속대공연 민속대잔치
특별회원권 회원권 1,500원 (단 하루)
장소: 동두천 동광극장
주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동두천시지부
시간: 1회: 10시, 2회: 1시, 3회: 4시, 4회: 밤 8시

83) 김천흥, 『심소김천흥무악칠십년』, 민속원, 1995, 184쪽.

〈표와 그림36〉




| | |
|---|---|
| 인간문화재 보유자 5호 박동진 | 인간문화재 보유자 57호 묵계월 |
| 배뱅이굿 1인자 이은관 | MBC가야금 병창 박옥희 |
| 민속사회 윤평화 | 무용 김옥경, 최경숙 |
| 민요 문정선, 김경아 | 악사 김영주 문종호 외 다수 |

민속공연 시간은 조금씩 차이가 있었으나, 4회 공연일 때는 오전10시, 오후1시, 오후4시, 저녁8시로 나누어 하루에 4번이었으며, 3회 공연 할 때는 오전11시, 오후2시, 저녁7시30분 3회 공연을 했다. 1970년대에는 4일에서 5일 정도 그곳에 머무르며 공연을 하였는데, 1980년 후반부터는 주로 하루만 공연을 하였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하루에 1번, 또는 2번 정도 공연하였다.

단장은 민속공연을 위해 먼저 장소를 선택하고, 그 마을 노인 회장을 만난다. 그리고 입장권을 예매했을 때는 특별 할인권으로 1,000원이며, 예매 안하고 입장할 때는 1,500원, 2,000원 정도 받았다. 1990년에는 750원을 노인회 기금으로 내는 목적으로 공연을 하기도 하였다.

단장들은 공연 전, 미리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홍보물을 붙이고, 플래카드도 걸어놓는다. 단장은 명인들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국악 전공자 중에서 민속공연 단장을 하는 사람도 여럿 있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민속공연은 단장과 명창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 공연 사업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민속공연은 공연자들과 공연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하거나, 고정되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1차로 동대문 밖 창신동에 있던 도살장(자금은 없어졌다) 앞 공터에다 극장을 짓고 공연을 시작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공교롭게도 그때가 마침 장마철이어서 계속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1차 공연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지금의 가설극장들과 같이 모든 시설이 완비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천시에는 전혀 공연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 장소에서의 가설극장 공연 일정은 대개 5일 이내였다. 가설극장이라는 것이 공연 일수가 연장되면 손님 끌기가 어려웠으므로, 아예 흥행 일수를 줄여 어려움을 피했던 것이다.[84]

본 연구자 또한 인간문화재 보유자인 묵계월과 함께 민속 공연을 몇 해 같이 다녔다.[85] 당시 인문화재 5호 판소리 박동진, 인간문화재 보유자 29호 배뱅이굿 1인자 이은관, 인간문화재 보유자 57호 경기민요 이은주, 인간문화재 보유자 57호 경기민요 안비취, 경기민요 최창남, 대감놀이 지연화, 민속사회 윤평화 · 설장고 가야금병창 박옥희, 무용 김옥경 · 최경숙. 여류만담가 고춘자 등 많은 명인들과, 지방 민속공연을 다녔다.

주로 종로 3가 단성사 앞에서 새벽 3~4시쯤 모여 봉고차를 타고 출발하여, 이른 아침에 도착하곤 하였다. 더 먼 거리는 전날 출발할 때도 있었으며, 공연장에 도착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많이 모여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단장은 기쁜 마음으로 '고무신 많이 떴네,' 하며 좋아하던 모습이 지금도 미소를 짓게 한다.

어느 날은 몇 시간에 걸려 도착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무대와 공연장이 엉망이 돼 공연을 할 수가 없어, 기다리다 그냥 올 때도 있었고, 비를 맞으며 공연할 때도 있었다. 비가 와서 공연이 취소되면, 단장은 너무 속상해서 하늘만 처다 보며, 한숨만 짓는 모습이 본 연구자의 기억에도 생생하다. 그뿐만 아니라, 공연을 해도 흥행이 안 될 때는 출연료조차 못 받고 올 때도 있었다. 이런 상황들은 민속공연이 다른 무대공연과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민속공연은 마을 사람들이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마련해 와서, 서로

84) 김천흥, 『심소 김천흥 무악칠십년』, 민속원, 1995, 187쪽.
85) 민속공연팸플릿, 1986,10.20(월) 문화의날 경축공연, 곳:서울놀이마당, 공연순서, 1)경기민요와 배뱅이굿,(무형문화제제57호)출연자명단,이은관,이은주,김금숙,임정란,전숙희,(누락)임수현,정경숙,김장순,등 20명.

나눠 먹으며 공연을 구경했다. 그런데 2001년 9월5일 민속공연 초대권에서는 '음식물을 공연장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공연과 관람자에게 피해를 줍니다, 공연장 내에서 휴대폰과 삐삐의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가 기록되면서, 이때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공연장 내에 절대 음식물은 가지고 가지 못하게 되어있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볼거리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민속공연이 마을의 큰 축제나 다름없었으며, 공연이 끝나고 나오면 싸인 해달라고 기다리는 학생들과 음식을 나누어주는 할머니들도 있었다.

이 처럼 문화재 지정 이후 묵계월은 활발한 민속공연을 펼쳤으며, 이러한 민속공연은 다른 공연들보다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매우 친밀한 그 지역의 축제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번 민속공연 활동은 본 연구자도 함께했다는 점에서 보다 진실되고, 확실한 자료임을 말하고 싶다.

### 3. 송서율창의 학습과 활동

묵계월의 나이 16세(1936년) 때, 사랑방으로 소리를 하러 갔다가, 우연히 이문원이 부르는 〈삼설기〉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 소리가 너무 좋아서 이때부터 독선생으로 모시며, 〈삼설기〉를 배우기 시작했다. 이문원의 나이는 50대였으며, 결혼은 하지 않았고, 이 사랑 저 사랑 다니며 소리를 하던 가객이었다.

〈삼설기〉는 긴 가사와 어려운 사설을 정해진 장단 없이 호흡에 의하여, 한배로만 불러야하는 곡曲이다. 수업 방식은, 경기 〈12잡가〉를 배우는 것처럼 구전심수로 적당한 길이를 잘라서 선생이 부르면 따라서 부른다. 그런 다음 그대로 연습해서 어느 정도 익히게 되면 처음부터 배운 부분까지 불러 보고, 잘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 이문원이나 묵계월 역시, 그 긴사설을 전부 외워서 소리를 가르쳤던 것이다.

〈삼설기〉는 오랜 시간의 노력과 제대로 다스려진 튼튼한 목구성을 갖추지 않고서는 부를 수 없는 곡이다.

> 깊은 사랑에서는 송서誦書를 무슨 뜻인지 모르는 탓에 싫어하여, 〈삼설기〉와 같은 송서를 부르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20세기 초엽 이문원이 불러 유성기 음반에 남긴 서울식 송서인 〈삼설기〉와 〈짝타령〉 〈등왕각서騰王閣序〉 등은 모두 대가댁大家宅이나, 글을 아는 유식한 이들의 사랑방에서 향유하던 음악의 갈래였다.[86]

송서誦書는 글공부를 한 지식층이 불렀으며, 듣는 사람 또한, 소리의 깊은 맛을 모르면 감히 접하기 힘든 곡이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곡이 아니었다. 그러나 묵계월만은 누구도 부를 수 없고, 관심조차 없던 송서를 긴 세월동안 묵묵히 잘 보전하며, 전수하였던 것이다. 다행히 묵계월의 전수조교였던 유창이 〈삼설기〉를 전수받아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41호 송서율창誦書律唱으로 문화재가 되었다.

묵계월이 남긴 송서를 가장 든든한 제자가 이어받아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른다. 경기민요는 많은 관심으로 오늘날까지 잘 전수되고 있으며, 〈12잡가〉와 민요를 부르면서도 기회가 되는대로 꾸준히 불렀던 것이 바로 묵계월의 〈삼설기〉이다. 묵계월 만이 독보적인 존재로 〈삼설기〉를 불렀음을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 묵계월은 본명은 이경옥으로 서울 출생이며, 일찍이 속가의 명창인 주수봉에게 사사하여 성악을 익혔고, 속요계의 거성인 최정식 문하에서 경·서도창과 특수한 민요를 익혔다. 특히 천부적인 목청을 타고난 덕분으로 일제日帝 때에는 명창으로 군림하였다. 송서 잘하기로 유명한 이문원에게서 〈삼설기〉를 배워 현금에 이르러서는 거의 독보적獨步的인 존재이다. 김동수라는 칠십여 세에 이르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삼설기〉를 다 욀 줄은 알지만 목이 탁성濁聲이어서 들을 맛이 적으나, 묵계월은 송서를 하기에는 알맞은 구성진 목을 지니고 있어, 참으로 명물이다. 그러나 그 혼자만 부르다 갈 것을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이 송서란 것은 구구절절이 어려운 문자여서 해득키 어려우나, 그의 송서는 참으로 들을만한 것이다. 글을 읽으므로 송서라고 이름 붙였으나, 다른 노래를 잘 하고 이를 읽어야 소릿조가 섞인 멋스런 송서가 되는 것이다. 그는 튼튼한 목청을 지녔으므로 긴 잡가를 장시간 불러도 지칠 줄 모른다. 그야말로 구수하고 구성진 목청이었다.[87]

---

86) 류의호 엮음, 『묵계월경기소리연구』, `깊은샘, 128쪽.
87) 이창배, 『한국가창대계』, 홍인문화사, 181쪽.

묵계월은 이때 당시 〈삼설기〉 뿐만 아니라, 〈12잡가〉를 부를 때 역시 구성진 목소리로 대단한 실력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묵계월이 부르는 〈삼설기〉의 내용과 악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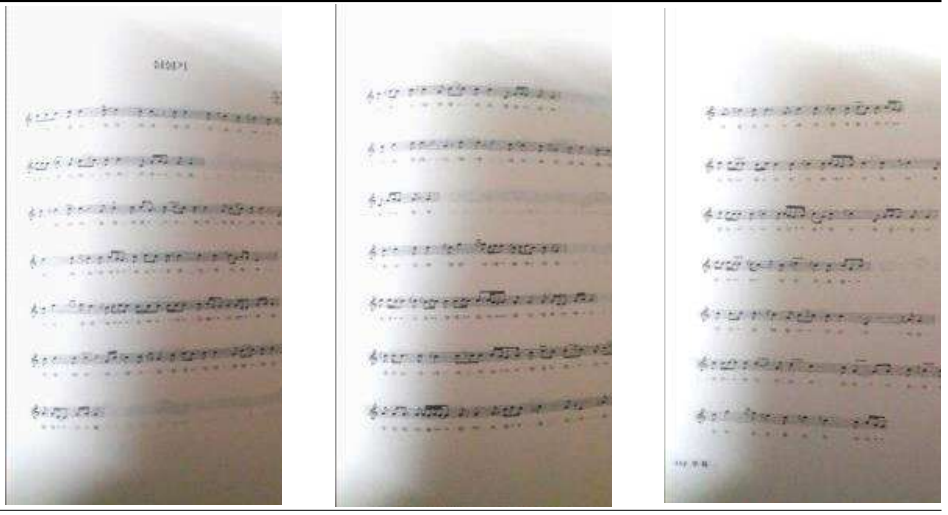
우근진소지의단은 의신의 평생소원을 자감앙소어 천지만물 사생도찰 명정지하 하옵니다. 출어세상하여 법가자제 되어나서 슬하에 어린체와 교동으로 자라나서 효행예절 어진 집에 생장하여 언충신 행독경하며 쇄소응대 진퇴지절와 애친경장 융사친우지도를 안 연후에 학발쌍친 영양으로 입신양명 현달하고, 게초명 함관수를 일을 삼아 노래자의 옷을 입고 삼척동자 부뤄하며 자로의 부미함과 왕상의 이어 낚고 맹종의 죽순 꺾어 증자의 양지지효를 주야로 일을 삼아 지효갈력 즐기다가 차차로 생각하니, 부모의 은덕이 호천망극이라. 원득삼산 불로초하여 배헌고당 백발친을 평생갈력 다한 후에, 사방에 널리 놀아 만물물정 경력하고 삼산풍경 좋은 곳에 청천삭출 높은 뫼는 천작으로 생겨 있어 배산 임류하니 춘수는 만사택이요, 하운은 다기봉이라 명당에 터를 닦아 초당을 지어내니 토계삼등이요 모자를 부전이라 계명죽오하고, 견폐화촌이라 앞내의 고기 낚고 뒷뫼에 약을 심어 실과를 절을 찾고 백곡이 풍등이라 우양자귀 촌항이요, 동치불식 의관이라 낙화방초 무심처에 만학천봉 독폐문이라 한운담영 시수가요 별유천지 비인간이라. 세사는 금삼척이요, 생애는 주일배라. 서정 강상월이 두렸이 밝았는데 동각의 설중매는 향기로히 피었에라. 풍성학려는 사시무진이요, 녹죽창송은 천구 불변이라 세상영욕 다버리고, 청라연월 대사립에 백운 심처 찾아가니 적적시문 개 짖는데 요요운학 그 뉘 알리 인간 공명 모르거든, 세상시비 어이 알리 황금 부다 교불심하니, 어느 벗이 날 찾으리. 광음을 해아리니 춘림에 문두견이 어제러니 어느 사이에 추안이 우전성이라 한왕서래하니 사시를 짐작하고 의약복서 알겠으니 그 무엇이 부족하랴 옛 사람 이른 말이 지족이면 불욕이라 하였거니, 부귀하면 위구로다 오경대루 화만상이 위태롭고 괴로워라 공자묵적 언변에도 핍박함을 보았나니 오자서의 촉루검과 함양시상 탄황견을 모른다야, 관계하랴. 세상공명 간목안이요, 좌중담소 신상귀라 알아내야 무엇하며,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지도를 모른데야 관계하랴. 팔진미찬 만반진수 아니라도 벽계청류 은린옥척 낚은 고기 박주산채 맥반으로 적구충장 하여가고, 고대광실 수호문창 주박은병 아니라도 모옥수삼간에 남창온돌 정쇄한데 양생법 공부하여 연년익수 하리로다. 금의를 잊었거든 포의를 부끄리랴. 죽장망혜로 기산영수에 배회하니 일발청산 부취색이라 백운은 천리만리 명월은 전계후계로다. 산은 첩첩 만중 한데 삼산반락 청천외요 물은 충충소이되니, 이수중분 백로주라 낙하는 여고목제비하고 추수는 공장천일색 이라, 바람불어 송생슬이요, 안개 피어 학성홍이라 주걱새 울어나니 천고절이요, 솥적다 하는 소리 일년풍이라 운무심이 출수하니 다기봉이 자작이라 방장봉래

삼신산이 버렸는데, 아미산월 반륜추와 적벽강상 무한경을 어디가가 비할소냐, 십장생이 벌여있어 천만세를 누리는데 월출낙조 바라보니 무비경개 절승이라. 주나라 강태공은 위수에 고기 낚고 강상 풍경 좋은 곳에 만사무심 일조간이요, 한나라 제갈량은 남양에 밭을 갈아 초당춘수 긴긴날에 양보음 읊으면서 불구문달 하였나니, 도당씨적 시절에는 영천에 귀를 씻고 문답하는 맑은 덕은 소허밖에 또 있는가 문장공명 하던 일을 이리저리 헤아리니 아득하고 어려워라. 용방비간 곧은 충절 만세에 유전한들 저마다 어이하며 위청불패 유천행이요, 이광무공 연수기라 지용으로 못하려니, 장수되기 어려우며 안자곤어 누항하고 가의굴어 장사하니 도학인들 무엇하며 사마천 소동파는 만고문장 빛난 말은 하필성장 하건마는 문장궁액 면할소냐 왕발의 등왕각서 명작이라 하건마는, 삼척미명 네 글자가 처량할 손 단명구라 가련하기 측량없다. 이태백의 백두시와 일일수경 삼백배는 채석강에 빠졌으며, 두목지의 취과양주귤만거는 호탕하여 쓸데없고 가소롭다 형경이여 역수한파 저문날에 백홍관일 모르고서, 일검횡장 전혀 믿고 태자 단을 이별하니 그 아니 위태한가. 번화는 비 소원이요 부귀 권세 비웃으며 오동월향 회중조요, 양류풍래 면상취라 병 없고, 성한 몽이 희황 상세한민되어 역대성쇠 헤아리니 영웅호걸 일조공이요, 고인금인 약류수라 백이숙제 착한이와 도척같은 몹쓸 놈도 죽어지면 허사로다. 역려건곤에 부생이 약몽하니 즐거움이 그 얼만고 병촉야유 하며 독서담론 자락하니 한가하기 측량없다. 만산풍경 바라보며 임청류이 부시하니 흥미가 무궁이라 춘풍도리 화개야와 추우오동 엽락시에 남린북촌 다청하여 팽양재우 하고, 두주자락이라 권군갱진 일배주하니 일배 일배 부일배과 탄금하고 장소하며, 산가촌적으로 희유동락하니 부지하조 하갑자라. 인생이 이러하니, 상산사호 죽림칠현 한가롭다. 이만하면 적송자 안기생을 부러하랴. 범려의 오호주와 장자방의 사병벽곡 소광의 산처금과 도연명의 귀거래는 모두 다 작은 일이 아니로다. 영귀함이 이에서 더할소냐. 이목지소호와 심지어 소락이라 이밖에 또 있는가. 다 남자즉 다구라 하니 아들 형제 딸 하나에 내외손이 번성하여 각색자미 즐길적에 곽분양의 백자천손인들 이에서 더할소냐. 개경연이 좌화하며 열친척지정화하고 서천륜지낙사로다. 비우상이 취월 하니 의가지락이 족하도다. 일월성신 광음중에 부귀인간유수로다. 다만 아끼노라 청춘이 빨리간들 어이하리 한심할사 건곤이 불로월장재하니 적막강산이 금 백년이라. 세상에 어렵고 못할 일이 장생불사 뿐이로다. 진시황한무제도 채약구선하여 연년익수 하려다가 변통무로 하였나니 그야 어이 바라리요. 지분지명 하여 병 없고 성한 몸이 명철보신 하랴하면 더할 것이 없사오니 수삼 갑자 누리다가 와석종신 고종명이 원(이로소이다)이오니, 복걸삼상 교시후에 복망련긍지 하시며 애지휼지하사 의소원 처치하여 주심을 천만복축 하나이다. 염왕이 남필에 대로하여 꾸짖어 왈, “이 욕심 많고 부소불측한 놈아 네 듣거라. 내가 천지개벽 이후로 만물보응 윤회지과와 사생화복 길흉지권을 모두 다 가지고도 억만창생의 수요장단과 선악시비를 평균히 조석으로 살피는 터에 성현군자도 하지 못할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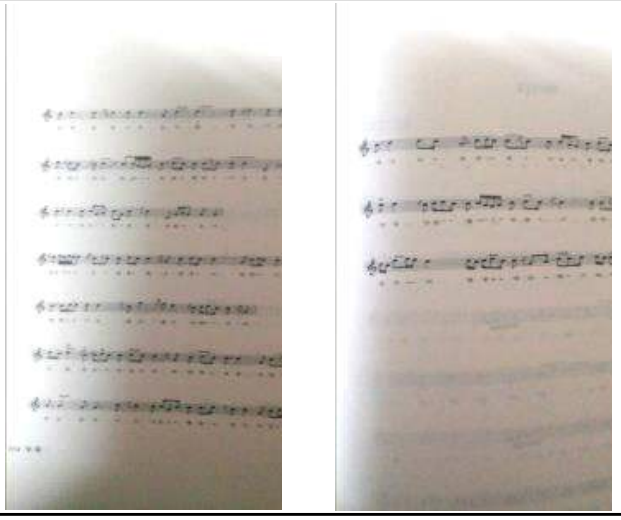
을 모두 다 달라 하니, 그 노릇을 임의로 할량이면 내 염라대왕을 떼어 놓고 내 스스로 하리라" 하더라.[88]

〈송서(삼설기)〉는 원래 소설로 된 것이다. 그 내용은 세 선비가 낮잠을 자다가 모두 죽었다. 그래서 사자使者에게 이끌려 저승으로 가서 모두 판관判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아직 죽을 때가 안 되었는데, 잡아들였으므로 도로 살려 보내는데, 다 각기 자기소원을 말하게 된다. 한 사람은 높은 벼슬을 달라고 하고, 또 한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여, 그 두 사람은 소원대로 성취케 해주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소원이 대단하여 인간으로서 할 짓은 다해보고 싶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염라대왕이 노발대발하여 사생길흉지권死生吉凶之權을 가진 나도 못할 것을 원한다고 야단을 치는 내용이다.[89]

**〈표와 그림 37〉**[90]



88) 유창, 『송서율창 민요가창선집』, 태흥문화출판사, 2011, 14쪽.
89) 송서, 율창 꽃 피우다. 팸플릿 19쪽.
90) 류의호 엮음, 앞의 책, 351쪽.



삼설기 악보

이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는 이미 18 세기에 널리 퍼져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부르는 묵계월의 송서가 언제부터인지는 확실치 않다. 묵계월은 1930년대 중반에 이문원에게서 송서 〈삼설기〉를 배웠는데, 이문원은 당시 50대였다고 한다. 이문원의 송서 〈삼설기〉의 계보는 알 수 없지만, 묵계월이 부르는 송서 〈삼설기〉의 내용이 1848년에 나온 방각본『삼설기』에 들어 있는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묵계월이 부르는 송서 〈삼설기〉는 조선 후기에 불렀던 〈삼설기〉의 모습을 온전히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자료가 있는데, 바로 〈짝타령〉이다. 〈짝타령〉은 19세기 중반에 서울에서 널리 읽힌 〈춘향전〉에 〈바리가〉라는 이름으로 가사가 나오는데, 이 가사는 현재 묵계월의 제자 유창과 함께 복원했던 〈짝타령〉과 일치한다. 이 〈짝타령〉도 〈삼설기〉와 마찬가지로 송서이다.

〈적벽부赤壁賦〉·〈어부사漁父辭〉·〈등왕각서騰王閣序〉·〈출사표出師表〉 등의 중국인이 쓴 글이나, 〈탄관산융마歎關山戎馬〉처럼 우리나라 사람이 쓴 글을 송서誦書 소리라고 하는데, 〈삼설기〉는 작자가 알려진 글이 아니다. 송서가 대충 어떤 층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묵계월의 증언이나 〈삼설기〉의 내용으로 보아 송서를 좋아하

는 층은 어느 정도 글을 알고 있는 식자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삼설기〉 가사는 중국의 고사古事와 한시漢詩를 적절히 섞어서 만든 것으로, 어느 정도 식자층이 아니고는 이해하기 어렵다. 조선조 특유의 계층구조가 어느 정도 남아 있던 식민지 시대까지는 송서를 즐기는 층이 다소나마 있었으나, 6·25를 지나면서 송서는 급격히 쇠퇴했던 것으로 보인다. 송서가 유행하던 때에도 〈삼설기〉는 거의 청중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묵계월은 〈삼설기〉를 부른 일이 있었지만, 1960년대 들어와서는 가끔 방송에서만 불렀다고 한다. 이미 1960년에 〈삼설기〉를 듣고 즐기던 층은 거의 사라진 상태였고, 다양한 경기소리 가운데 경기소리라고 알려진 소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점차 부르지 않는 상황이었다. 3~5분 정도에 끝나는 유행가와 비슷한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또 서양악기 반주에 맞춰서도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그 외의 소리는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가 외면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묵계월은 〈삼설기〉를 전승시키고자 꾸준히 노력하였다. 자신이 인정받은 경기 〈12잡가〉가 아니고, 또 생계를 위해서 부르는 경기소리도 아닌 송서 〈삼설기〉를 묵계월은 기회만 되면 소리하고, 또 전수시키려고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묵계월이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된 이후 여러 사람이 그 밑에서 배웠으나, 〈삼설기〉를 끝까지 배운 제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물론 첫머리를 조금 배운 제자는 여럿 있었다. 이유는 경기소리를 하는 사람들로서는, 〈삼설기〉는 써먹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999년 9월 유창과 함께 「삼설기의 밤」에서 〈삼설기〉를 공연함으로써 이문원에서 묵계월로 이어진 〈삼설기〉의 막은 유창, 그리고 앞으로의 후학들에게 이어지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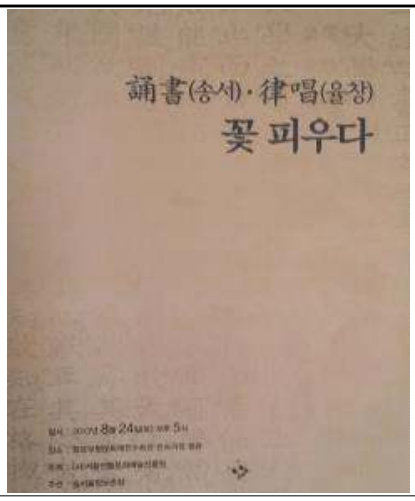
〈표와 그림38〉

1999년 9월 19일
제1회 삼설기의 밤 공연
(운현궁)

1999년 11월
삼설기 연구 학술발표

그러나, 현재까지도 송서율창의 〈삼설기〉 전수는 계속되고 있다. 그 한 예로 2013년 8월 24일 오후 5시에도 송서율창보존회 주관 [송서, 율창 꽃 피우다]라는 공연이 실현되었음을 볼 수 있다.

〈표와 그림39〉




일시 : 2013년 8월 24일 오후 3시
장소 : 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민속극장풍류
주최 : (사)서울전통문화예술진흥원
주관 : 송서율창보존회
후원 : 서울특별시, 한국전통음악학회

출연진: 정경숙. 이경희. 이기옥. 신월숙. 이안복. 조은자. 김인숙. 서은희. 박금례. 박복순. 오덕선. 이민희 강관숙. 김소정. 최덕희. 김진성.구결희. 송규철. 이청우. 신현서. 양찬근. 장세은. 김도희. 원은영. 서승연. 김단아. 이수완. 김경미. 김윤지. 최유진. 박해수. 김대현. 송형열. 이송미. 서해인. 조성은. 노윤지. 이수현. 노민주. 이다운.

다음은 송서율창의 전수현황으로 제 41호 송서율창 이수자 명단이다.

〈표40〉

| 장르 | 이수자 성명 | | 날짜 |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원은영 | 2011.12.19(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이경희A | 2011.12.19(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이정순 | 2011.12.19(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이소래 | 2011.12.19(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박금례 | 2011.12.19(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이기옥 | 2011.12.19(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유옥분 | 2011.12.19(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김복희 | 2011.12.19(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정수경 | 2011.12.19(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최병옥 | 2011.12.19(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조은자 | 2011.12.19(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최수명 | 2011.12.19(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최차옥 | 2011.12.19(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김문숙 | 2011.12.19(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임혜성 | 2011.12.19(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송규철 | 2011.12.19(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김옥분 | 2011.12.19(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안선자 | 2011.12.19(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이안복 | 2011.12.19(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김돌이 | 2011.12.19(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김도희(김선주) | 2011.12.19(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서안심 | 2011.12.19(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강병한 | 2011.12.19(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정경숙 | 2011.12.19(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김금순(김태은) | 2012.08.30(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이민희 | 2012.08.30(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이정례 | 2012.08.30(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강태이 | 2012.08.30(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장세은 | 2012.08.30(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장우동 | 2012.08.30(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정영자 | 2012.08.30(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이승용 | 2012.08.30(지정) |

| | | | |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장낙순 | 2012.08.30(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박복순 | 2012.08.30(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황종필 | 2012.08.30(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김인숙 | 2012.08.30(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민숙희 | 2012.08.30(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이청우 | 2012.08.30(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오덕선 | 2012.08.30(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김옥자 | 2012.08.30(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정명희 | 2013.07.25(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안인복 | 2013.07.25(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김정혜 | 2013.07.25(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김보영 | 2013.07.25(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문동훈 | 2013.07.25(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유영순 | 2013.07.25(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김단아 | 2013.07.25(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강관숙 | 2013.07.25(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김오순(김소정) | 2013.07.25(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이수연 | 2013.07.25(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서승연 | 2013.07.25(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김진성 | 2013.07.25(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최덕희 | 2013.07.25(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이종세 | 2014.07.15(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이영순(이소연) | 2014.07.15(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김영일(김영운) | 2014.07.15(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송은선 | 2014.07.15(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한상금 | 2014.07.15(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최종숙 | 2014.07.15(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박일순 | 2014.07.15(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김나연 | 2014.07.15(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구결희 | 2014.07.15(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김계환 | 2014.07.15(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김정애 | 2014.07.15(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김성애 | 2014.07.15(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유은서 | 2014.07.15(지정) |
| 제41호 송서율창 | 이수자 | 장성숙 | 2014.07.15(지정) |

## 4. 후학양성

묵계월이 후학 양성 활동을 시작한 때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대략 한국전쟁 이후인 1950년대 후반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바로 이창배가 주도하여 만든 청구고전성악학원이 생겨난 해이기 때문이다. 경기민요의 흐름을 살펴보면, 일제강점기에는 주로 권번에서 경기민요를 가르쳤다면, 해방 이후부터는 국악 단체나, 혹은 개인이 만든 학원에서 후학을 양성하였다. 청구고전성악학원은 1957년 이창배가 세운 학원으로, 경서도 소리의 전승과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하였다.

묵계월은 1960년대 이 학원에서 강좌를 한 적이 있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이러한 활동을 시작했을 수도 있겠지만,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를 보면 1962년에 묵계월은 이소향・이은주와 함께 이 학원에서 경기민요를 가르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동아일보에는 〈청구고전성악학원주최 단기 민요강습회〉라는 제목으로 1962년 1월 8일부터 2월 7일까지 1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이 강습회의 과목으로는 시조를 비롯해, 서도민요, 〈추풍감별곡〉 〈회심곡〉 등이었다. 그리고 이들 과목을 담당했던 강사들은 다음과 같다.

**〈강좌〉**
청구고전성악학원주최 단기민요강습회, 1월8일부터 2월7일까지 일개월간 돈의동학원에서
강의과목 및 강사
시조 - 관마 김월하
경기민요 - 이소향, 묵계월, 이은주
서도민요 - 김옥심, 노은화, 유선녀
추풍감별곡 - 정득만
회심곡 - 이창배[91]

그리고 당시 청구고전성악학원에서는 후학을 양성하는 일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발표회를 열었다, 그 중에는 1960년 11월 18일부터 20까지 열린 〈청구고전성악학원 제1회 민요발표회〉가 있었다. 이 발표회는 원각사 소극장

91)〈동아일보〉 1962. 1. 6.

에서 열렸는데, 같은 학원 연구생 30여명이 출연하였으며, 공연에는 한국민속무용과 팔도민요 등 다양한 민속예술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92]

이러한 청구고전성악학원에서 묵계월은 몇 번의 강좌를 하였던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묵계월이 문화재 지정 이전부터 후학양성을 활발히 했다고 보기에는 힘들다. 그것은 문화재 지정 이전의 묵계월의 생활과 공연활동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활동하였던 공연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자를 양성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이유들은 다른 경기민요 가창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본격적으로 후학양성의 활동을 시작한 것은 문화재지정 이후였던 것이다. 묵계월이 인간문화재 보유자로 지정 된 후 가장 큰 변화는 후학의 양성이었다.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되면 전수 장학생을 키워야하는 규정 때문이었는데, 그 규정은 한 사람이 전수 장학생 2명을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 동안 제자가 따로 없었던 인간문화재 보유자 묵계월·안비취·이은주는 전수 장학생을 각각 2명씩 선발하였다. 묵계월은 임정란·고주랑을, 안비취는 이춘희·김혜란을, 이은주는 이은미·김금숙을 선정하였다. 묵계월과 임정란은 공연 장소에서 여러 번 만난 사이었다고 한다. 그 후 일 년 뒤 임정란 소개로 고주랑을 전수 장학생으로 선정하게 된 것이다.

묵계월은 임정란(본명 : 林正子)과 고주랑을 전수 장학생으로 선정하였지만, 이들은 이미 이창배에게서 청구고전학원에서 소리를 배우고, 경기민요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던 기성소리꾼들이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공부하기가 힘들었으며, 임정란은 63년도에 청구고전성심학원에서 이창배·정득만에게 소리를 배워 활동을 하고 있던 중이어서, 묵계월과 소리하는 방법이 달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고주랑은 잦은 일본 공연으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93] 1995년 8월에 지화자池花子를 선정하여 전수교육보조자가 되었다. 그런데 임정란이

92)〈동아일보〉, 1960. 11. 16.

93) 조사과정에서 묵계월은 인간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되면서 임정란 이외에 고주랑을 전수장학생을 받았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이윤석은 당시 임정란 한 명만은 전수장학생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1999년 10월에 그만두고, 지화자는 2001년 9월에 고인이 되어, 2001년 11월에 유창(본명 : 柳義姸)과 김영임金英姙 두 사람을 전수교육보조자로 선정했다.

이렇게 인간문화재 보유자로 지정이 되고, 후학 양성을 활발하게 하던 세 명창 중에서 유일하게 묵계월의 제자 중에서 두 명의 인간문화재 보유자가 탄생하였다. 인간문화재 보유자가 된 묵계월의 제자로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1호에 임정란과, 서울시 문화재 제41호 송서율창에 유창이다. 이러한 사실은 묵계월의 후학양성에 있어서 매우 대단한 일로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 시기의 후학 양성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전수 장학생을 지정하여 양성하게 하였다. 경기민요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런 제도는 나중에 전수조교, 이수생, 전수생 등 여러 단계의 제자를 둘 수 있도록 바뀌게 된다.

묵계월은 계속해서 2000년대 초반까지 서울 종로구 무악동 중요 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12잡가 전수소에서 후진을 양성하였다. 먼저는 묵계월이 문화재 지정 이후, 독립문에 학원(강습소)을 차렸다가 1980년대 초반에 무악동으로 다시 옮겨 온 것이다. 묵계월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종로구 봉익동 유창의 천우극장에서 일주일에 두 번 수업을 하였고, 몸이 약해진 이후에 후학의 양성을 그만두게 되었다.

지금까지 묵계월의 문하에서 소리 공부를 한 사람들은 매우 많았다. 그리고 이들은 현재 타계하신 묵계월의 뒤를 이어 경기민요의 길을 걷고 있으며, 후학의 양성을 이어받아 활발하게 활동 중에 있다. 다음은 본 연구자를 포함하여 묵계월의 제자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표41〉

| 성명 | 인간문화재 보유자 인정 | 날짜 |
|---|---|---|
| 임정란 |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1호 경기소리 보유자 | 1999년 |
| 유창 | 서울시 문화재 제41호 송서율창 보유자 | 2009년 |

〈표42〉

| 성명 | 내용 | 날짜 |
|---|---|---|
| 임정란 | 전수교육조교 | 1983년 |
| 지화자 | 전수교육조교 | 1995년 |
| 유창 | 전수교육조교 | 2001년 |
| 김영림 | 전수교육조교 | 2001년 |

〈표43〉

| | |
|---|---|
| 전수장학생(5명) | 임정란, 고주랑, 임수현, 정경숙, 이윤경. |

〈표44〉

| 성명 | 대통령 수상 | 날짜 |
|---|---|---|
| 임수현 | 경기국악제 대통령 수상 | 2011년 |
| 정경숙 | 경서도 경창대회 대통령 수상 | 2004년 |
| 최은호 | 경기국악제 대통령상 수상 | 1998년 |
| 최근순 | 경기국악제 대통령상 수상 | 1997년 |
| 박순금 | 경기국악제 대통령상 수상 | 2004년 |
| 이명희 | 경기국악제 대통령상 수상 | 2002년 |
| 박윤정 | 경서도 경창대회 대통령상 수상 | 2007년 |
| 이윤경 | 경기국악제 대통령상 수상 | 2012년 |
| 임춘희 | 경기국악제 대통령상수상 | 2003년 |

〈표45〉

| 성명 | 내용 | 날짜 |
|---|---|---|
| 조경희 | 경기국악제 국무총리상 수상 | 2001년 |
| 김경아 | 전국경서도 경창대회 우수상 수상 | 1984년 |
| 김수현 | 전국경서도 경창대회 금상수상 | 1996년 |
| 남운자 | 경기국악제 대상 수상 | 2003년 |

제 57호 경기민요 이수자

〈표46〉

| 성명 | 주 활동지 | 이수일 |
|---|---|---|
| 고주랑 | 충남 | 1980.12.31 |
| 임수현 | 서울 | 1987.03.30 |
| 조경희 | 서울 | 1987.07.01 |
| 정경숙 | 경기도 | 1989.11.30 |
| 김운경 | 경기도 | 1991.07.01 |
| 박순금 | 서울 | 1992.06.30 |
| 최근용 | 경기도 | 1992.06.30 |
| 김진희 | 경기도 | 1993.07.30 |
| 최근순 | 경기도 | 1993.07.30 |
| 김덕례 | 경기도 | 1993.07.31 |
| 김정옥 | 경기도 | 1995.06.22 |
| 이명희 | 경기도 | 1995.06.22 |
| 문옥순 | 경기도 | 1996.06.24 |
| 박영화 | 경기도 | 1997.06.30 |
| 이영애 | 경기도 | 2000.02.29 |
| 오수민 | 경기도 | 2000.02.29 |
| 남운자 | 공주 | 2002.02.28 |
| 변기영 | 홍천 | 2002.02.28 |
| 강병한 | 대구 | 2002.02.28 |
| 강옥희 | 서울 | 2002.02.28 |
| 박영실 | 경기도 | 2002.02.28 |
| 김희자 | 서울 | 2003.02.28 |
| 신월숙 | 경기도 | 2003.02.28 |
| 유명숙 | 서울 | 2003.02.28 |
| 김 양 | 서울 | 2003.02.28 |
| 박매자 | 서울 | 2003.02.28 |
| 강명자 | 과천 | 2003.02.28 |
| 강춘선 | 서울 | 2003.02.28 |
| 유옥분 | 서울 | 2003.02.28 |
| 김정회 | 부산 | 2004.02.27 |

| | | |
|---|---|---|
| 김경님 | 서울 | 2005.03.07 |
| 천옥분 | 서울 | 2005.03.07 |
| 안서우 | 서울 | 2005.03.07 |
| 최연화 | 경기도 | 2005.03.07 |
| 배귀분 | 서울 | 2005.03.07 |
| 김정우 | 경기도 | 2005.03.07 |

묵계월은 인간문화재 보유자 2명, 전수조교 4명, 전수 장학생 5명, 대통령 수상자 9명, 그 밖에 큰 수상을 한 제자들이 여럿 있다. 경기민요 이수자 36명 등 많은 후학을 양성하였다. 또한, 묵계월의 제자사랑은 매우 각별하였다. 제자들의 수상 때마다 함께 축하해 주고, 제자의 공연에도 꼭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시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예로 본 연구자 제자로서, 전수 장학생으로 대통령상을 받았을 때의 모습을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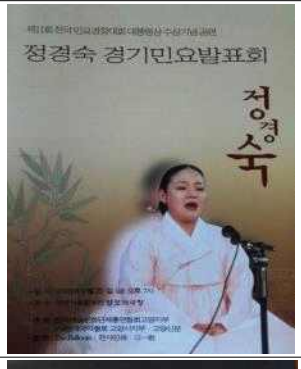
**〈표와 그림47〉**

이 밖에 묵계월이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공연에 참가하여 큰 힘을 실어준 공연들을 몇 개 소개하고자 한다.

〈표와 그림48〉

제3회 남은혜 민요발표회
일시: 2004년 11월 12일 오후 7시
장소: 공주문예회관 대강당
주최: 남은혜 민요연구회

유창의 경기소리극 맹인굿, 춘양전
일시: 2004년 7월 16일 오후7시
장소: 세종문화회관소극장
주최: 묵계월 경기소리보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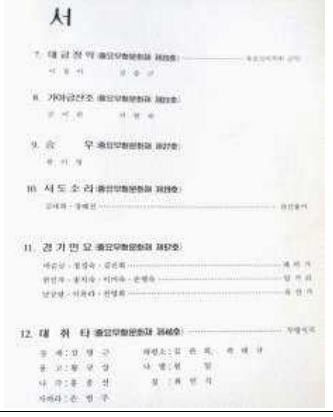

제11회 전국민요경창대회대통령상수상기념공연
정경숙 경기민요발표회
일시:2005년 2월 25일 오후7시
장소:덕양어울림누리 별모레극장
후원: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고양지부
(사)한국국악협회 고양시지부,고양신문

유창 경기소리발표회
일시:2003년 6월 3일 오후 7시 30분
장소: 국립국악원 우면당

정경숙 한국,말레이시아 문화교류 공연
일시: 2008년 10월 8일 오후 7시
장소: 덕양어울림누리 별모레극장
주최: 묵계월경기소리연구회,정경숙국악연구소

이 처럼 묵계월은 본인의 공연이 아닌 제자들의 공연에도 참석하여 제자들에 대한 정성스런 마음을 선물하였다. 뿐만 아니라, 매년 전수생발표회를 열어 전수생들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좀 더 발전된 모습을 갖추도록 노력하였다.

**〈표와 그림49〉**




제5회 전수생발표공연
일시 : 1988년 11월 23일 15:00
장소 : 무형문화재전수회관
주최 : 사단법인 대학처

이러한 묵계월의 스승으로서의 모습은 후학에게도 그대로 전해졌다. 묵계월의 공연은 물론, 모든 수상식에도 참여하여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묵계월은 이 외에도 많은 제자가 있으며, 후학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

요시했던 항목은 인간미였다. 인간미가 없으면 소리를 배워도 소용이 없으니, 이 부분이 소리꾼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리를 중요하게 여겼다. 또한 묵계월은 교육 과정에서 늘 '나만큼 살고 나만큼만 노래하면, 어디 가서 흉은 안 잡힌다.'라고 말씀하였다. 이러한 묵계월의 확고한 교육관으로 인해 경기민요 국악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제자들도 많다.

**〈표와 그림50〉**

2003년 스승추대식 때 제자들과 함께
(정경숙, 묵계월, 유창, 이세은 외)

이제 남은 일이라면 '천하의 영재를 얻어 가르치는 즐거움'뿐이어서, 유한한 생을 마치는 날까지 제자들 가르치기를 계속했으면 하는 소망뿐입니다.
-묵계월 1955 끝없는 소리의 길 공연 팸플릿 인사말씀에서-

묵계월은 큰 공연 때마다 인사말과 축사를 통해 후학 양성의 깊은 뜻을 전달하였으며, 더 나아가 경기민요의 전승에 많은 힘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도 많은 제자들이 묵계월의 호인 담월회 활동을 펼치며, 경기민요의 전승에 노력하고 있다.

묵계월이 떠난 지금, 그의 제자들은 슬픔에 빠져있기보다는 지금까지 스승이셨던 묵계월의 경기민요를 계승은 물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Ⅴ. 경기민요사와 묵계월의 예술가적 위상

담월 묵계월은 일제日帝 치하인 1921년 10월 19일, 한미寒微한 가문에서 출생하여 부친의 반대를 무릅쓰고, 모친으로부터 타고난 맑은 소리[淸音]와 남다른 암기력으로, 양어머니의 계산적 투자와 학대를 극복하며, 11살 어린 나이에 민요에 입문하여, 남다른 열정으로 수학기를 보내고 20대부터 여타의 소리꾼과 다름없이 생계를 위해 소리하지만, 끊임없이 자신의 노래실력을 갈고 닦아, 결국 당대 최고의 소리꾼으로 성가聲價를 쌓아가던 중 1975년 55세의 나이에 경기민요 무형문화재로 명창의 영예를 쟁취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물론 묵계월의 수학기인 1930년대로부터 20세가 되던 194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의 민요는 남도민요·서도민요·경기민요 등 유형은 존재했지만, 아직 체계적인 창법이나 가사는 소리선생마다 미분화 상태의 초창기였다. 그러나 타고난 재질과 경기민요에 대한 열정에다, 유수한 스승의 훈도로 경기민요에 정진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안비취·이은주 등과 함께 경기민요연구회를 결성하며 〈경기잡가 12곡〉으로 공히 인간문화재로 공인되면서부터 생활형 소리꾼에서 끝내 명창 예술가로 상승했다.

이후 경기민요의 체계화 및 그 보급은 물론, 몇몇 난해한 가사와 어려운 창법, 예컨대 〈삼설기〉 같은 민요의 전승을 위해 심혈을 기울인 이른바 경기민요의 산 증인의 길을 걸어왔다. 이른바 무형문화재 57호 묵계월의 노래인생은 생활형 소리꾼에서 무형문화인 민요의 계승 발전을 위한 예술가로의 대전환적 업적을 남긴 것이다. 이른바 잔칫집 공연이나, 환갑집 놀이패 소리꾼이 아닌, 무형문화의 대중화를 위한 무대공연·음반활동·민속공연·송서율창의 학습활동·후학양성 등으로 탈바꿈하므로, 경기민요뿐만이 아닌 한국민요 발달사상 귀중한 묵계월의 공인적公人的 업적, 무형문화재로서의 명창名唱으로 높이 칭송받아야 할 위업偉業을 쌓아내신 것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문원으로부터 전수받아 독보적 기능 보유자로 묵계월만 가능했던 〈삼설기[송서율창]〉를 문하의 유창에게 전수하여 문화재 41호로 지정이 되어 명맥을 이어 가게 한 업적은 소멸될 민족문화의 계승이란 차원에서 높이 재

평가 받을만한 진정한 예술가이자, 참다운 스승이었다.

묵계월은 이렇듯 경기민요의 긴 역사와 함께한 소리꾼이다. 80년 가까이 경기민요의 길을 걸으며 펼쳤던 활동들을 그저 한 개인의 업적으로 보기에는 그의 예술가적 위상은 경기민요의 모든 음악활동에서 그대로 반영되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스승 묵계월의 "소리는 긴 세월 속에 쌓인 소리의 내공은 들을수록 담백하고 깔끔하다. 소리 하나 하나를 살려서 선율을 만들고 있지만 과하지 않고, 절재 된 소리가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나아가 그는 진정한 예술가이기 위해 예인藝人이 갖춰야 할 인격 형성에도 남다른 솔선은 물론, 제자들에게도 엄히 훈도하셨다. 대인 관계에서도 항상 어디를 가시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남의 말을 경청하셨고, 말씀 하실 때에는 심사숙고하신 후 필요한 말씀만 하셨으며, 언제나 상대방의 입장을 편하게 해 주셨다.

제자들에겐 언제나 엄격하셨으며, 교육 중에도 "노래는 꾸며서 되는 것이 아니다. 가사를 전달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 하며, 장단은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야 한다. 항상 듣는 사람이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하셨던 참스승이셨다.

# VI. 결 론

지금까지 본 연구자는 묵계월의 구술채록 자료와, 이와 관련된 문헌자료 및 팸플릿과, 염창순의 민속공연 초대권을 통해 묵계월의 생애사를 통한 경기민요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구술채록 자료는 자료로써 가지는 한계가 있었지만, 오랜 기간을 경기민요에 몸담아 온 묵계월의 구술채록 자료이기에 경기민요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묵계월이 어린 시절을 보내고, 경기민요에 입문하여, 여러 스승을 만나 민요를 배우는 모습은 그 당시 경기민요의 시대적 흐름을 짐작케 하였다. 민요를 배우면서 활동하였던 공연에서도 경기민요 가창자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었다. 묵계월이 결혼을 하고, 한국전쟁을 겪으면서는 생계를 위한 공연활동이었다는 사실 또한 그때 당시의 상황들을 들여다 볼 수 있었다.

모든 경기민요 가창자들이 묵계월과 유사한 길을 걸어온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경기민요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 이전의 모습은 묵계월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음을 묵계월의 구술채록 자료를 통해서도, 팸플릿과 국악음반박물관에서 찾아보았던 공연들과 음반활동들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초창기 경기민요 가창자들은 전승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도 파악할 수 있었다.

묵계월의 활동을 통해 살펴본 경기민요의 공연활동은 잔치 집과 움집, 부민관공연, 음반활동으로 나눠볼 수 있었다. 이러한 공연활동은 개별 공연활동에 따라, 혹은 시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없지는 않지만, 경기민요 가창자들은 주로 이런 형태의 공연활동을 해왔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경기민요연구회는 중요한 연구 내용 중의 하나이다. 그 이유는 문화재 지정을 위해 경기민요 가창자들이 만든 연구회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경기민요연구회의 안비취·묵계월·이은주가 주도하여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는 점을 눈여겨 볼만한 일이었다.

문화재 지정 과정에서도 인간문화재 보유자인 묵계월·안비취·이은주 핵심 3인의 내용도 매우 중요하였다. 이런 점은 경기민요에 있어서 무형문화재 지정이 매우 큰 변화를 갖게 한 이유였기 때문이다. 묵계월은 인간문화재 보유자가 된 이후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기존에 해오던 잔칫집이나 요릿집 활동을 중단하고, 큰 무대공연과 민속공연에 전념하였으며, 음반활동 등 이른바 민속예술의 대중화에 전념하셨다.

특히, 묵계월을 비롯해 안비취·이은주가 후학을 양성하기 시작한 것 또한 인간문화재 보유자가 된 이후였다는 사실은 민속예술의 대중화 차원을 넘어, 그 계승 발전의 차원에서 투철하게 절감한 사명의식으로 각인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인간문화재 보유자가 된 묵계월·안비취·이은주의 활동들은 경기민요의 역사를 보는데 있어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문화재 지정 이후 세분의 명창이 〈경기12잡가〉를 4곡씩 나누어 전수하였다. 그러나 문화재 지정 이후 세분 명창의 소리가 다르건만, 어느 시점부터 경기민요를 통합시켜 한쪽으로만 보급을 한다니, 다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본 연구는 묵계월의 구술채록 자료와 그 당시 문헌자료들, 그리고 본 연구자가 소장하였던 소장품과 민속공연 초대권을 통하여 묵계월의 생애사를 정리하여, 경기민요의 흐름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자는 오랜 시간 묵계월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경기민요의 큰 거목이시며, 〈경기12잡가〉를 처리하는 음색은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천부적 존재이며, 〈삼설기〉 또한 독보적인 존재로서 오늘날까지 전수될 수 있었음에 제자로서 깊은 존경심을 표하고 싶다.

이런 점을 본받아 본 연구자 역시 후학들을 위해 묵계월의 소리가 그대로 전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힘든 역경을 딛고 80년 넘게 소리인생을 걸어 온 묵계월을 지금은 만날 수 없게 되었지만, 묵계월의 생애사를 통해 역사기록에서도 경기민요의 길을 함께 걷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번 연구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수정, 보완이 필요할 줄로 사료

된다. 보다 많은 경기민요 가창자들을 만나, 경기민요가 어떤 흐름으로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묵계월이 본연구자의 스승님이었던 점에서 보다 많은 부록을 준비할 수 있었는데, 그 종류는 구술채록 자료 외에, 그 때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과, 공연 팸플릿 들을 모아 정리하였다.

# 참 고 문 헌


경기도국악당, 『경기잡가』, 경기도국악당, 2006.

국립무형유산원,『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채록 연구의 성과와 가능성 - 무형문화유산 학술총서1』, 국립무형유산원, 2014.

김천흥, 『심소김천흥무악칠십년』, 민속원, 1995.

김혜리·김영윤, 『경기민요』, 민속원. 2008.

류의호, 『묵계월의 경기소리 연구』, 깊은샘, 2003.

문화재관리국,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57호」,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8집』, 문화재관리국.

반재식, 『재담천년사』, 서울 백중당. 2000.

송방송, 『한겨레음악대사전』, 보고사, 2012.

유창, 『송서율창 민요가창선집』, 태흥문화출판사, 2011.

이창배, 『한국가창대계』, 흥인문화사, 1976.

張師勛, 『國樂大事典』, 世光音樂出版社, 1984.

권오성, 「박춘재·이창배 선생이 경기도 소리에 끼친 업적」, 『1회 경기민요학술대회 박춘재와 그의 시대』 학술대회집, 국립무형유산원, 2014.

방인숙, 「명창 이은주의 경기민요 연구」, 남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임돈희·임장혁, 「중요무형문화재 보존 전승의 과제」, 『문화재』 30, 1997.

정경숙·서종원, 「묵계월의 활동을 통해 본 경기민요 史 -공연활동을 중심으로-」, 『강원민속학·26』, 강원민속학회, 2012.

# 참 고 자 료

묵계월 공연 팸플릿.(정경숙 소장)
묵계월 구술채록 자료 1차 : 정경숙 채록, 2012.2.2.
묵계월 구술채록 자료 2차 : 정경숙 채록, 2012.2.10.
하진옥 구술채록 자료 : 정경숙 채록, 2012.2.15.

염창순 민속공연 초대권
묵계월 소장음반 및 소장품(정경숙 소장)
제11회 방일역국악상 팸플릿

(사)한국민요연구회 사이트 : http://www.koreaminyo.or.kr/
국악음반박물관 http://www.hearkorea.com

〈경향신문〉 1963. 7.13 일자
〈동아일보〉 1940. 6.19, 1967. 4.20, 1967. 6.5, 1970. 8. 10 일자

# ABSTRACT

## Study on the life history of a master singer of Gyeonggi folk song, Muk Gyewol

Jung, Kyung-Suk
Major in Classical Literature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to establish an academic basis of Gyeonggi folk song, a type of Korean traditional art by examining the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Gyeonggi folk song through the life history of a master singer Muk Gyewol. Following the typical definition of 'life history' of a master singer, the article particularly focuses on both the pedigree, and the unique relations between a master and pupils that are formed especially when obeying to masters and his or her teachings are considered as strictly absolute and such teaching are usually orally passed down to the pupils.

As most other singer families did in Korea, Muk's family had low social status. When she was eleven, Muk started her career as a professional folk song singer under the teachings of her stepmother, which continued till she turned to twenty. It was not until she was

selected as an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en she was finally upwardly mobile. The article shows how Muk took the initiative and set an example of a master singer in order to devote herself to the honor of the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lso the article attempts to explain Muk's reasons and motivations to get involved in Gyeonggi folk song, the learning process, performance and other activities such as forming Gyeonggi folk song research association and its activity by thoroughly understanding the relations between a master and pupils. Moreover, the process of listing Gyeonggi folk song as an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was examined from the aspect of the development of the Gyeonggi folk song.

This research is not just conducted through the examinations on references or previous researches. It also includes the record of conversation between the researcher who has been a pupil of Muk for about 40 years and Muk herself who has lived as a master singer of Gyeonggi folk song for her whole life. Surely it is more valuable resource than any other literature records on this topic. However, Muk's loss of memory due to old age was supplemented by other literature records. Hence, the article proposes more than just an individual biography: the valuable development of Gyeonggi folk song and its future value. After they were designated as an Intangible Cultural Treasure, Muk Gyewol, An Bi-chwi, and Lee Eun-joo, who are master singers as well as the main figures of the Gyeonggi folk song research association, not only maintained dignity as a public figure but also greatly performed their mission as a master singer. The article also illustrates it through their stage performance, active involvement in recording and shows how folk performance contributed to popularization of folk art by investigating various pamphlets, invitations and advertisements of the performance.

The unique and great achievement of Muk Gyewol is in her making great efforts to teach and passing down her skills to her pupils, which can be seen as unequaled. She had carried on the legacy of singing Songseo-yulchang that she learned from her teacher, Lee Munwon and succeeded to her pupil, Yoo Chang who were designated as the 41 Intangible Cultural Treasure of Seoul in 2009. As a result, it can be said that Muk prevented the tradition from being broken off. Surprisingly, under Muk's teaching there are two students who hold the designation of Human Cultural Asset, four apprentices as assistant instructors, five apprentices with scholarship, nine awardees of President Prize and thirty six students who completed the Gyeonggi folk song course. She fostered numerous pupils and fulfilled the mission both as a master singer and folk artists. Furthermore, she not only focused on the students' skills as a singer but also paid close attention to build students' upright character as an individual

In conclusion, the article deals with the life history of a master singer, Muk Gyewol and covers the overall history of Korea's Gyeonggi folk song. Also it shows how Muk Gyewol has set an example of a great teacher for the future generation and successfully fulfilled her mission as a master singer through her whole life. Finally it suggests tasks that are assigned to other younger Korean folk singers.

【Key Words】 Muk Gyewol, Life history, Oral statement, Gyeonggi folk song, Human Cultural Asset, Gyeonggi Folk Research Association, Songseo-Yulchang, Samsul-Gi, Training younger students